

국립국어원 2009-3-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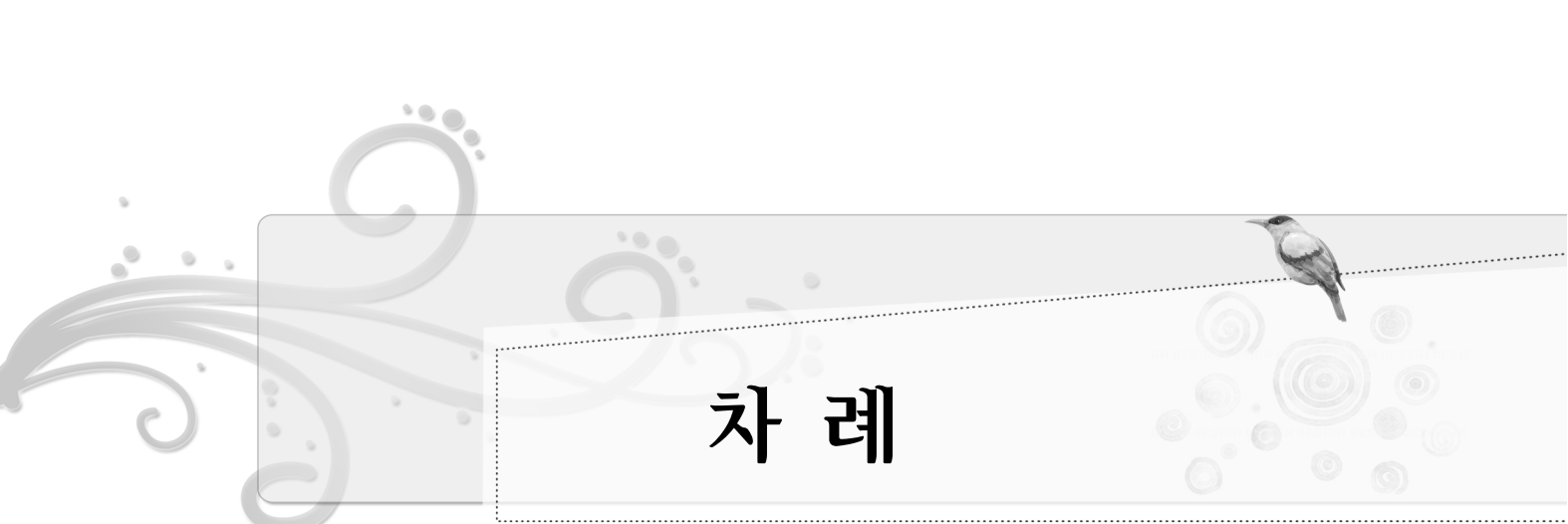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차 례

👑 국립국어원 소개

👑 국어문화학교 소개

01	한글 맞춤법	안효경	• 3
02	띄어쓰기	권미영	• 19
03	표준어	김주미	• 37
04	표준 발음법	황연신	• 57
05	외래어 표기법	봉미경	• 79
0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정재은	• 95
07	문장 바르게 쓰기	유하라	• 115
08	우리말 다듬기	김길동	• 147
09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김형배	• 167
10	대화와 인간관계	이종권	• 183

국립국어원 소개



가.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을 주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함.
- 국어사전을 편찬하여 언어생활의 표준화와 교양 있는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여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함.



나. 조 직

원 장	행 정 지원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혁신 관리, 감사 및 사정 업무에 관한 사항 추진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국어연구 기획부	• 국어연구기획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 국어 순화, 전문 용어 표준화 국어 정책 연구 사업 관리 / 남북 언어 통합, 국어책임관 등 • 국어정보화팀 국어 정보화 촉진 사항 / 연구 결과 전산화 및 기반자료 구축 자료실, 전산실 운영 관리



국 어 생활부	• 국어실태연구팀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대중 매체의 언어 공공성 향상 • 홍보출판팀 대중 매체를 통한 국어 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각종 조사 연구 결과와 간행물의 출판·발간
국어진흥 교육부	• 국어진흥교육팀 국어문화학교 운영,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국어능력검정제도 시행, 교과서 감수, 국어문화원 지정 및 운영 지원 • 한국어진흥팀 세종학당 설립 /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 능력 검정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지원



다. 하는 일

(1)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사업



국 어 기 본 법

’05년 1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33개 조(전문 27개조와 부칙 6개조)로 구성. ’05년 7월, 동법 시행령 제정

※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법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다. 국어책임관 지정(법 제10조)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어문 규범 영향 평가 등(법 제11조,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어문 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문 규범의 현실성,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마. 공공 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법 제14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함.
- 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등(법 제17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 사. 국어의 보급 등(법 제19조)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아.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법 제22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자. 국어 능력의 검정(법 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 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 차.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법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가)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국어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



● 국어책임관의 업무 범위

- 공공 기관 내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업무
 - 국어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각종 교육
 - 다듬은 행정 용어·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장려
 - 국어책임관 관리 및 지원
- 지역 주민의 언어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업무
 -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일
 - 지역의 언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일
 - 지역의 언어문화유산 보전 및 그에 관련된 일

●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2009년 3월 현재)

- 중앙 행정 기관: 48개 기관 및 단체 중 43곳 지정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및 사무처가 없거나 최근 폐지된 자문회의 3곳 등 5곳 미 지정)
- 소속 기관: 442개 기관 중 160곳 지정
(정원이 적거나 지방 자치 단체 관할에 있는 소속 기관 등 총 282곳 미지정)
-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곳과 기초 지방 자치 단체 225곳 모두 지정

(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능력시험 관리

- 목적: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효율적인 업무 자질 향상을 도모
- 대상: 전 국민
- 관련근거: 국어기본법 제23조와 동 시행령 제18조

시험명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시행 기관	KBS 한국어진흥원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험 횟수	'04년: 1회, '05년: 2회 '06년~'08년: 연 3회 '09년 이후: 연 4회	'01년~'06년: 모두 20회 '07년 이후: 연 6회
평가 영역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어휘·어법, 창안, 국어 문화 등 분야	듣기·읽기·쓰기, 어휘, 어문규정, 어법 등



문항 수	100문항(선다형)	90문항(서술형 10, 선다형 80)
시험 장소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권역의 중등학교 26곳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중등학교 및 대학교 24곳

(다) 전국적인 국어생활 상담망 구축을 위한 국어문화원 지정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인 국어생활 상담망을 구축함. 현재 전국 16개소의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

전국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2009년 3월 현재)

지 역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원장)	연락처
서울 · 경기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http://barunmal.org	남영신	02)735-0991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 대학교 인문관 627호 http://munjang.net	박창원	02)3277-3250, 3277-4056
	한국방송 한국어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http://korean.kbs.co.kr/main.php	박영주	02)781-3838
강원도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http://kwnu.net	최홍열	033)250-8137 250-8133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http://korean.chungbuk.ac.kr	조항범	043)261-3450 276-990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http://www.koreanlab.or.kr	김희숙	043)229-8311
대전 ·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http://korean.smuc.ac.kr	구현정	041)550-5391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http://hankls.hnu.kr/	강정희	042)629-8345



전라북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http://korean.jj.ac.kr	소강춘	063)220-3095 220-3096
광주 ·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http://kor.chonnam.ac.kr	서상준	062)530-0313
대구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http://knukorean.knu.ac.kr	백두현	053)950-7498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http://ccrk.yu.ac.kr	최동주	053)810-3561
부산 · 경상남도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http://kor.donga.ac.kr	최낙복	051)200-7180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http://ckc.gsnu.ac.kr	김용석	055)751-619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http://korea.ulsan.ac.kr/	성범중	052)259-2647
제주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http://malguel.cheju.ac.kr	강영봉	064)754-2712 754-2710

(2) 대국민 편의 제공

(가)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검색 가능.

(나) 가나다 전화(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국어 관련 상담.

(다)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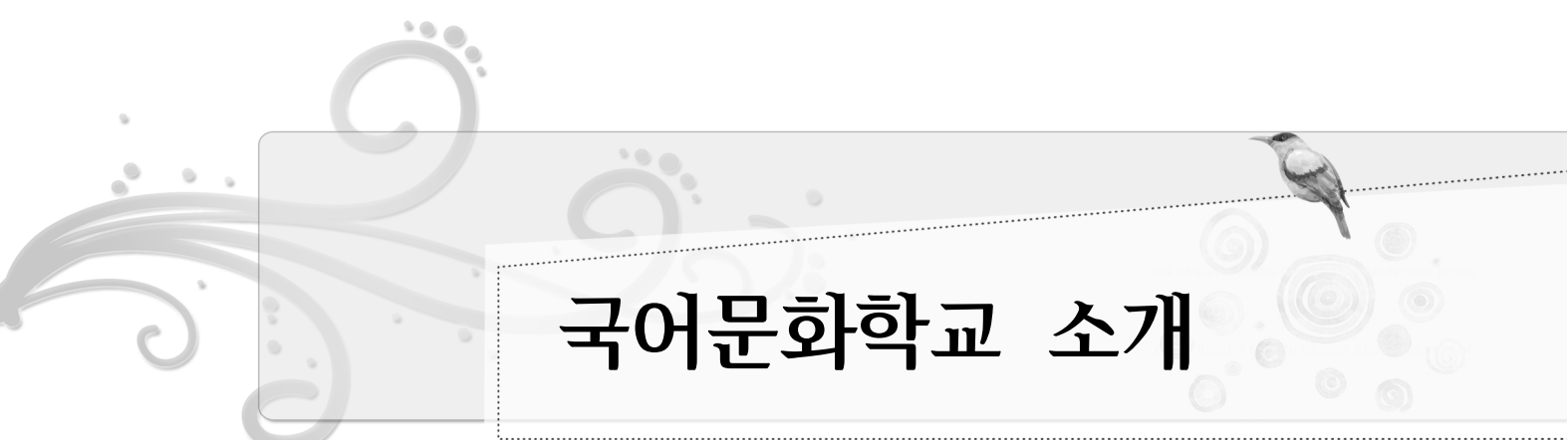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oz121@korea.kr로.

(라)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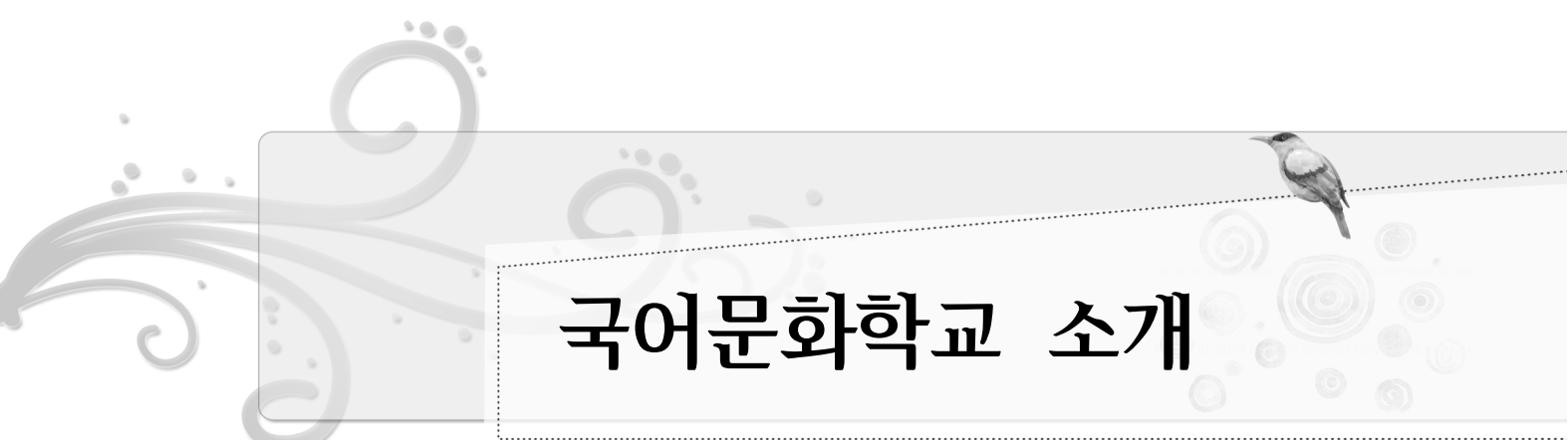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마)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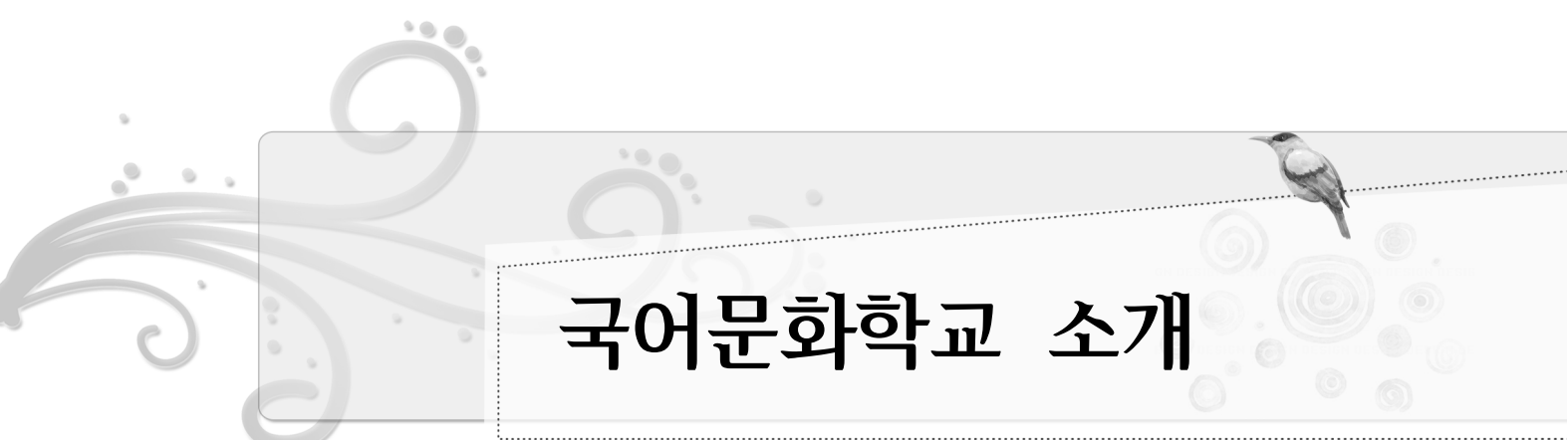


국어문화학교 소개



가. 개 관

국어기본법(2005. 1.) 및 그 시행령(2005. 7.)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 운영 목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그 간의 운영 과정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00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약 2,400여 명에 이르러, 9년간 총 1만 5천여 명이상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1.	국외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4. 2. 23. ~ 24.	제1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 워크숍(12명) 개최
2004. 5. 4.	건설교통부 주최 도로 표지 담당자 전산시스템 관련 옥외광고물 관련자 로마자 표기법 교육(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300명, 건설교통부 주최)
2004. 5. 25.	전국 16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 국어 표기법 교육(국립국어원 강당, 45명, 행정자치부 주민과와 국립국어원 주최)
2004. 7. 16.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와 영남대학교 국어생활 상담 연구센터 간 국어문화학교 강의 위탁 협정서 체결(협정 기간: 2004. 7. 16.부터 2년간)
2004. 8. 26. ~ 27.	제2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7명) 워크숍 개최
2005. 1. 28. ~ 29.	제3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11명) 워크숍 개최



2005. 10. 24. ~ 25.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15. ~ 16.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9. ~ 10.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6. 3. 27. ~ 31.	충청남북도 공무원 국어반 교육(충북대 개신문화관, 충청남북도 공무원 103명)
2007.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도	과정	원내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합계		244개 반	128회	14,171명	1,427회	124,765명



라.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국어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4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표준어, 표준발음,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바르게 쓰기, 글쓰기 지도, 우리말 다듬기, 대화와 인간관계, 한글의 제자 원리,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47
 -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문장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구별해야 할 말,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연습,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의 표현, 국어 논술의 이해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4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문장부호 사용법 포함),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대화와 인간관계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사료 및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바른 국어 생활

- 01 한글 맞춤법
- 02 띄어쓰기
- 03 표준어
- 04 표준 발음법
- 05 외래어 표기법
- 0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07 문장 바르게 쓰기
- 08 우리말 다듬기
- 09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 10 대화와 인간관계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안 효 경(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문학박사)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1. 소리 나는 대로 쓰기와 원래의 형태 밝혀 적기

- 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 꾀니피 바라메 혼날린다.
- 꽃도, 꽃만, 꽃이 / 꼬또, 꾀만, 꾀치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

2. 두 마리 토끼 - 읽기 쉬운 표기법과 쓰기 쉬운 표기법

-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소리대로 적는’ 원칙만 따른다면 ‘꼬출 꺾따’와 ‘꼰만 꺾따’의 ‘꼬’와 ‘꼰’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꽃’이라고 같은 표기로 적기 때문이다. 만약 ‘소리대로’라는 원칙에만 따라 ‘꼬출, 꼰만’이라고 적는다면 ‘꼬’와 ‘꼰’이 같은 말임을 알아보는 데에, ‘꽃’이라고 하나로 적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오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말하는 어법이란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로 적는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 한글 맞춤법의 실제

I. 소리에 관한 맞춤법

1. 된소리 제대로 표기하기

1-1. 머리를 싹뚝(?) 잘랐다.

[산뚝]/[산뚝], [일쑤]/[일쑤], [섬뚝]/[섬뚝], [몽땅]/[몽땅]처럼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는 된소리뿐 아니라 된소리가 아닌 소리도 발음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싹뚝], [몹씨]의 경우처럼 ‘ㄱ’이나 ‘ㅂ’ 받침 뒤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자음은 저절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항상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국수, 딱지, 법석, 덩석

1-2. 눈에 눈꼽(?)이 잔뜩 껴다.

‘눈꼽, 눈살’은 ‘눈’과 독립적인 말인 ‘꼽’과 ‘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비록 [눈꼽], [눈쌀]로 소리 나지만 ‘눈꼽, 눈쌀’로 표기하지 않는다.



2. 두음법칙 적용하기

2-1. 뇨도염(?)에 걸렸다.

‘요도/당뇨’, ‘양심/개량’, ‘낙원/극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 첫머리에 ‘ㄴ,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음 ‘녀, 뇨, 뉴, 니’ 또는 ‘랴, 려, 료, 류, 리’는 단어 첫머리에서 ‘ㅇ’으로, ‘라, 래, 로, 뢰, 루, 르’는 ‘ㄴ’으로 된다. 그러나 ‘당뇨’의 ‘뇨’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나 ‘년, 리, 냥’과 같이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익명, 연세 / 예의, 용궁 / 누각, 능묘 / 몇 년, 몇 리, 그럴 리가

2-2. ‘회계연도’인가 ‘회계년도’인가 잘 모르겠다.

‘會計 年度’는 한 단어가 아니라 ‘회계’와 ‘연도’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용어이므로 ‘회계 연도’로 표기해야 한다. ‘신년도’와 ‘신여성’은 단어의 구조가 서로 다른 말이다. ‘신년도’는 ‘신년’에 ‘도’가 붙은 말이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 비해 ‘신여성’은 ‘여성’에 ‘신’이 붙은 구조이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예) 남존-여비, 역-이용, 해외-여행, 중-노동, 사상-누각

2-3. ‘성공률’이 맞는가? 아니면 ‘성공율’이 맞는가?

‘율/률’, ‘열/렬’은 모음과 ㄴ 받침 뒤에서는 ‘율, 열’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 렬’이 된다.

예) 선율, 규율, 실패율 / 법률, 성공률, 출석률
분열, 비열, 나열 / 병렬, 장렬

2-4. ‘노동량’? ‘노동양’?

한자어 ‘量’과 ‘欄’은 앞말에 따라 ‘량’과 ‘양’ 그리고 ‘란’과 ‘난’이 된다.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양’이 된다. 그 이유는 ‘量’과 ‘欄’ 같은 한 음절의 한자어가 한자어 다음에 쓰일 때에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배기량, 노동량, 작업량 / 일양, 알칼리양
가정란, 투고란, 독자란 / 어린이난, 가십난

II. 조사와 어미에 관한 맞춤법

3. 어미 ‘-오’와 조사 ‘요’를 구별하자.

‘-오’와 ‘요’는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안녕히 가십시오.’의 ‘-오’는 종결 어미로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므로 ‘안녕히 가십시’처럼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하여 ‘앉아요.’의 ‘요’는 문장의 끝에 붙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앉아’처럼 ‘요’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이고 성립하면 ‘요’라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에서의 ‘-이요’는 ‘-이고’와 같이 나열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요’이다.

4. ‘되다’와 ‘돼다’는 정말 혼동돼.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선생님이 돼서 만났다.’처럼 본말 ‘되어서’로 풀 수 있으면 ‘돼-’로 적어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느냐’처럼 본말 ‘되어겠느냐(×)’로 풀 수 없다면 ‘되-’로 적어야 한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라.’의 ‘돼라’는 ‘되-’ + ‘-어라(직접명령어미)’의 구조이므로 ‘되-’ + ‘-(으)라(간접명령어미)’의 구조인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의 ‘되라’와는 구별해야 한다.

5. ‘-다’ 기본형 잘 찾기



* 손을 물에 담궈야(?) 한다.

‘담가야’의 기본형은 ‘담구다’가 아니라 ‘담그다’이므로, ‘담그-’ + ‘-어/아’ = ‘담가’이다.

예 잠그다, 치르다



6. 된소리가 나는 어미 바르게 쓰기: 살게? 살께?

소리는 [살께]로 나지만 쓸 때는 ‘살게’로 쓴다. ‘살걸’, ‘살거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살걸’, ‘살거나’로 나도 적을 때는 ‘살걸’, ‘살거나’로 적는다. ‘내가 살까?’, ‘내가 갈쏘냐’, ‘어찌 살꼬’의 경우는 소리대로 ‘-르까’, ‘-르쏘냐’, ‘-르꼬’로 적는다.

III. 파생어와 합성어에 관한 맞춤법

7. 명사형 어미 ‘-(으)ㄴ’ 결합시키기



* ‘쭈’이라는 표기가 맞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 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 있다. ‘명사’는 언제나 명사로만 기능하는 품사임에 비해 ‘명사형’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그 본래의 성격은 그대로 지닌 채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임시로 형태를 바꾼 것을 말한다. 명사형 어미는 ‘떡-’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ㄴ’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줄-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어간은 명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ㄹ’ 형태를 가지게 된다.

예) 쭈, 삶, 얹, 바람

그런데 ‘삶, 얹’처럼 ‘명사’와 ‘명사형’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변별할 수 없고 문장 안의 다른 성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예) ① 그의 검소한 삶은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② 그는 검소하게 삶으로써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다.

위의 예에서 ①의 ‘삶’은 관형어인 ‘검소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임을 알 수 있고, ②의 ‘삶’은 부사어 ‘검소하게’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 쉬어 가는 자리 1: 자리 있음(?)

1988년에 어문 규범이 개정되면서 ‘-읍니다’는 ‘-습니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을 확대 적용하여 ‘있다’의 명사형도 ‘있음’이 아니라 ‘있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는 ‘-음’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 쉬어 가는 자리 2: 제게 계획이 {있아오니 / 있사오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사오니’의 ‘-사오-’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8.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의 원형 밝혀 적기

‘오뎅하다’의 ‘오뎅’처럼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말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 ‘오뎅이’의 경우 ‘오뎅’이라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준다. 이는 시각적으로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오뎅하다’의 ‘오뎅’과 ‘오뎅이’의 ‘오뎅’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 뼈죽이, 꿀꿀이, 흘쭉이 / 개구리, 깍두기, 얼루기

9. 부사와 접미사 ‘-이/-히’ 바르게 쓰기: 버젓이? 버젓히?

부사의 끝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1) ‘이’로 적는 경우

- ① ㅂ불규칙 용언 뒤: 가벼이, 쉬이
- ㉒ ㅅ받침 뒤: 버젓이, 지긋이
- ③ 첩어 명사 뒤: 일일이, 틈틈이
-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굳이
- ⑤ 부사 뒤: 더욱이, 일찍이



(2) ‘히’로 적는 경우

‘-하다’가 붙는 어간 뒤: 꾸준히, 막연히

10. 형태 밝히기와 발음대로 적기: 며칠? 몇 일?

‘몇 일’은 ‘며덜’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이냐?’라고 쓰게 되면 [며될 며디리냐]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며될 며치리냐]라고 발음하므로 ‘몇 일’이 아닌 ‘며칠’로 적어야 한다.

*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며칠]이지?

11. 사이시옷 바르게 적기

11-1. 언제 사이시옷을 적는가?: 장밋빛(?) 인생

명사 합성어 중에서 그 구조가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닌 경우,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②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이거나 모음인 경우 이들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시냇가, 찻잔, 기뻛값, 대푯값, 만뫼국, 장밋빛, 나뫼잎, 텃마루, 뫼잎, 잇몸

11-2. 사이시옷에 예외는 없는가?



1.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명사 합성어는 사이시옷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의 여섯 단어에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2. 뫼칸(?)에 넣으라.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고 해도 ‘위쪽, 위칸’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 거센 소리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잡깃!

※ 쉬어가는 자리: ‘수눔’인가요? ‘숫눔’인가요?

‘수눔’은 [순눔]이 아니라 [수눔]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에는 [순냥], [순념소], [수쥼]로 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암, 수’의 옛 형태는 각각 ‘암ㅎ’, ‘수ㅎ’이었는데 이 ‘ㅎ’으로 인해 ‘ㄱ, ㄷ, ㅂ’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암, 수’ 뒤에 오게 되면 ‘ㄱ, ㄷ, ㅍ’로 소리가 나게 되고, 적을 때도 ‘수강아지’처럼 거센소리로 적는다.

IV. 준말에 관한 맞춤법

12. 무엇이 줄어든 말인가?

12-1. 게 {섯거라/섯거라}.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서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게 서 있거라’가 줄어서 된 말은 원래의 받침이 살아 있는 ‘게 섰거라’이다.

예 어제그저께 → 엇그저께, 기러기야 → 기럭아, 디디고 → 달고

12-2. 옷이 {갈갈이/갈가리} 찢겼다.

본말인 ‘가리-가리’에서 앞쪽의 ‘가리’가 줄어든 것으로 그 끝소리 ‘ㄹ’이 줄고 나면 ‘ㄹ’이 ‘가’의 받침이 되어 ‘갈’이 된다. 따라서 ‘가리-가리’의 준말은 ‘갈갈이’가 아니라 ‘갈가리’로 적어야 한다.

예 갓가지, 골고루

12-3. 오늘은 웬지(?) 바다가 보고 싶다.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은 ‘웬지’이다. ‘웬지’라는 말은 없으며, ‘웬’은 ‘웬일, 웬만하



면'처럼 다른 말과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거나, '웬 사람이, 웬 바람이'처럼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 쓰인다.

13. '-잖-'과 '-찮-' 구별하기: 그럴잖은? 그럴찮은?

'그렇지 않은' 같은 '-지 않-'의 준말은 '-잖-'으로 적고, '변변하지 않은' 같은 '-하지 않-'의 준말은 '-찮-'으로 적는다.

14. '-하-'가 결합된 말이 줄어들 때 '-하-'가 떨어지는 양상

㉮ 깨끗치(?) 못하게, 그게 무슨 짓이니?

'깨끗지'는 '깨끗하지'가 줄어든 말이다. '하' 앞에 [ㄱ], [ㄷ], [ㅂ] 소리로 끝나는 받침이 있을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 외의 받침이 오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만 떨어지고 'ㅎ'은 남게 된다.

㉮ 넉넉지, 익숙지, 생각건대, 짐작건대 / 만만치, 변변치, 달성케, 감탄케, 다정타



◎ 한글 맞춤법 연습

1-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진수는 땅바닥에 {털석/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 (2)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산뜻해지는/산뜻해지는} 듯하다.
- (3) 장인어른에게 {넙죽/넙죽} 절을 했다.
- (4) 계속 {쑥덕/쑥떡}거리는 사람에게는 쑥떡을 하나 주어라.

1-2.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몹씨 화를 내셨다.
- (2) 빨래터에 새색씨들이 웅기종기 모여 빨래를 하고 있다.
- (3) 친구가 갑짜기 울음을 터뜨렸다.
- (4)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바로 우리 마을의 보배랍니다.

2-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옛날이면 금 열 {양/냥} 값인데.
- (2) {선동열/선동렬}은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 (3) 분위기가 너무 {냉냉했다/냉랭했다}.

2-2.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아들은 그 사이 늙늙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 (2) 그 공원에는 류관순 동상이 세워져 있다.
- (3) 오늘은 김륜식 교수님을 찾아 뵈려고 한다.
- (4)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냥냥 18세’이다.

2-3.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종소리와 함께 대망의 {2000연대/2000년대}가 밝았다.
- (2)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노동/중로동}이다.
- (3) {구연도/구년도} 달력은 모두 창고에 갖다 놓았다.
- (4) 역시 {고냉지/고랭지}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다.



2-4.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실락원’이라는 책 읽어 봤어요?
- (2) 항상 연말년시가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 (3) 남존녀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4) 그 자리는 경노석이니 앉지 마세요.

2-5.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올해의 물가 {상승율/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다.
- (2) 과일 음료수의 성분 중에서 실제 과일의 함량 {비율/비률}은 많지 않다.
- (3) 그 분을 기리는 {충열탑/충렬탑}이 세워져 있다.

2-6.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1/2을 백분률로 바꾸세요.
- (2) 우리 학과의 대기업 합격율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3) 여러 방향으로 분렬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2-7.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독자난/독자란}에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요.
- (2) 오늘 해야 할 {작업양/작업량}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 (3) 오늘은 {구름양/구름량}이 유난히 적은 날이라고 해요.

2-8.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펜팔란에서 찾아 보세요.
- (2) 칼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 (3) 날이 갈수록 감자 배분량이 적어지고 있다.

3-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시오.
- (2) 다 먹은 접시는 저를 {주십시오/주십시요}.



- (3) 아니, 이게 {뉘시오/뉘시오}?
- (4)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아니오/아니요}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3-2.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나는 의사가 아니요.
- (2) 이것은 책상이오 저것은 책장이다.
- (3) 말씀 낮추십시오.

4-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옆 사람에게 기대시면 {되요/돼요}.
- (2) 그게 말이 {되느냐/돼느냐}?
- (3) 그렇게 하면 안 {되/돼}.

4-2. 잘못된 곳을 찾아 맞게 고치시오.

- (1) 이제 참새만 그려 넣으면 돼죠.
- (2) 제발 사람 좀 되라.
- (3) 내가 그렇게 돼라고 빌었니?
- (4) 그 일은 잘 되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이에요.

5.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문을 꼭 {잠가라/잠귀라}.
- (2) 김치를 직접 {담가/담귀} 드세요?
- (3) 예전에 수희랑 민수가 서로 {사겼대/사귀엇대}.
- (4)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치뤘다}.

6-1. 다음을 명사형으로 바꾸세요.

- | | | |
|------|-------|-------|
| 썰다 → | 나누다 → | 그립다 → |
| 짓다 → | 견다 → | 둥글다 → |



6-2.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불원간에 닥쳐올 앞날의 {낯설음/낯섦}에 대한 두려움.
- (2) 눈 주위 피부의 {거칠음/거칠}을 방지해 줍니다.
- (3) 놓아 둔 라면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음/끓}.

7.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신랑은 {배불뚝이/배불뚱기}이다.
- (2) 내 옷은 완전히 {누덕이/누더기}가 다 뒀어요.
- (3) 기력기력 {기력이/기러기}
- (4) 잘 깔쭉거리는 사람은 {깔쭉이/깔쭉기}
- (5) 코가 납작하니까 {코납작이/코납자기}

8-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이/꼼꼼히} 읽어라.
- (2) 손을 {깨끗이/깨끗히} 씻어라.
- (3) 그 일만은 {도저이/도저히} 할 수 없어요.
- (4) 그 만년필 내가 {끔찍이/끔찍히} 아끼는 것이야.
- (5) {꾸준이/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8-2.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간간히 비가 내리곤 했다.
- (2) 머리를 아래쪽으로 깊숙히 숙여 보세요.
- (3) 그 성은 담으로 겹겹히 둘러싸여 있었다.
- (4)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와 멀찍히 떨어져서 걸으셨다.

9-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귀병/긋병}과 {화병/훗병}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습니다.
- (2) {등교길/등꽃길}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 (3) 올 여름 {장마비/장맛비}에 우리 논의 벼가 다 쓰러지고 말았다.
- (4) 이 일의 {대가/댓가}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니!
- (5) 요즘은 {전세방/전셋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9-2.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친구들과는 피자집에서 자주 만났었다.
- (2) 사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하셨다.
- (3)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햇님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 (4) 내 동생은 화가 나면 아랫턱을 볼썽 내미는 버릇이 있다.
- (5) 저기 개나릿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하세요.

10-1.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너구라/너굴아} 이리와!
- (2) {기러가/기력아} 내 마음을 알아 다오.
- (3) 잠시 {머물러/머물어} 있고 싶다.

10-2. ‘가지-가지’와 ‘고루-고루’에서 줄어든 말은?

10-3. 다음 말의 준말을 써 보세요.

만만하지 않다 →

적지 않은 →

10-4.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오늘 1시에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자/실시코자/실시코져} 하오니 모두 강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곳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애절꾸려}.
- (3) 보수는 내가 {섭섭지/섭섭치} 않게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 (4) 할 말이 있으면 {서슴지/서슴치} 말고 하세요.
- (5) {생각다 못해/생각타 못해} 제가 직접 왔어요.
- (6) 목적을 {달성고자/달성코자} 열심히 노력했다.
- (7) 설명을 {정확케/정확하게} 해주세요.



- 1-1. (1) 털썩 (2) 산뜻해지는 (3) 넘죽 (4) 쑥덕
- 1-2. (1) 몹시 (2) 새색시 (3) 갑자기 (4) 떡갈나무
- 2-1. (1) 낭 (2) 선동렬 (3) 냉랭했다
- 2-2. (1) 능름한 (2) 유관순 (3) 김윤식 (4) 낭랑
- 2-3. (1) 2000년대 (2) 종노동 (3) 구년도 (4) 고랭지
- 2-4. (1) 실낙원 (2) 연말연시 (3) 남존여비 (4) 경로석
- 2-5. (1) 상승률 (2) 비율 (3) 총렬탑
- 2-6. (1) 백분율 (2) 합격률 (3) 분열된
- 2-7. (1) 독자란 (2) 작업량 (3) 구름양
- 2-8. (1) 펜팔난 (2) 칼숨양 (3) 배분량
- 3-1. (1) 아니요 (2) 주십시오 (3) 뉘시오 (4) 아니요
- 3-2. (1) 아니오 (2) 책상이요 (3) 틀린 곳 없음
- 4-1. (1) 돼요 (2) 되느냐 (3) 돼
- 4-2. (1) 되조 (2) 돼라 (3) 되라고 (4) 돼도
- 5. (1) 잠가라 (2) 담가 (3) 사귀었대 (4) 치렀다
- 6-1. 썰, 나눔, 그리움, 지음, 걸음, 둥글
- 6-2. (1) 낫썰 (2) 거침 (3) 불음
- 7. (1) 배불뚝이 (2) 누더기 (3) 기러기 (4) 깔쭉이 (5) 코납작이
- 8-1. (1) 꼼꼼히 (2) 깨끗이 (3) 도저히 (4) 끔찍이 (5) 꾸준히
- 8-2. (1) 간간이 (2) 깊숙이 (3) 겹겹이 (4) 멀찍이
- 9-1. (1) 콧병, 화병 (2) 등곳길 (3) 장맛비 (4) 대가 (5) 전세방
- 9-2. (1) 피자집 (2) 인사말 (3) 해님 (4) 아래턱 (5) 개나리길
- 10-1. (1) 너굴아 (2) 기력아 (3) 머물러
- 10-2. 갖가지, 골고루
- 10-3. 만만찮다, 적잖은
- 10-4. (1) 실시하고자, 실시코자 (2) 애절꾸려 (3) 섭섭지 (4) 서슴지 < '서슴하지'의 줄
인 말이 아님 > (5) 생각다 (6) 달성코자 (7) 정확하게



국어문화학교

❖ 권 미 영(인하대학교/박사 수료)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어, ‘띄어쓰기’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띄어쓰기’와는 상관없이, 위 문장의 의미를 보통 전자 쪽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처럼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한국대학교의과대학’처럼 붙여 쓴 경우보다 의미를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인데,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현행 맞춤법에서 채택한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띄어 쓸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 (가)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나)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다)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라)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가)의 경우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어 잘게 띄어 써 봤다. 그러다 보니 조사 ‘에서,’



를, 는', 어미 '-다', 관형사 '두', 의존 명사 '수'를 모두 띄어 썼는데 언뜻 보아도 비실용적이다. 반면 (나)에서는 조사와 어미, 관형사와 의존 명사를 모두 앞말에 붙여 써 봤는데, 흔히 이렇게 띄어쓰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에서는 의존 형식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자립 형식인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 써 보았다. 끝으로 (라)에서는 통사적인 구절 단위로 끊어 보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읽을 때 끊어지는 단위와 비슷하다. 이들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현행 맞춤법은 (다)처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문장의 각 □□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맞춤법 제1장 제2항)



잠깐!

1. 단어(*)의 정의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예 김, 좋다, 꼭, 그 등

(☺ 단어의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문이 나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단어일 확률이 높다.

2. 단어의 구성별 종류

- | | |
|--------------------|----------------------------|
| ① 단일어(어근) | 예 김, 밥, 돌다, 가다 등 |
| ② 합성어(어근 + 어근) | 예 김밥, 나뭇잎, 돌아가다, 뛰어놀다 등 |
| ③ 파생어[접두사(*) + 어근] | 예 중환자, 총감독, 휘돌다, 치달다 등 |
| [어근 + 접미사(*)] | 예 선생님, 홍씨(홍가), 생각하다, 체하다 등 |

3. 단어의 품사별 종류

- ① 명사(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 ② 조사(*)
 - ③ 동사, 형용사[용언, 어간 & 어미(*), 본용언 & 보조 용언(*)]
 - ④ 관형사(*), 부사
 - ⑤ 감탄사
- (* 표는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



1. 단어는 모두 띄어 쓰나요?

➡ 그렇다. 원칙적으로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면 두 단어를 붙여 쓰지만, ‘우리 집’처럼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사[예 이, 가, 을, 를, 에, 에서 등]’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2.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앞에서 밝힌 ‘조사’ 외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가 있다. 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重)-’, ‘-별(別)’, ‘-었-’처럼 ‘붙임표(-)’로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붙여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앞에서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단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 강의실 밖에서 {큰소리/큰√소리}가 들린다.
- 김 과장은 늘 {큰소리/큰√소리}만 친다.

➡ 두 단어가 연속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새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도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음성이나 음향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면,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소리’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풍, 과장’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한 단어로 보고 붙여 써야 한다.



- (1) 저녁에 술 {한잔/한√잔} 합시다.
-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 (3) 이번 면접이 잘 {안되었대요/안√되었대요}.
- (4) 그래서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안√됐더라}.
- (5) 우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로 정하자.
-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같이√할} 것이다.
- (7) {큰형/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 (8) {우리학교/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 (9)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전매√제한}이 없다.
- (10) 강남권에 {물량집중/물량√집중}이 극심하다.

기 준 2.

- 대통령은 은퇴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돌아√갔다}.
- 골목 끝에서 {돌아서갔다/돌아서√갔다}.

➡ 두 단어가 연속될 때 단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김밥’처럼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면 긴밀성이 강해서, ‘김**에**밥*’처럼 다른 말이 삽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는 ‘돌아선 갔다’와 같이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다면, 긴밀성이 약하여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겠고,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면 긴밀성이 강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겠다.



- (11) 방 안을 {둘러보았다/둘러√보았다}.
- (12)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 (13)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 (14)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 (15)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빴다.



4.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1. 조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에도 붙여 쓰나요?

-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에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조사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집’ 뒤에 있는 ‘에서-만-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전부 앞말에 붙여 써야겠다. 또한 어미 뒤에 조사를 쓸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2. 이것도 조사인가요?

- 역시 {친구밖에/친구/밖에} 없어.
- {이밖에/이/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은, 는, 이, 가, 을, 를, 에서’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밖에, 같이, 는커녕, 라고, 그려’ 등이 조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 예의 ‘밖에’에서 ‘밖’은 명사로 조사 ‘에’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그 자체가 조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뒤에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런 쓰임이 아닐 경우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다. 아래에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몇몇을 정리하였다.



혼동하기 쉬운 조사

같이, 그려, 깨나, ㄴ즉슨, ㄴ커녕, 나마, 더러, 마는, 마따나, 마저, 만큼, 말고, 밖에, 보고, 부터, 뿐, 서부터, 라고, 야말로, 에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고, 하며, 한테 등



- (4)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 (5)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 (6) 철수는 {너하고/너√하고} 닮았다.
- (7)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 (8)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 (9) {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 (10) 그 계획 {좋습니다그려/좋습니다√그려}.
- (11) {이야긴즉슨/이야긴√즉슨} 이렇다.
- (12) {빨리는커녕/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건졌다.

➡ ‘같이’는 ‘같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부사로도 조사로도 사용된다. 먼저 부사인 경우에는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예 모두와 같이 했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의 뜻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인 경우에는 ‘① ‘처럼’의 뜻(눈같이 흰 꽃),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매일같이 지각하다.)’하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같이’가 부사인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인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앞말에 ‘와’ 같은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은 ‘같다’라는 형용사의 관형형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1. 의존 명사가 무엇인가요?

- 진상을 {들은바/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가/공헌하는√바가} 없다.

➡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 의존 명사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 주요 의존 명사의 목록과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요 의존 명사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의존 명사 구별 방법

- ① 그 자리에 다른 명사를 대치할 수 있나?
(예)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
- ②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나? (예) 나도 할 수 있다. → 수가)
- ③ 앞에 기댈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나? (예) 먹을 만큼 먹어라 → 먹을)



- (1)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 (2) {너때문에/너√때문에} 힘들었다.
-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 (4)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 (5)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 (6)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나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름’이나 ‘때문’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제 나름대로’ 혹은 ‘그 때문에’처럼 기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조사인가요?

- 이름이 나지 {않았을뿐이지/않았을√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통일√뿐이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조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앞에 기대는 말이 용언류라면 의존 명사이고, 명사류라면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않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을 띄어 쓰고, ‘통일’은 명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은 붙여 써야겠다.



- (7) {틈나는대로/틈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 (8) 처벌은 {법대로/법√대로} 해야 한다.
- (9)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 (10)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 (11) 그가 화를 {넌만도/넌√만도} 하다.
- (12)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 (13) 그 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㉔ ‘만’은 의존 명사로 ‘타당한 이유가 있음, 가능성’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조사로는 ‘한정, 비교’를 의미한다.

3.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어미인가요?

- 그 책을 다 {읽는데/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어미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데’는 ‘곳, 일,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는데’는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렇게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혼동이 될 때는, 그 혼동되는 형식 뒤에 조사를 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사는 명사류에 결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조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14)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15)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 (16)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17)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18)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 (19)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4.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접미사인가요?

- {수일내/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그는 {저녁내/저녁√내} 안 보였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접미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내’는 ‘여름내, 마침내, 끝내’처럼 일부 기간이나 때를 나타내



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이지만, ‘기간√내, 단지√내, 안전선√내’처럼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뜻으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20)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1)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 (22)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 (23)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감√들}이 있다.
- (24) 백화점에는 {사람들/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1) {15회/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규정]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1) {스물여섯/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1) {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
- (2)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 (3)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 (4) {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 (5)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 (6) 사진, 그림, {영화등등/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숙/감✓등숙}을 샀다.
- (8) 충주, 청주, {대전등지/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의 띄어쓰기



[규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단음절로 된 모든 단어는 붙여 쓸 수 있나요?

- 훨씬 {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이야.
- {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 책상



→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좀 더 큰 이 새 집’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큰 이 새집’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더√큰√새집’으로 붙여 쓸 수는 있지만 ‘더√큰√이√새’의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 (1) {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이 낫겠다.
- (2) {내것네것/내것√네것/내√것√네√것}이 어디 있냐?
- (3) {이곳/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 (4) {그때/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 (5) {전날/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 ‘이곳, 그때, 전날’과 같은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은 1음절 단어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어를 ‘이√곳, 그√때, 전√날’처럼 띄어 쓰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1. 보조 용언이 무엇인가요?

- 선물을 미리 {뜯어버렸다/뜯어√버렸다}.
- 화가 나서 선물을 {뜯어서버렸다/뜯어서√버렸다}.

➡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미 원칙이지만, 붙여 쓰미 허용한다. 그래서 앞의 첫 문장에서 ‘뜯어√버렸다’가 원칙이지만 ‘뜯어버렸다’처럼 써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뜯어서√(휴지통에)√버렸다’처럼 두 개의 용언이 모두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본용언이라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1) 고기를 {잡아본다/잡아√본다}.
- (2) 고기를 {잡아서본다/잡아서√본다}.
- (3) 사과를 {깎아드린다/깎아√드린다}.
- (4) 사과를 {깎아서드린다/깎아서√드린다}.



2. 보조 용언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나요?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도와√드린다}.
-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가고√싶다}.

➡ 여기서의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 한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첫 문장의 경우에는 ‘도와드린다’처럼 붙여 써도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가고√싶다’처럼 띄어 써야겠다.



- (5) 나무가 {늘어간다/늘어√간다}.
-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 (8)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 (9)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 (11)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 (12)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올√/듯싶다}.
- (13)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15)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

㉞ 붙여 써도 되는 보조 용언이라 하더라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3. 이것은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왜 띄어 쓰면 틀렸다고 하나요?

- 오늘 유난히 글이 잘 {써진다/써√/진다}.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예뻐하신다/예뻐√/하신다}.

➡ ‘-아/어’로 연결된 ‘지다’와 ‘하다’는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아/어’로 연결된 ‘지다’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특별한 제약 없이 대부분의 용언과 두루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이는 마치 하나의 문법 요소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어 지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잘못된 아니다.

‘-아/어’로 연결되는 ‘하다’ 또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이를 모두 붙여 쓰고 있다. 이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루 결합하여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그런데 이들은 합성어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의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류의 말을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대개 붙여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아/어 하다’와 같이 띄어 쓴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붙여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1) {김소월/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 (2) {채영신씨/채영신√씨}가 여기에 계십니까?
- (3) {김씨/김√씨}가 이 일을 했다.
- (4) {김씨/김√씨}들은 다 그래?
- (5) {황보영/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1) {대한중학교/대한√중학교}
-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
-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 ‘한국 교육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단위를 뜻한다.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 (1) {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
- (2)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 (3) {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 (1)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2)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3) {고(故)홍길동/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 (4) {고(故)인/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5)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 (6)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 (7)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 (8)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 (9) {총(總)인원/총√인원}이 40여 명이다.
- (10) {총(總)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1음절로 된 관형사의 경우 종종 붙여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대개 이것을 접두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형태가 관형사로도 접두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들은, 관형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고, 접두사의 경우에는 몇몇 명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는 사전을 곁에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1. 외래어를 띄어 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 그는 {톱클래스/톱√클래스} 가수이다.

→ 외래어는 원어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이라고 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준말,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쓴다.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 (2) 우리 집에는 {에어컨/에어√컨}이 없다.
-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 (4) 요즘 {뉴스쇼/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고√스톱}을 쳤다.



2. 외래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쓰나요?

- 최근에 {아마존강(江)/아마존√강}을 여행했다.
- 요즘 {프랑스어(語)/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 모든 {알코올류(類)/알코올√류}는 중독성이 있다.

→ 외래어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한자어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 단지 ‘외래어 표기법’에 ‘카리브√해, 몽블랑√산’ 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지명은 ‘아칸소√주, 에베레스트√산’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러시아√어/러시아어, 게르만√족/게르만족’처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이슬람력’이나 ‘디자인류’처럼 띄어 쓸 경우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슬람역’, ‘디자인 유’와 같이 써야 하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고 있다.



3. (1) 한잔 (2) 한√잔 (3) 안√되었대요 (4) 안됐더라 (5) 가위바위보 (6) 같이할 (7) 큰형
(8) 우리√학교 (9) 전매√제한 (10) 물량√집중 (11) 둘러보았다 (12) 찾아가서 (13) 주
저앉을 (14) 모아√잡고 (15) 주워√담기에
4. (1) 나가면서까지도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좋아한다기보다 (4) “그래.”라고 (5)
“그래.”√하고 (6) 너하고 (7) 소같이 (8) 친구와√같이 (9) 너같이 바보√같은 (10) 좋
습니다그러 (11) 이야긴즉슨 (12) 빠리는커녕
5. (1) 내√나름대로 (2) 너√때문에 (3) 들은√척도 (4) 말하는√이가 (5) 할√거니 (6) 할
√텐데 (7) 틈나는√대로 (8) 법대로 (9) 주는√만큼 (10) 당신만큼 (11) 낼√만도 (12)
백군만 (13) 삼√년√만 (14) 검토한바 (15) 공헌하는√바 (16) 만난√지 (17) 틀렸는지
(18) 떠난걸 (19) 좋아하는√걸 (20) 부모√자식√간 (21) 하든지√간에 (22) 한√달간
(23) 감√들 (24) 사람들
6. (1) 15회, 15√회 (2) 제3차, 제3√차 (3) 40여√명 (4) 30세가량, 30√세가량
7. (1) 스물여섯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3) 육조√팔억√칠천
8. (1) 국장√겸√과장 (2) 열√내지√스물 (3) 청군√대√백군 (4) 기간√및√경비 (5) 걸
상√등 (6) 영화√등등 (7) 감√등속 (8) 대전√등지
9. (1) 좀더√큰집, 좀√더√큰√집 (2) 내것√네것, 내√것√네√것 (3) 이곳 (4) 그때 (5) 전날
10. (1) 잡아본다, 잡아√본다 (2) 잡아서√본다 (3) 깎아드린다, 깎아√드린다 (4) 깎아서
√드린다 (5) 늙어간다, 늙어√간다 (6) 이겨냈다, 이겨√냈다 (7) 알아가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8) 하고√싶은 (9) 하지√않고 (10) 학자인양한다, 학자인√양한
다 (11)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12) 올듯싶다, 올√듯싶다 (13) 물어만√보았
다 (14) 떠내려가√버렸다 (15) 올√듯도√싶다
11. (1) 김소월 (2) 채영신√씨 (3) 김√씨 (4) 김씨 (5) 황보영, 황보√영
12. (1)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13. (1)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2)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3) 두
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1) 각√가정 (2) 각인 (3) 고√홍길동 (4) 고인 (5) 본√국어원 (6) 본원 (7) 순√한국식
(8) 순이익 (9) 총√인원 (10) 총인구
15. (1) 아이스크림 (2) 에어컨 (3)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4) 뉴스쇼 (5) 고스톱

✿ 김 주 미(건국대학교/문학박사)

1. 개 관

1.1. 표준어 원칙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총칙

- 질적: 교양 있는(상스럽지 않은) 말
비속어, 비속적 표현 제외(언어순화의 기능)
- 지역적: 서울말
- 시대적: 현대어

1.2. 표준어의 기능

- 한나라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고양
- 의사소통 원활 – 공통어 구실
- 공식적인 상황 – 공용어 구실

1.3.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 여러 방언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의 말을 인위적으로 표준어라고 정함.
- 서울말 이외의 다른 방언들이 옳지 않거나 열등해서가 아님.



2. 표준어 규정

2.1.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 [칸막이/간막이]가 높아서 답답하다.

‘칸’은 한자어 ‘間’에서 나온 것이며, 일정한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뜻하는 말로, 거센소리로 발음된다는 현실을 중시하여 표준어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방 두 칸’, ‘빈칸’, ‘앞 칸’ 등으로 쓰인다. 다만, ‘초가삼간, 뒷간, 외양간’ 등과 같이 이미 굳어진 말에서는 ‘간’을 쓴다.

- ① 동물원 [살팽이/샬팽이]가 우리를 벗어났다.
- ② “[부엌/부억]에 가서 물 좀 떠 와라.”
- ③ [동넉/동녁]에 해뜰 때 어머니 날 낳으시고
- ④ 요즘은 재산을 [털어먹는/떨어먹는] 일이 흔한 때다.
- ⑤ [나팔꽃/나발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 먼지떨이, 재떨이, 과녁, 나발, 샬 등

2) 애들은 밥에 든 [강남콩/강낭콩]을 다 골라내고 먹었다.

이 콩은 중국 남쪽 지방에서 들어왔다고 하여 강남콩’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이름이 그리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이 ‘강낭콩’으로 발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강낭콩’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쓰이고 있는 ③과 같은 예는 그 반대다.

- ① 그들은 [삭월세/사글세]로 방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
- ② [무녀리/문열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 ③ 그의 말에 나는 [적이/저으기] 당황했다.

3) 이 아이가 [셋째/세째] 손주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쓰이다가, ‘둘째’, ‘셋째’로 통합하였다. 다만, 10단위 이상일 때는 ‘둘째’와 ‘두째’를 구별하여 쓰도록 했다.



- ① 그 분야에서만큼은 [둘째/두째] 가라면 서러워 할 것이다.
- ② 현호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두째/열둘째]다.
- ③ 새치를 벌써 [스물둘째/스물두째] 뽑고 있다.
- ④ 어느새 한글날이 563[똥/돌]을 맞았다.
- ⑤ 옆집에서 연장을 [빌려/빌어] 왔다.
- ⑥ 요즘 양복을 [맞춰/마춰] 입는 사람은 흔치 않다.

4) 우리 집 복슬이는 [수강아지/수강아지]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다. 다만, ‘수-’가 역사적으로 ‘숭-’임을 인정하여 9개 항목만 ‘ㅎ’과 만나 거센소리가 되는 형태를 적기로 하였다. 또한 발음상 사 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한 형태는 ‘숫-’을 쓰기로 했다.

- ① 장끼는 [수꿩/숫꿩]의 다른 이름이다.
- ② 영화 <식객>에 등장한 소가 [수소/숫소]인지는 모르겠다.
- ③ 페르시아 문명전에서 [숫양/수양] 머리 모양의 잔을 보았다.
 - * 수놈, 수사돈, 수거미, 수개미, 수나사, 수벌 등
 - *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 * 숫양, 숫염소, 숫쥐

5) 우리 옆집 아줌마는 [쌍둥이/쌍둥이] 엄마다.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약화되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단어들이 있다. 따라서 음성 모음의 형태가 굳어졌다고 판단되는 것을 표준어로 삼았다. 반면,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④와 ‘삼촌(三寸)’, ‘사돈(查頓)’은 양성 모음 형태의 단어가 표준어다.

- 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 ② 여름철 냇가에서 [발가숭이/발가숭이]로 놀던 때도 있었다.
- ③ [오뎅이/오뎅이]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④ 혼사에 갈 때는 [부조/부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그 사원은 아직도 [신출내기/신출나기]처럼 행동한다.

‘ㅣ’ 모음 역행 동화는 예컨대, ‘애비’, ‘에미’, ‘애기’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나 낱말이 규정하기가 어려워 동화형을 표준어로 삼는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였다.

- ① 라면을 끓일 때는 [냄비/남비]가 적당하다.
 - ② 봄철이 되면 [아지랑이/아지랭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를 거야.
 - ③ 그 여자는 [멋쟁이/멋장이]가 분명해.
 - ④ 그는 평생 [갓장이/갓쟁이]로 살면서 가업을 이었다.
- * ‘匠人’의 뜻이 살아있는 말은 ‘-장이’로, 그 밖은 ‘-쟁이’로 하기로 했다

7) 성질이 [괴팍한/괴팍한]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으레/으레] 그러려니 한다.

이중 모음의 단순화 현상을 겪고, 이제는 애초의 형태를 들어 보기 어려운 단어는 그 변화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① 그런 [케케묵은/케케묵은] 사고 방식으로는 해결 못 해.
- ② [미루나무/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 있네.
- ③ [허위대/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하긴 왜 해.

8) 여름에는 [미숫가루/미숫가루]가 잘 팔린다.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고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기로 한 결과이다.

- ①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지/나무래지]는 마세요.
- ② [지리한/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 ③ 우리의 [바람/바래]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 ④ 인순이와 하인즈 워드는 [트기/튀기]라 불린다.
- ⑤ 고기는 [상추/상치]와 함께 먹어야 맛있다.
- ⑥ 우리 옆집 아가씨는 [깍쟁이/깍정이] 같이 새치름하다.



9) 요즘은 [윗도리/웃도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혼란을 보여 온 ‘윗’과 ‘웃’을 ‘윗’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위, 아래 대립 관계가 있으면 ‘윗’이나 ‘위’를, 없으면 ‘웃’을 쓰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단어가 따르면 ‘윗’,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는 ‘위’를 쓰게 된다.

- ① 다음 도형에서 [윗넓이/웃넓이]를 구하시오.
- ② 이것은 [위쪽/윗쪽]이 더 넓다.
- ③ 김 과장은 [위층/윗층]에 사는 이 선생과는 동문이다.
- ④ [웃어른/윗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10) 그 시의 [시구/식귀/식구]마다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다.

종래 ‘구’와 ‘귀’로 발음됐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하였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이 ‘글귀 구’이므로 ‘글귀’와 ‘귀글’의 경우는 예외이다.

- ① 이 표현은 [대귀법/대구법]을 쓴 것이다.
- ② 책에서 좋은 [귀절/구절]을 뽑아서 인용하는 것도 괜찮다.
- ③ 교과서 [문구/문귀]가 잘못되면 그것을 보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크다.

11) 배가 고픈 나머지 우리는 [무/무우]를 뽑아 먹었다.

이론적으로, 사전에서만 존재하나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혹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딴말을 표준어에서 제외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예 중 하나가 ‘무’다. 이와는 달리, ④의 ‘귀이개’는 본딴말이 표준어인 예다.

- ① 구렁이가 [파리/또아리]를 틀고 있다.
- ② [소리개/술개]가 빙빙 높이 뿔구나, 높이 뿔구나.
- ③ 돈을 좇는 [장사치/장사아치]의 눈치만큼 빠른 것도 없다.
- ④ [귀이개/귀개]로 [귀에지/귀지]를 파면 귀가 간질간질하며 눈이 감긴다.



12)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저녁노을]

‘노을’과 ‘놀’은 본딴말과 준말의 관계이다. 본딴말과 준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고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들처럼 둘 다 표준어가 된다.

- ① 허세와 [거짓불/거짓부리]는 이 사회의 적이다.
- ② 나는 제주도에 사흘 동안 [머무를/머물] 예정이다.
- ③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시누이/시누이]가 더 밍다.
- ④ 내일까지 단어 50개를 [외어/외워] 오기 바랍니다.

13) 아기가 [잠투정/잠투세/잠주정]이 심해 엄마가 고생을 한다.

‘잠투정’, ‘잠투세’, ‘잠주정’과 같이 비슷한 발음의 형태 몇 개가 쓰일 경우,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기로 하여 ‘잠투정’만 표준어이다.

- ① 이 집은 유난히 [천장/천정]이 높다.
- ② 바지 길이가 [어지중간/어중간] 해 키가 더 작아 보인다.
- ③ 이상의 작품에는 [아내/안해]가 자주 등장한다.
- ④ 흙이든 나무든 [꼭두각시/꼭독각시]만 만들 수 있으면 돼.
- ⑤ 점심을 [먹으려고/먹을려고/먹을라고] 식당을 찾았다.
- ⑥ 오늘은 여자 친구를 [만날른지도/만날는지도/만날런지도] 모르겠다.

14) 예술아! - [네/예],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면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와 ‘예’를 모두 인정한 경우이다. 다만 ‘네’가 서울말에서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네’를 원칙으로, ‘예’는 허용하고 있다.

- ① 라면은 [쇠고기/소고기] 라면이 제일 맛있어.
- ② 따뜻한 햇별을 [쪼이고/쪼고] 싶다.
- ③ 이런 날은 바람을 좀 [쏘이면/썩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15) 눈이 [게슴츠레/거슴츠레] 한 것을 보니, 어젯밤에 잠을 못 잤구나.

어감이 다른 단어, 혹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면서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에 의해 ‘게슴츠레’와 ‘거슴츠레’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 ① 아기들은 옷을 [고까/꼬까/때때]라고 부른다.
- ② 웬지 이번 일은 해 놓고도 [계름칙/꺼림칙] 해.
- ③ 올해는 푸른 물이 [출렁대는/출렁거리는] 바다로 휴가를 갈 계획이다.
- ④ 철[덩굴/녕굴]이 온 산을 덮고 있다.
- ⑤ 그 사람은 [보통내기/예사내기/여간내기]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한다.
- ⑥ 어제부터 [여태/입때]까지 뭘 했니?
- ⑦ 올해는 유난히 [가뭄/가물]이 들어 식수난을 겪었다.
- ⑧ 저 모자는 제 것[이에요/이어요].
- ⑨ 야구공이 날아가 남의 집 창문을 [깨뜨렸다/깨트렸다].

2.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6) 이산 가족의 [애닦은/애달픈]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古語)로 처리하여 표준어에서 제외하게 되어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17) 오늘은 [잔돈/잔전]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알타리무/알무/총각무] 값이 싸다.

우리말에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와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공존하는 단어가 있다. 이 두 형태 중 널리 쓰이는 정도에 따라 한자어 계열의 단어와 고유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총각무’와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잔돈’이 표준어이다.

- ① 제일 앞에서 달리는 [흰말/백말]이 일등이다.
- ② 우리 집 아이는 [말약/가루약]만 먹을 수 있다.



- ③ 아버지와 [점상/맞상]을 하고 앉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 ④ 자장면 집에서는 [양파/둥근파]가 요리 재료로 많이 쓰인다.
- ⑤ [칫솔/잇솔]을 잘못 고르면 이가 잘 안 닦인다.

18) “자기는 [멍게/우렁챙이], 해삼, 말미잘. 아이, 몰라몰라 잉!”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것은 원래의 표준어와 함께 표준어로 삼았다. 따라서 방언이던 ‘멍게’는 ‘우렁챙이’와 더불어 표준어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단어들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여 표준어가 된 예들이다.

- ① [귀밑머리/귓머리]가 희끗희끗한 누이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 ②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빈자떡]이나 부쳐 먹지.
- ③ [생인손/생안손]을 앓아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
- ④ 우리 동네 [코주부/코보] 영감님은 동네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귀여워하신다.

19) 메아리가 [살게시리/살게끔] 나무를 심자.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으므로, ‘-게끔’만이 표준어이다.

- ① 아주머니는 떡을 [광주리/광우리]에 이고 장으로 팔러 갔다.
- ② 배가 고팠는지 대접째 들어 [멀국/국물]을 들이켰다.
- ③ 그는 씨름계의 [셋별/새벽별]로 떠올랐다.
- ④ [쌍동밥/쪽밥/쌍밤]을 혼자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 ⑤ 그 친구는 나와 [영판/아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 ⑥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영이는 [안절부절못했다/안절부절했다].
- ⑦ 졸업 선물로 [손목시계/팔목시계]를 받았다.



3. 구별해야 하는 말

1) 노느다/나누다

- ① 빵 하나를 세 조각으로 노나 () / 나눠 () 먹었다.
- ② 생일잔치에 온 아이들에게 지우개를 한 개씩 나눠 () / 노나 () 주었다.
 - 노느다: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다.
 - 나누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2) 개발(開發)/계발(啓發)

- ① 신제품 개발 () / 계발 ()은 기업의 첫째 과업이다.
- ② 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을 개발 () / 계발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개발: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등
 - 계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3) 경우(境遇)/경위(涇渭)

- ① 그는 경위 () / 경우 ()가 바른 사람이다.
- ② 그 선생은 경우 () / 경위 ()없이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
- ③ 비가 올 경우 () / 경위 ()에는 강당에서 식을 합니다.
 - 경우: 사리나 도리, 놓여 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
 - 경위: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4) 관여(關與)/간여(干與)

-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 () / 간여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 () / 간여 ()할 바가 아니다.
 - 관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 간여: 관계하여 참견함.



5) 맞히다/맞추다

- ① 정답을 맞히는 () / 맞추는 ()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② 과녁을 많이 맞추는 () / 맞히는 ()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 ③ 내 답안지를 정답과 맞춰 () / 맞춰 () 보았다.
 - 맞히다: 적중하다.
 - 맞추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6) -(으)므로/-(으)므로(써)

- ① 그가 나를 믿음으로 () / 믿으므로 () 나도 그를 믿게 되었다.
- ② 믿음으로 () / 믿으므로 ()(써)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 -(으)므로: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으)므로(써): 명사형 어미 ‘-(으)ㄴ’에 어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가 붙은 형태

7) -데/-대

- ① 철수가 그러는데 신부가 손은 예쁘대. () / 예쁘데. ()
- ② 가수 비, 그 사람 정말 멋지대. () / 멋지데. ()
 - -데: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대: ‘다고 해’라는 뜻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게 된 사실을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8) -노라고/-느라고

- ① 기껏 하노라고 () / 하느라고 () 한 게 이 모양이다.
- ② 시험 공부를 하노라고 () / 하느라고 () 밤을 새웠다.
 - -노라고: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거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9) 썩이다/썩히다

- ① 어미 속 좀 작작 썩여라. () / 썩혀라. ()
- ② 재능을 썩이기에는 () / 썩히기에는 () 아까운 사람이다.
- ③ 음식을 썩이는 () / 썩히는 () 일은 하지 마라.
 - ‘썩이다’나 ‘썩히다’ 모두 ‘썩다’의 사동사이지만, ‘썩이다’는 ‘속’과 관련해서 쓰인다.

10) 같음하다/가늠하다

- ① 기말 시험을 리포트로 같음 () / 가늠 ()했더니 모두 비슷비슷해서
- ② 학생들의 실력을 같음 () / 가늠 ()할 수가 없었다.
 - 같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 가늠하다: 어림잡아 헤아림.

11) 곤욕(困辱)/곤혹(困惑)

- ① 아침에 길거리에서 그와 같은 곤욕 () / 곤혹 ()을 당하고 나니 온종일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 ②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간 곤욕 () / 곤혹 ()스러운 게 아니다.
 - 곤욕: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곤혹: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12) 깃들다/깃들이다

- ① 영혼이 깃들여 () / 깃들여 () 있다.
- ② 새가 둥지에 깃들었다. () / 깃들었다. ()
 - 깃들다: 아늑하게 서려 들다.
 - 깃들이다: 짐승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13) 껍질/껍데기

- ① 소라 껍질을 () / 껍데기를 ()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② 그는 포도 껍질을 () / 껍데기를 () 벗기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

- 껍질: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
- 껍데기: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14) 놀라다/놀래다

① 거기 그렇게 서 있어서 놀랐잖아요. () / 놀랬잖아요. ()

②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놀라 () / 놀래 () 주자.

- 놀라다: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다.
- 놀래다: 어떤 이를 놀라게 하다.

15) 알은체하다/알은척/아는 체 · 척하다

① 사람을 봤으면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알은체 () / 알은척 () / 아는 체 () 좀 해라.

② 모르면서 알은체 () / 알은척 () / 아는 체 () 좀 하지 마라.

- 알은척/알은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
- 체: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16) 체/채/째

① 그는 잘난 체 () / 잘난 채 () 한다.

② 신발을 신은 체 () / 신은 채 () 방으로 뛰어들었다.

③ 이 과일은 껍질채 () / 껍질째 () 먹어도 된다.

- 체: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 채: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째: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7) 옷걸이/옷거리

① 옷걸이 () / 옷거리 ()가 좋은 사람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려요.



② 옷걸이 () / 옷거리 ()에 옷을 걸어 두어라.

- 옷걸이: 옷을 걸어 두도록 만든 물건
- 옷거리: 옷을 입은 모양새

18) 햇빛/햇볕

① 햇빛 () / 햇볕 ()이 너무 강하게 얼굴을 비추니 눈을 뜰 수가 없네요.

② 한여름 낮에는 햇빛 () / 햇볕 ()이 따가워 밖에 나가 오래 있을 수 없다.

- 햇빛: 해의 빛
- 햇볕: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

19) 홀몸/홀몸

① 홀몸도 () / 홀몸도 () 아닌데 부산까지 가는 기차여행은 무리다.

② 그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몸 () / 홀몸 ()이다.

- 홀몸: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
- 홀몸: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20) 들르다/들리다

① 제 집에 한번 들러 () / 들리 () 주세요.

② 무거운 짐을 들러 () / 들리 () 보내게 되어 미안했다.

-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 들리다: ‘들다’의 사동사

21) 매무시/매무새

① 영이는 늘 매무시 () / 매무새 ()가 깔끔하고 단정하다.

② 손을 씻고 나서 잠시 매무시 () / 매무새 ()를 다시 하였다.

- 매무새: 옷, 머리 따위를 수습하여 입거나 손질한 모양새
- 매무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



22) 임대하다/임차하다

- ①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 / 임차해서 () 가게를 열었다.
- ② 이 건물 주인은 상가를 임대해서 () / 임차해서 () 돈을 많이 벌었다.
 - 임대하다: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 임차하다: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씬. ‘세남’으로 순화

23) 홀리다/호리다

- ① 그 사람은 여자에게 홀려 () / 호려 () 가진 돈을 홀딱 털렸다.
- ② 그의 멋진 윙크는 여자를 호릴 () / 홀릴 ()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 홀리다: 무엇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 호리다: 매력으로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다.

24) 푼푼이/푼푼히

- ① 쓸 것 안 쓰고 푼푼이 () / 푼푼히 () 모은 돈으로 차을 장만하였다.
- ② 여웃돈이 없어서 외식도 푼푼이 () / 푼푼히 () 못 하고 산다.
 - 푼푼이: 한 푼씩 한 푼씩
 - 푼푼히: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25) 막연하다/막역하다

- ① 우리는 사귀 지 십 년이 넘었으니 아주 막연한 () / 막역한 () 친구 사이죠.
- ②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막연한 () / 막역한 () 기대까지 꺾을 수가 없다.
 - 막연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 막역하다: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

26) 안값음/양값음

- ①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안값음 () / 양값음 ()을 할 줄 알거늘 사람에게 있어 서랴.



- ② 범죄자들에게 안값음 () / 양값음 ()을 당할까 증언하기도 겁난다.
- 양값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 안값음: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27) 값/샀

- ① 비행기 값 () / 샀 ()이 얼마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 ② 파리까지 비행기 샀 () / 값 ()은 얼마예요?
- 값: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 샀: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

28) 돌구다/돌우다

- ① 시력이 나빠졌는지 도수를 돌구려 () / 돌우려 () 안경점에 가야겠다.
- ② 축 처진 분위기를 돌우려 () / 돌구려 () 김 과장은 너스레를 떨었다.
- 돌구다: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
 - 돌우다: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29) 두껍다/두텁다

- ① 날이 추운데 나가려면 두터운 () / 두꺼운 () 옷을 입어라.
- ② 김 선생과 박 선생의 우정이 지금처럼 두텁기 () / 두껍기 ()를 소망한다.
- 두껍다: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 두텁다: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30) 자처(自處)/자청(自請)

- ① 김 과장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청 () / 자처 ()하고 나섰다.
- ② 그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청 () / 자처 ()하고 다녔다.
- 자처: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함.
 - 자청: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4. 자주 틀리는 말

- 1) 그때는 목이 타서 냉수를 한 바가지나 들이키고 말았다.
- 2)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거지를 쓰는 아이를 달레느라 애를 먹었다.
- 3) 우리 애인은 하여튼 빠지기도 잘해요.
- 4) 옛날 방영됐던 외화 ‘나르는 원더우먼’은 재미있었다.
- 5) 그녀는 가스밸브를 잠궜야 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 6) 발목을 접질러서 침을 맞으러 다닌다.
- 7) 영이야, 재털이를 좀 가져 오너라.
- 8) 담벼락에는 개발새발 아무렇게나 글씨가 씌어 있었다.
- 9) ‘설레임’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다.
- 10) 밥 먹을려고 식당에 가는데, 친구가 불렀다.
- 11) 오페라 나비 부인에는 ‘어떤 개인 날’이라는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다.
- 12) 빨강색 티코가 앞질러 가면 열받는다.
- 13) 우산이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거치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 14) 질문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5) 어떤 사람이든 팔세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 16) 저기 영이 옆에 서 있는 이쁜 여자는 누구야?
- 17) 이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김치찌개와 육계장은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다.
- 19) 내 생각과 김 선생 생각은 틀리다.
- 20)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기록을 오늘 갱신했다.
- 21) 과장님께 결제를 얻어야 하는데 외출 중이시라 못 하고 말았다.
- 22) 그들은 서로 판지를 걸어 일이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 23) 전화가 왔다는 것은 오해가 풀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24) 유리창에 서리가 끼어서 밖이 보이지가 않는다.
- 25) 간호사는 궁둥이에다 힘껏 바늘을 꽂았다.
- 26) 친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
- 27)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28)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하다.
- 29) 그 사람이 이번 신약 성공의 장본인이다.
- 30) 내일 선친의 고회를 맞아 조출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31) 갓길 없슴
- 32) 산수갑산을 가서 산전을 일궈 먹더라도
- 33)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정신을 놓치 않았다.
- 34) 그는 이제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홀홀단신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 35)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이들이 모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 36) 그의 말은 두리뭉실하여 뜻을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다.
- 37) 이삿짐을 싸고 나니 허접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 38) 전철 안에서 애기가 울어 그 엄마가 대단히 당황했다.
- 39) 시험이 내일모레로 다가 왔는데 맨날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 40) 사랑이 뭐길래.
- 41) 그 두 사람은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 42) 오늘은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 43) 대낮부터 술을 연거퍼 마시는 품이 심상치 않았다.
- 44) 가위질은 옛장사 마음대로
- 45) 그녀는 야멸차게 쏘아붙이고는 횡! 하니 가 버렸다.
- 46) 사람들은 고통과 상처를 안은 채 아등바등 살아간다.
- 47) 하늘을 보니 오늘 비가 올른지도 모르겠다.
- 48)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
- 49) 자다가 나왔는지 눈에는 눈꼽이 잔뜩 끼어 있었다.
- 50) 동생이 수능 시험을 치루고 나서는 며칠 동안 잠만 잤다.



- | | | |
|---------------|----------|-------|
| 3) ① 경위 | ② 경우 | ③ 경우 |
| 4) ① 관여 | ② 간여 | |
| 5) ① 맞히는 | ② 맞히는 | ③ 맞춰 |
| 6) ① 믿으므로 | ② 믿음으로 | |
| 7) ① 예쁘대 | ② 멋지데 | |
| 8) ① 하노라고 | ② 하느라고 | |
| 9) ① 썩여라 | ② 썩히기에는 | ③ 썩히는 |
| 10) ① 갈음 | ② 기נם | |
| 11) ① 곤욕 | ② 곤혹 | |
| 12) ① 깃들어 | ② 깃들였다 | |
| 13) ① 껌데기 | ② 껌질 | |
| 14) ① 놀랐잖아요 | ② 놀래 | |
| 15) ① 알은체/알은척 | ② 아는 체·척 | |
| 16) ① 잘난 체 | ② 신은 채 | ③ 껌질째 |
| 17) ① 옷거리 | ② 옷걸이 | |
| 18) ① 햇빛 | ② 햇벌 | |
| 19) ① 흘뭇 | ② 흘뭇 | |
| 20) ① 들러 | ② 들려 | |
| 21) ① 매무새 | ② 매무시 | |
| 22) ① 임차해서 | ② 임대해서 | |
| 23) ① 흘려 | ② 호릴 | |
| 24) ① 푼푼이 | ② 푼푼히 | |
| 25) ① 막역한 | ② 막연한 | |
| 26) ① 안값음 | ② 양값음 | |
| 27) ① 값 | ② 샅 | |
| 28) ① 돌구러 | ② 돌우려 | |
| 29) ① 두꺼운 | ② 두터운 | |
| 30) ① 자청 | ② 자처 | |



4. 자주 틀리는 말

- | | | |
|------------|---------------|-----------------|
| 1) 들이켜고 | 2) 떼거리를 | 3) 빠치기도 |
| 4) 나는 | 5) 잠가야 | 6) 접질려서/겹질려서 |
| 7) 재떨이 | 8) 괴발개발 | 9) 설렘 |
| 10) 먹으려고 | 11) 갠 | 12) 빨간색/빨강 |
| 13) 거추장스럽기 | 14) 서슴지 | 15) 팔시하지 |
| 16) 예쁜 | 17) 삼가 | 18) 김치찌개/육개장 |
| 19) 다르다 | 20) 경신했다 | 21) 결재 |
| 22) 탄죽을 | 23) 방증하는 | 24) 성에 |
| 25) 엉덩이에다 | 26) 재현하다가 | 27) 추후에 |
| 28) 폐해가 | 29) 주역, 주인공이다 | 30) 제 아버지 |
| 31) 없음 | 32) 삼수갑산 | 33) 절체절명의 |
| 34) 혈혈단신 | 35) 내로라 | 36) 두루뭉술, 두루뭉수리 |
| 37) 허섭스레기가 | 38) 아기 | 39) 만날 |
| 40) 뭉기에 | 41) 떼려야 | 42) 며칠입니까? |
| 43) 연거푸 | 44) 옛장수 | 45) 야멸치게 |
| 46) 아등바등 | 47) 올는지도, 올지도 | 48) 뇌졸중 |
| 49) 눈곱 | 50) 치르고 | |

참고문헌

- 대한교과서(2008), 국어 어문 규정집 28판.
- 김주미(2005), 현대인의 바른 국어 생활, 경진문화사.
- 김형배(2009), 한국어 능력 시험, 신지원.

✻ 황 연 신(영동세브란스병원 음성의학연구소/박사 수료)

1. 바른 발음과 발성

사람의 성도(Vocal tract)는 ‘ㄱ’자 모양의 올림통이다. 성대(Vocal folds)가 진동하면 성도가 울려 발성이 가능해지고, 성도 모양을 변화함으로써 특정 말소리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을 구부린다거나 하여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하면, 통이 왜곡되어 제대로 된 발성이 나오기 힘들뿐더러 점막으로 이루어진 사람 몸이 소리를 다 흡수하여 발음도 부정확하게 된다.

성대 결절(Vocal nodules)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음성 장애로써 성대 가운데 부분에 굳은살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는 음성을 많이 쓰는 가수, 교사, 성직자, 소리를 많이 지르는 어린이 등에 흔하게 생긴다. 성대 결절이 생기면 굳은살로 인해 성대 양쪽이 제대로 붙지 않아 바람이 새게 되고 쉬고 거친 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결절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재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발성 방법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강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를 지닌 경우 목소리 관리는 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성이나 발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금세 목소리가 쉬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올바른 발성과 발음에 대해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

좋은 발성이란 성도 내부 에너지 흡수는 적고 출력 에너지를 최대화함으로써 성대의 부담을 줄이고 공명을 최대화하는 발성을 말한다. 바른 발음이란 성대 주변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정확한 음가를 전달할 수 있는 발음 동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음성 위생법(Vocal hygiene)이 있다.

■ 음성 위생법

- 시끄럽고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 자신에게 편안한 목소리로 말하기(낮거나 높은 음도,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기).
-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거나 목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된 사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하거나(특히 전화 통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너무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음성 사용법이다. 사람의 성대는 1초에 남자의 경우 약 150회, 여자의 경우 약 230회가 움직이는 점막으로 이루어진 약한 조직이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습관적으로 헛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헛기침을 할 때마다 성대는 강하게 한 번 부딪치는 꼴이 되므로 성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어느 정도 헛기침을 줄일 수 있다. 허밍이나 속삭이는 소리도 성대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른 발성과 발음을 위한 몇 가지 금지 사항과 권장 사항이 있다.

■ 금지 사항

- 잠자기 전 음식 섭취 자제하기.
- 유제품을 자주 먹지 않기.
- 흡연 및 음주 자제하기.
- 너무 맵거나 짠 음식 자제하기.
-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자제하기.

■ 권장 사항

-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 활동 공간의 습도 조절하고 청결한 공간 만들기.
- 습포하기.



결론적으로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한다.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목소리부터 변화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것이다. 특히 목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코와 목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비염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므로 이때는 문제의 원인은 코부터 치료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둘째, 바른 자세로 발성해야 한다. 기타의 줄이 제대로 조율된 경우라도 울림통이 작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소리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 사람 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등과 어깨를 곧게 펴고 턱을 조금 내린 자세로 발성해야 적은 에너지로 효과적인 발성을 할 수 있다.

셋째, 복식 호흡이 권장된다. 호흡에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는데, 복식 호흡을 하면 성대에 무리를 덜 주고 공명(Resonance)이 잘 되는 발성이 가능해지므로 복식 호흡을 평소 생활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넷째,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게 되면 입을 많이 벌리고 말을 하게 되고 정확한 조음 동작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된다.

2.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은 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② 전통성과 ③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준 발음법 제1항)

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늪으니[늘그니], 늪고[늘꼬], 늪소[늑쏘]

② 소리의 길이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현재 구별하여 쓰고 있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표준 발음법에 포함하였다.

③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신타]가 자주 쓰이나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딘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딘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신타]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	ㅘ	ㅙ		

3.2.2. ㅓ의 발음

표준 발음에서 /ㅓ/는 길게 날 때와 짧게 날 때 소리 값에 차이가 있다. /ㅓ:/는 중설 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이다. 즉, /ㅓ:/는 /ㅡ/와 /ㅓ/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ㅓ/로 발음한다.

/ㅓ:/	/ㅓ/
별:(-이 쏘다)	별(-만다)
병:(원)	병(-마개)
없:다	업다(아이를)
적:다(조금)	적다(쓰다)
석:자(세 글자)	섞자(혼합)
선:수(-단)	선수(-치다)



1.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어른, 건강, 선수(-단), 어깨, 서리, 버릇

3.2.3. 이중 모음

‘ㅑ,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들 이중 모음 중 /ㅓ/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ㅓ:/에 준해서 발음해야 한다. ‘견본, 견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ㅓ’가 그 예이다.



3.2.4. /ㄱ/와 /ㄴ/의 구분



2.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 게, 개, 예, 애
- ‘베개를 베다’
-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ㄱ/와 /ㄴ/가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열린 모음 /ㅏ/를 닫힌 모음 /ㅓ/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ㄱ/를 발음할 때보다 아래턱을 더 내리고 혀의 앞부분도 낮은 위치로 내린 다음 입술을 편 상태로 발음해야 한다.

/ㄱ/

게

네게

베다

네 것

/ㄴ/

개

내게

배다

내 것

3.2.5. /ㄷ/와 /ㄴ/와 /ㄹ/의 발음

/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ㄷ/와 발음이 비슷하게 된다. ‘금괴(金塊)’가 ‘금궤(金櫃)’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현재 /ㄷ/와 /ㄹ/가 구분이 되지 않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열린 이중 모음 /ㅏ/를 닫힌 이중 모음 /ㅓ/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ㄷ/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ㄹ/를 발음하는 경우보다 입술을 좀 더 편 상태로 아래턱을 좀 더 내리고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3.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웬, 웬지, 외나무, 되다, 뒀다



3.2.6. /ㄴ/의 발음

희망: [*희망/히망/*호망]

주희: [*주희/주히/*주흐]

→ 자음이 초성에 올 때 ‘ㄴ’은 [ㄴ]로 발음한다.

의논: [의논/*이논/*으논]

주의: [주의/주이/*주으]

→ 자음이 초성에 오지 않을 때, 첫 음절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한다.

→ 첫 음절 이외에선 [ㄴ]로도 발음할 수 있다.

나의(고향): [나의/*나이/*나으/나에]

→ 조사 ‘ㄴ’은 [ㄴ]로도 발음할 수 있다.

3.2.7.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의 발음

가지어 → 가져, 찌어 → 찌, 다치어 → 다쳐

[저, 찌, 처]와 같이 경구개음 ‘ㄷ, ㅈ, ㅊ’ 다음에서 ‘ㄴ’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

3.2.8. ‘ㄴ’의 발음

예절[예절/*예절]

옛날[엔:날/*엔:날]

차레[차레/*차레]

의례[의례/*의례]

계시다[계:시다/계:시다]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택/혜:택]

‘예, 레’ 이외의 ‘ㄴ’은 [ㄴ]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레’는 둘째 음절에 위치한 경우라도 꼭 그 음가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



4.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 (1) 놀리리[놀리리/닐리리/늘리리]
- (2) 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의/
민주주의에의이/민주주의에이이/민주주의에으]
- (3) 결레[결레/결레]
- (4) 예쁘다[예쁘다/예쁘다]
- (5) 통계[통:계/통:계]
- (6) 은혜[은혜/은혜]
- (7) 돈치+어 → 돈쳐[돈쳐/돈쳐]
- (8) 굳히+어 → 굳쳐[굳쳐/굳쳐]

4. 소리의 길이

4.1. 긴소리와 짧은소리

발음의 혼란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긴 소리를 짧은 소리로 혼동하여 잘못 내는 경우이다. 짧은 세대로 갈수록 긴소리와 짧은소리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소리	짧은소리
말:(언어)	말(동물)
밭:(-을 치다)	밭(-바닥)
살:(-다)	살(-결)
밤:(-송이)	밤(-낮)
벌:(집)	벌(-받다)
병:(-원)	병(-마개)
시:장(-님)	시장(-하다)
모:자(-관계)	모자(쓰다)
과:장(-하다)	과장(-님)



4.2. 첫음절 이외에서 긴소리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눈보라[눈:보라]	첫눈[천눈]
말씨[말:씨]	참말[참말]
밤나무[밤:나무]	쌍동밤[쌍동밤]
많다[만:타]	수많이[수:마니]
멀리[멀:리]	눈멀다[눈멀다]
벌리다[벌:리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바:닉/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

4.3. ‘봤다’의 발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기어 → 겨[겨:]
되어 → 돼[돼:]	두어 → 뉘[뉘:]
하여 → 해[해:]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4.4. 긴 소리를 가진 첫 음절에서 짧게 발음되는 경우

4.4.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밟: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알다[알: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다] — 끌어[끄:러]

뺨다[뺨:따] — 뺨은[뺨: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썰다[썰:다] — 썰어[써:러]

없다[엮:따] — 없으니[엮:쓰니]

4.4.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엮:썰다]

4.4.3. 복합어에서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하는 경우

밀-물, 썰-물, 쏘-살-같이, 작은-아버지



5.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 (1) 검찰청(檢察廳)[검:찰청/검찰청]
- (2) 전화(電話)[전:화/전화]
- (3) 없다[업:따/업따]
- (4) 없애다[업:썰다/업썰다]
- (5) 많다[만:타/만타]
- (6) 수많이[수:마:니/수:마니/수마:니]
- (7) (꿈을)꿔다[펼:따/펼따]
- (8) 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

5. 받침의 발음

5.1. 홀받침의 발음



6.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낫, 낫, 낫, 낫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ㄱ, ㄲ, ㅋ → [ㄱ]
국[국], 부엌[부억], 낚시[낙씨]
- ㄷ, ㅌ, ㅊ, ㅍ, ㅈ, ㅊ → [ㄷ]
받고[받꼬], 밭[반], 낳고[낙꼬], 낫[낙], 낫[낙], 낫[낙]
- ㅂ, ㅍ → [ㅂ]
밥통[밥통], 앞[압]

5.2. 겹받침의 발음

5.2.1. 겹받침의 단순화

국어에서 겹받침은 11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ㅍ, ㅌ)가 있다. 이들



겹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자음 중에서 하나만 발음된다.

5.2.2.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ㄱ, ㄴ, ㄹ, ㄷ, ㅌ, ㅂ’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넋[넉], 앓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골], 핥다[할따], 값[갑]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발음에 혼동을 보이는 단어로 ‘짧다’, ‘넓다’가 있다. 이 경우 ‘짧다’는 [짹따]가 아닌 [짹따]라고 발음해야 하며 ‘넓다’ 역시 [넙따]가 아닌 [넙따]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뵈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어 [뵈:따], [넙찌카다], [넙쭈카다],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한다.

5.2.3.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ㄹ, ㄷ, ㅌ’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닭[닥], 젊다[점따], 읊다[읍따]

다만, ‘ㄹ’ 뒤에 ‘ㄱ’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된다.

굶다[국따], 굶고[굴꼬], 굶게[굴께]
 맑다[막따], 맑고[말꼬], 맑게[말께]
 읽다[익따], 읽고[일꼬], 읽게[일께]

주의해야 할 것은 파생어들인 ‘갑작갑작하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늪정이’ 등의 경우에 ‘ㄹ’뒤에 ‘ㄱ’이 연이어 나온 경우가 아니므로 역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5.2.4. ‘ㄴㅎ’, ‘ㄹㅎ’의 발음

‘ㄴㅎ’, ‘ㄹㅎ’의 경우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인 ‘ㄴ’과 ‘ㄹ’이 발음된다. 다만 두 번째 자음 ‘ㅎ’의 영향으로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읽다[일타/*일따]	읽고[일코/*일꼬]
많다[만타/*만따]	많고[만코/*만꼬]



7.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발음해 보세요.

묻까지, 엇고, 얇다, 훑다, 넓고, 넓죽하고, 밟고, 읽다, 읽더라, 읽고,
묻더라, 묻고, 갑작거리다, 늑수그레하다, 굼직하다, 읽다, 많고

5.3. 받침 ㅎ의 발음



8.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놓고, 좋다, 닳지, 웁소
놓아, 좋아, 닳아, 웁아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 ㅅ’이 결합되는 경우 [ㄱ, ㄷ, ㅈ, ㅅ]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받침 ‘ㅎ’ 앞에 ‘ㄱ, ㄷ, ㅂ,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ㄱ, ㄷ, ㅂ, ㅈ]으로 발음된다.

- ㅎ + ㄱ, ㄷ, ㅈ = ㄱ, ㄷ, ㅈ
 - 놓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 많고[만코], 얹던[안턴], 닳지[달치]
 - ※ 놓고: *[논코]/*[노꼬]
- ㄱ, ㄷ, ㅂ, ㅈ + ㅎ = ㄱ, ㄷ, ㅂ, ㅈ
 - 각하[가카], 만형[마텃], 좁히다[조피다], 꽃히다[꼬치다]
 - 읽히다[일키다], 넓히다[넌피다]
 - ※ 각하: *[각카]



■ ㅎ + ㅅ = ㅆ

닿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나아가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경우들도 그 예들이 된다.

온갖 힘[온:가팀]

못 형벌[무텅벌]

몇 할[며탈]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옷 한 벌[온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즉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5.4. 연음과 절음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연음이라 하고,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절음이라 한다. 연음은 어미, 조사, 접미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에 연결되는 경우에, 절음은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절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마딤따, 머딤따]의 발음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싣따, 머싣따]도 허용한다.

빛이[비치] / 빛 아래[비다래]

꽃을[꼬출] / 꽃 아래[꼬다래]

밭을[바틀] / 밭 아래[바다래]

높이[느피] / 늪 앞[느밥]

젓이[저지] / 젓 어미[저더미]

옷이[오시] / 헛웃음[허두슴]



9.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쓰인 항목을 고르세요.

- (1) 부엌에서[부어케서/부어게서]
- (2) 밭을[바슬/바출/바틀/바들]
- (3) 무릎이[무르비/무르피]



- (4) 꽃을[꼬츨/꼬즐/꼬틀/꼬슬/꼬들]
- (5) 흙 위(-에 장난감을 쌓자)[흐귀/흘귀]
- (6) 흙이(-있다)[흘기/흐기]

6. 소리의 변화

6.1. 구개음화

10.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곧이든다, 곧이, 미단이, 땀받이, 발이(-있다), 벼훅이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이외에 ‘히’가 결합될 때에도 받침 ‘ㄷ’과 합하여 [ㅊ]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즉 ‘겉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그 예다.

6.2. 자음동화

6.2.1. 장애음의 비음화

11.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먹는, 단는, 젓명을, 있는, 밥물, 앞마당

장애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뀐다. 즉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ㅊ, ㅌ, ㅊ), ㅌ(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은 ‘ㅇ,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장애음의 비음화’라 한다.

-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웁만[키웁만], 뭇뭇이[뭇뭇씨], 훅만[훙만]
- 단는[단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쫓는[쫘는], 붙는[분는], 놓는[논는]
-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값만[감만]



6.2.2. ㄹ의 비음화



12.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담력, 정리

‘ㄹ’은 ‘ㄱ’과 ‘ㅇ’ 뒤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음료[음노], 종로[종노]

* 십리: [십니] → [심니], 막론: [막논] → [망논]

‘ㄴ, ㄹ’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6.2.3. 유음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첫소리 ‘ㄴ’이 ‘ㄹㅎ’, ‘ㄹ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난로, 신라, 천리
- 찰나, 칼날, 물난리, 할는지
- 닳는, 뚫는, 핏네

다만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일음절 접미사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예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뽀노], 구근류[구근뉴]



13.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음운론[음운논/음울론]
- (2) 신문로[신문노/신문로]
- (3) 선릉[선능/설릉]
- (4) 춘란[춘난/출란]



6.3. 경음화

6.3.1.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ㄴ, ㄷ, ㅌ, ㅍ, ㅌ), ㅂ(ㅍ, ㅂ, ㅂ,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ㄴ, ㅌ’

국밥[국꺼], 녀받이[녀빠지], 닭장[닥짱], 뺨대다[뺨때다], 웃고름[온꼬름]
 있던[인뎌], 꽃고[꼴꼬], 꽃다발[꼴따발], 밭갈이[밭까리], 솔전[솔쩐]
 곱돌[곱똥], 넓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조리다], 값지다[갑찌다]

6.3.2.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ㅌ’

신고[신: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닭고[담:꼬]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었다[언따], 젊지[점:찌]
 안기다[안기다]/*[안끼다], 감기다[감기다]/*[감끼다]

6.3.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ㄴ, ㅌ’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쌈]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쥬], 물질[물짚]
 발전[발쩐],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췌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결결[결결](缺缺)	별별[별별](別別)

6.3.4.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ㄴ, ㅌ’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6.3.5.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

문-고리[문꼬리], 손-재주[손째주], 굴-속[굴:속], 술-잔[술잔]
아침-밥[아침밥], 잠-자리[잠자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달]



14.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신발 신고[신:고/신:꼬] 어디 가니?
- (2) 아이를 굶기다[굶기다/굶끼다].
- (3) 살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끼 굶기[굶기/굶끼]!
- (4) 김밥[김밥/김뺨]
- (5) 불법[불법/불뺨]
- (6) (날아다니는)잠자리[잠자리/잠짜리]
- (7) 잠자리(잠자는 자리)[잠자리/잠짜리]
- (8) 작다[작따/작따]
- (9) 게임[게임/께임]
- (10) 효과[효:과/효:파]
- (11) 체증[체증/체쥬]
- (12) 일방적[일방적/일방쩍]

6.4. 음의 첨가



15.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숨이불, 색연필, 논일, 한여름, 앞이마, 막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숨-이불[숨:니불], 흘-이불[흔니불], 막-일[망닐]
- 내복-약[내:봉낙], 한-여름[한녀름]
-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녹막-염[능망념]
-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 영업-용[영업룡],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놀리]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넬/거:먀],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녕/그몹]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리]로 발음한다.

- 들-일[들:릴], 술-있[술립], 설-익다[설릭따]
- 물-약[물략]
-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릭], 물-엿[물련]
-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절약[저략], 월요일[위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16.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월요일[위료일/월료일]
- (2) 목요일[모교일/몽뇨일]
- (3) 촬영[좌령/촬령]
- (4) 금융[그몹/금녕]
- (5) 검열[거:먀/검:넬]
- (6) 문-요?[무뇨/문뇨]



6.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내:까/넋:까], 셋길[새:길/셋:길], 빨랫돌[빨래돌/빨랫돌]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괘뽕/대:괘뽕]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 → 콘날], 아랫니[아랫니 → 아랜니], 툇마루[툇:마루 → 툇:마루]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뒷일[뒸:닐], 깃잎[깃닙], 도리깃열[도리깃닐], 뒸웃[뒸:눈]



17.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머리말[머리말/머린말]
- (2) 인사말[인사말/인산말]
- (3) 사이시옷[사이시온/사이씨온/사인씨온]
- (4) 사잇소리[사이소리/사이쏘리/사인쏘리]
- (5) 피자 집[피자집/피자쩍/피짜쩍/피짤쩍]



1. [어:른], [간:강], [산:수], [어깨], [서리], [버름]
2.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3.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4. (1) [닐리리]
(2) [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의]/[민주주의에의이]
(3) [결레] (4) [예쁘다] (5) [통:게]/[통:게] (6) [은혜]/[은혜] (7) [돋쳐] (8) [구쳐]
5. (1) [감:찰청] (2) [전:화] (3) [업:따] (4) [업:쌔다] (5) [만:타] (6) [수:마니]
(7) [꼰따] (8) [발:똥별]
6. [남], [남], [남], [남]
7. [목까지], [언꼬], [알따], [홀따], [널꼬], [넙쭈카고], [밥꼬], [익따], [익떠라],
[일꼬], [목떠라], [물꼬], [각짜꺼리다], [늑쑤그레하다], [국찌카다], [일타], [만코]
8. [노코], [조:타], [달치], [올쏘],
[노아], [조아], [다라], [오라]
9. (1) [부어게서] (2) [바틀] (3) [무르피] (4) [꼬출] (5) [흐귀] (6) [흘기]
10. [고지들따], [구지], [미다지], [땀바지], [바치], [벼출치]
11. [멍느], [단느], [전명울], [인느], [밤물], [암마당]
12. [담넥], [정니]
13. (1) [음운논] (2) [신문노] (3) [설릉] (4) [출란]
14. (1) [산:꼬] (2) [굵기다] (3) [굵끼] (4) [김밥] (5) [불법] (6) [잠자리] (7) [잠짜리]
(8) [작따] (9) [게임] (10) [효:과] (11) [체증] (12) [일방적]
15. [숨니불], [생년필], [논닐], [한녀름], [암니마], [망닐]
16. (1) [워료일] (2) [모교일] (3) [좌령] (4) [그똥]/[금똥] (5) [가:멸]/[감:넬] (6) [무노]
17. (1) [머리말] (2) [인사말] (3) [사이시울] (4) [사이쏘리]/[사인쏘리] (5) [피자집]

참고문헌

이성은(2004), 강의를 위한 발성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이현복(1992),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국어문화학교

✽ 봉 미 경(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문학박사)

1. 들어가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등에서 많은 어휘를 받아들였고, 19세기 말부터는 서양 문물의 도입과 일본의 영향으로 영어, 일본어 등의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20세기부터는 서양 문물 및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표제어 구성을 살펴보면, 순수 외래어 표제어가 전체 표제어의 5.26%, 외래어가 한 자라도 포함된 표제어가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다. 외래어의 수는 현재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외래어 사용 빈도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의 표기법을 이해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2.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2.1.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타 문화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련된 어휘 요소를 국어에 받아들인 결과이다. 외래어는 국어의 음운 및 문법 체계에 맞게 변용되고 국어 가운데에 동화되어 우리 나라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국어의 일부로 사용된다는 점이 외국어와의 다른 점이다.

외래어는 ‘컴퓨터(computer), 라디오(radio), 인터넷(internet)’과 같이 새로 유입된 문물에 대응되는 국어 어휘가 없어서 원어의 뜻 그대로 차용한 경우도 있고, 이미 ‘키(key), 박스(box), 센스(sense), 테이블(table), 와이프(wife), 치킨(chicken)’과 같이 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국어에 있는데도 차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컴퓨터, 라디오’와 같이 원어의 뜻을 유지하는 외래어도 있는 반면, ‘콘도(condo), 미팅(meeting), 노트북(notebook)’과 같이 원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외래어도 있고, ‘백넘버(back number), 오버센스(over sense), 핸드폰(hand phone)’과 같이 외국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외래어도 있다. 외국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외래어 중에는 국어와 섞어서 만든 ‘소개팅, 체인점, 휴대폰’과 같은 단어도 있다.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어의 음운 구조에 맞게 발음이 변형되어서 표기된다. 즉, [f]나 [v]는 국어에 없는 음이기 때문에 각각 ‘프, 브’로 적어서 ‘파이팅(fighting), 텔레비전(television)’과 같이 표기한다. 또한 외래어가 용언으로 수용될 때는 국어 조어법을 적용하여 ‘오픈하다(open-), 심플하다(simple-)’와 같이 써서 활용한다.

2.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모 아닌 기호를 도입하거나,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풍, 붕’을 사용하거나 ‘애, 앵’과 같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대이 대응, 이대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는 ‘퍼센트, 수프, 슝’과 같이 ‘프, 프, 브’로 다양하게 적고, [r], [l]은 ‘리본, 레이스’와 같이 모두 ‘르’로 똑같이 적는다.



제3항은 국어의 표기 방법과 달리 7개의 받침으로만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coffee shop’은 ‘커피숍’으로, ‘internet’은 ‘인터넷’으로, ‘stick’은 ‘스틱’으로 적는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ㄸ, ㄲ’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지만,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 전사는 불가능하므로 일관성과 간결성을 살려서 거센소리로 통일하여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영어의 ‘game, dam, bus’는 ‘게임, 댐, 버스’가 아니라 ‘게임, 댐, 버스’로, 프랑스어의 ‘café, latte, Paris’는 ‘까페, 라떼, 파리’가 아니라 ‘카페, 라테, 파리’로 적는다.

제5항은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camera[kæməɾə]’를 ‘캐머러’가 아니라 ‘카메라’로, ‘radio[reidiou]’를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system[sistəm]’을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3.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3.1. 영어의 표기

3.1.1. 자음의 표기

(1) 파열음

- ① 모음 앞의 파열음 [p], [t], [k], [b], [d], [g]는 ‘ㅍ’, ‘ㅌ’, ‘ㄱ’, ‘ㄷ’, ‘ㄴ’으로 적는다.

party[pɑ:ti] 파티	table[téibəl] 테이블
coffee[kɔ:fi] 커피	bus[bʌs] 버스
double[dʌbəl] 더블	gas[gæs] 가스

- ②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 ‘ㅍ, ㅌ, ㄱ’으로 적는다.

gap[gæp] 갭	robot[robot] 로봇
book[bʊk] 북	

- ③ 짧은 모음과 유음([l], [r]), 비음([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 ‘ㅍ, ㅌ, ㄱ’으로 적는다.



lipstick[lipstick] 립스틱

action[ækʃən] 액션

④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무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서 적는다.

pipe[paip] 파이프

date[deit] 데이트

part[pɑ:t] 파트

cake[keik] 케이크

stamp[stæmp] 스탬프

matress[mætris] 매트리스

apple[æpl] 애플

token[toukən] 토큰

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bulb[bʌlb] 벌브

land[lænd] 랜드

signal[signəl] 시그널

■ 예제 1 ■

가운/까운

깁스/기브스

까페/카페

냅킨/내프킨

네트워크/네트워크

라켓/라케트

랍스터/로브스터

뷰티샷/뷰티숍

샌달/샌들

셋/세트

카펫/카페트

테입/테이프

플룻/플루트

힙/히프

■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기 ■

기브스 「명사」 『의학』 → 깁스(Gips) 「2」.

(2) 마찰음

① 모음 앞의 마찰음 [s], [z], [f], [v], [θ], [ð]는 각각 ‘ㅅ’, ‘ㅈ’, ‘ㅍ’, ‘ㅂ’, ‘ㅅ’, ‘ㅈ’, ‘ㅅ’로 적는다. 특히, [f]는 ‘ㅎ’가 아니라 ‘ㅍ’으로 적고, [s]는 ‘ㅅ’가 아니라 ‘ㅅ’으로 적어야 함에 유의한다.



center[sentər] 센터	zipper[zipər] 지퍼
fantasy[fæntəsi] 판타지	vision[viʒən] 비전
Hawthorne[hɔːθɔːn] 호손	mother[mʌðər] 머더

②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ɑː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ɒli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③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쇄’,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flash[flæʃ] 플래시	sharp[ʃɑːp] 샤프
fashion[fæʃən] 패션	shopping[ʃɒpiŋ] 쇼핑
eye shadow[ʃædou] 아이섀도	

예제 2

대쉬/대시	리더쉽/리더십
사우나/싸우나	사인/싸인
서비스/씨비스	서클/씨클
소파/쇼파	쉐이크/셰이크
쉬림프/슈림프	시티/씨티
잉글리쉬/잉글리시	파이팅/화이팅
파일/화일	프라이팬/후라이팬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기

후라이-팬 「명사」 → 프라이팬.



(3) 파찰음

- ① 모음 앞의 파찰음은 ‘ㄷ’, ‘ㄷ’로 적는다. 파찰음 뒤에 이중모음이 오더라도 이중모음 표기를 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는다. 이는 국어의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가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jaguar[dʒæɡua:r] 재규어 chart[tʃɑ:t] 차트
juice[dʒu:s] 주스 vision[viʒən] 비전

- ② 어말 또는 자음 앞의 [dz], [ts]는 ‘즈’, ‘즈’로 적고, [dʒ], [tʃ]는 ‘지’, ‘치’로 적는다.

gauze[gəʊz] 거즈 boots[bu:ts] 부츠
bridge[bridʒ] 브리지 switch[switʃ] 스위치
Pittsburgh[pitsbɜ:g] 피츠버그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예제 3

내추럴/내츄럴	레저/레저
비즈니스/비지니스	재즈/째즈
잼/잼	조깅/조깅
주얼리/쥬얼리	차밍/차밍
찬스/찬스	텔레비전/텔레비전

(4) 비음

- ① 모음 앞의 [m], [n]은 ‘ㅁ’, ‘ㄴ’으로 적는다.

lemon[lemən] 레몬 note[nout] 노트

- ②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steam[sti:m] 스팀 corn[kɔ:n] 콘
ring[riŋ] 링 lamp[læmp] 램프
hint[hint] 힌트 ink[iŋk] 잉크



- ③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singer[sɪŋəːr] 싱어

(5) 유음

- ① 어두에서 모음 앞의 [l], [r]은 ‘ㄹ’로 적는다.

ribbon[ribən] 리본

lace[leɪs] 레이스

- ②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 ‘ㄹ’로 적는다.

hotel[houteɪl] 호텔

pulp[pʌlp] 펄프

- ③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로 적는다. 단,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ɪm] 필름

Hamlet[hæmlɪt] 햄릿

Henley[henli] 헨리

■ 예제 4 ■

카다로그/카탈로그

크럽/클럽

크리닉/클리닉

키로/킬로

프라스틱/플라스틱

프라자/플라자

■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기 ■

키로(kilo) 「의존명사」 「ㄱ」 → 킬로.

3.1.2. 모음

(1) 단모음

- ① 단모음 [ə], [ʌ]는 ‘어’로, [æ]는 ‘애’로, [ɔ], [o]는 ‘오’로 적는다.

terminal[təˈrminəl] 터미널

control[kənˈtrɒl] 컨트롤



color[kʌlər] 컬러
access[ækses] 액세스
concert[kɒnsə:rt] 콘서트

honey[hʌni] 허니
talent[tælənt] 탤런트
concept[kɒnsept] 콘셉트

예제 5

다이나믹/다이내믹
달라/달러
데커레이션/데코레이션
라이센스/라이선스
레포트/리포트
미스터리/미스터리
(블라우스) 칼라/컬러
스펀지/스폰지
칼라/컬러 (텔레비전)
컨텐츠/콘텐츠

다큐멘타리/다큐멘터리
데이타/데이터
디지털/디지털
라이타/라이터
메세지/메시지
바베큐/바비큐
비스켓/비스킷
악세서리/액세서리
컨디션/콘디션
컬렉션/콜렉션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기

컨텐츠 「명사」 『컴퓨터』 → 콘텐츠.

(2) 장모음

- ①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m] 팀

route[ru:t] 루트

(3) 이중모음

- ① 이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o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4) 반모음([w], [j])

- ①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달라진다. [wə], [wɔ], [wou]는 ‘위’,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word[wɜ:d] 워드	warmingup[wɔ:rmiŋʌp] 워밍업
wine[wain] 와인	wagon[wægən] 왜건
wedding[wediŋ] 웨딩	whiskey[wiski] 위스키

- ②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swing[swiŋ] 스윙	twist[twist] 트위스트
penguin[peŋgwin] 펭귄	whistle[hwisl] 휘슬
quarter[kwɔ:tə] 쿼터	

- ③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ɑ:d] 야드	yellow[jelou] 옐로
Indian[indjən] 인디언	union[ju:njən] 유니언

예제 6

가스렌지/가스레인지	롤러/로울러
새도/새도우	스켈링/스케일링
원도/원도우	포즈/포우즈



3.1.3. 복합어

- ①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makeup[meikʌp] 메이크업

outlet[autlet] 아울렛

- ②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Los Angeles[lɒs ændʒələs] 로스 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

top class[tɒpkləs] 톱 클래스/톱클래스

3.2. 일본어의 표기

외래어 표기법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를 따르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 ① 축음(促音) [ッ]은 ‘ㅅ’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サッポロ[札幌] 삿포로

ホッカイドウ[北海道] 홋카이도

- ②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トウキョウ[東京] 도쿄

オオサカ[大阪] 오사카

3.3. 중국어의 표기

중국어의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를 따르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 ① 성조는 구별하여 적지 않는다.

- ② ‘ㄗ, ㄘ, ㄙ’으로 표기되는 자음 뒤의 ‘ㄗ, ㄗ, ㄘ, ㄙ’ 음은 ‘ㅈ, ㅊ, ㄱ, ㄴ’로 적는다.

蔣介石 Jiang Jieshi 장제스

張國榮 Zhang Guorong 장궈룽



3.4.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 ①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장개석/장제스[蔣介石]	모택동/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마잉주[馬英九]
궁리[聶利]	저우룬파[周潤發]
메이란팡[梅蘭芳]	장이모[張芸謀]

- ②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	---------

- ③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삿포로[札幌]	오사카[大阪]

- ④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北京 베이징, 북경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	黃河 황허, 황하

3.5.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 ①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카리브 해	북해
발리 섬	목요섬

- ②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 해
----	------



③ 우리 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④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온타케 산(御岳)

주장 강(珠江)

예제 7

길림/지린
북해도/훗카이도
해남/하이난

등소평/덩샤오핑
오끼나와/오키나와
후꾸오까/후쿠오카

예제 8

도넛/도우넛/도너스/도너츠
렌터카/렌트카
링겔/링거
뮤직컬/뮤지컬
뷔페/부페/뷔페
소시지/소세지
스티로폴/스티로폼
악센트/엑센트
자켓/자켓/재킷
초코렛/초컬릿/초콜릿
카라멜/카라멜/캐러멜
콩트/공트
크리스찬/크리스찬/크리스천
파마/퍼머/펌

돈가스/돈까스/돈카츠
류마치스/류머티스/류머티즘
맛사지/마사지
밋데리/배터리
삐에로/피에로
수퍼마켓/슈퍼마켓
아틀리에/아뜰리에
워크샵/워크숍
쥬라기/쥐라기
츄리닝/트레이닝
컨추리/컨츄리/컨트리
크락손/클랙슨
패스츄리/패스트리
핏자/피자



4. 나가며

외래어는 이미 국어 어휘 체계의 일부로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필요한 외래어의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국어의 일부로 정착한 외래어를 무리하게 모두 고유어로 바꿔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외래어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고유어를 찾아서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도 어문 규정에 맞게 적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주 틀리는 외래어 표기를 특별히 주의하여 기억하고 국어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부록: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모음		모 음	
국제음성기호	한 글		국제음성기호	한 글	국제음성기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i	이
b	ㅂ	브			y	위
t	ㅌ	ㅌ, 트			e	에
d	ㄷ	드			ø	외
k	ㄱ	ㄱ, 크			ɛ	예
g	ㄲ	그			ɞ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왕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æ	아
s	ㅅ	스			a	아
z	ㅅ	즈			ɑ	앙
ʃ	시	슈, 시	j	이*	ɔ	오
ʒ	지	지	ɥ	위	ɔ̃	옹
ts	ㅈ	ㅈ, 츠	w	우, 우*	o	오
dz	ㅈ	즈			u	우
tʃ	ㅊ	ㅊ, 치			ə**	어
dʒ	ㅊ	즈			ə	어
m	ㅁ	ㅁ				
n	ㄴ	ㄴ				
ɲ	ㄴ*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 예제 1 ■

가운, 갑스, 카페, 냅킨, 네트워크, 라켓, 로브스터, 뷰티숍, 샌들, 세트, 카펫, 테이프, 플루트, 히프

■ 예제 2 ■

대시, 리더십, 사우나, 사인, 서비스, 서클, 소파, 셰이크, 슈림프, 시티, 잉글리시, 파이팅, 파일, 프라이팬

■ 예제 3 ■

내추럴, 레저, 비즈니스, 재즈, 잼, 조깅, 주얼리, 차밍, 찬스, 텔레비전

■ 예제 4 ■

카탈로그, 클럽, 클리닉, 킬로, 플라스틱, 플라자

■ 예제 5 ■

다이내믹, 다큐멘터리, 달러, 데이터, 데커레이션, 디지털, 라이선스, 라이터, 리포트, 메시지, 미스터리, 바비큐, 칼라, 비스킷, 스펀지, 액세서리, 컬러, 컨디션, 콘텐츠, 컬렉션

■ 예제 6 ■

가스레인지, 롤러, 샐도, 스케일링, 윈도, 포즈



■ 예제 7 ■

길림/지린, 덩샤오핑, 북해도/훗카이도, 오키나와, 하이난, 후쿠오카

■ 예제 8 ■

도넛, 돈가스, 렌터카, 류머티즘, 링거, 마사지, 뮤지컬, 배터리, 뷔페, 피어로, 소시지, 슈퍼마켓, 스티로폼, 아틀리에, 악센트, 워크숍, 재킷, 쥐라기, 초콜릿, 트레이닝, 캐러멜, 컨트리, 콩트, 클랙슨, 크리스천, 패스트리, 파마, 피자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1995), 한국 어문규정집, 국립국어원.
- 박종덕(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23집, 한민족문화학회.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 연규동(2006),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 국립국어원.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 정 재 은(카이스트/문학박사)

1. 로마자 표기법의 의의

대학교에 다닐 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어느 가족이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성이 다르게 표기되어 대사관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난 부자의 성은 ‘정’이었다. 나와 성이 같아서인지, 전공생의 호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정’을 로마자로 써 보기로 하였다. 네 명의 친구들은 모두 다르게 적었고, 가능한 표기까지 합하니, 우리가 적은 것만 열 개가 넘었다. Cheong, Chong, Chŏng, Choung, Chung, Chŭng, Jeong, Jong, Jŏng, Joung, Jung, Jŭng 정도로 기억된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도,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명칭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만에 우리가 찾아낸 정답은 ‘Jŏng’이었다.

15년 전 그때에도 ‘로마자 표기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규정대로 적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을 들 수 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이니 자기 마음대로 적으면 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자 표기법’의 의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외국의 호텔에 묵고 있는 친구와 급히 통화를 하려고 할 때, 호텔에 전화를 걸어 친구의 방 호수를 물으면, 호텔 측에서는 친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이름을 로마자로 어떻게 적는지 모른다. 만일 친구의 이름이 ‘준성’이



라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할까? Joonseong, Joonsong, Joonsöng, Joonsoung, Joonsung, Joonsüng, Junseong, Junsong, Junsöng, Junsoung, Junsung, Junsüng 등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열 개 남짓이지만, 이 가운데 답이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럴 때 표준 규정을 잘 알고 있다면, 표준 규정대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면, 1분 만에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을 검색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은 외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검색창에 뭐라고 써넣어야 할까? Namdaemoon, Namdaimoon, Namdaemun, Namdaimun……. 결국 외국인은 ‘남대문’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는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바르고 통일된 표기로 우리 문화유산을 표기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 즉 인터넷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탓도 크다. 그 예로 어깨점(˘)과 반달점(◌)을 들 수 있다. 2000년에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 두 기호는 로마자 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ㅈ’은 ch로, ‘ㅊ’은 ch’로 표기하였고, ‘ㄱ’은 ö로 ‘ㅡ’는 ü로 표기하였다. 컴퓨터 자판에 있지 않은 어깨점과 반달점 때문에 사람들은 두 기호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고, 표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예를 들면, 모음 ‘ㅓ’를 적기 위해 그냥 반달점을 안 찍거나 두 개의 철자를 결합하여 ‘o, eo, ou’ 등의 다양한 표기를 생각해 낸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 2000년,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다. 어깨점과 반달점, 두 기호를 없앤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표기를 정립하였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면서 복잡한 규정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르게 적어 보자.



1.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2.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즉, ‘국민’을 로마자로 쓰고 싶으면 ‘gukmin’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표준 발음인 [궁민]을 고려하여 ‘gungmin’으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이 우리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인데, 한글 표기를 따라 ‘gukmin’으로 적으면 외국인은 그것을 [궁민]으로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외국인의 발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2항을 보자.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컴퓨터로 생활하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로마자 이외의 부호, 즉 어깨점이나 반달점 등을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로마자 표기법 제2장은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보여 준다. 제1항은 모음, 제2항은 자음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부터 살펴보자.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ㅢ	ㅣ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ㅟ	ㅠ	ㅓ	ㅖ	ㅜ	ㅞ	ㅡ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y’나 ‘w’를 결합하여 만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를 ‘weo’가 아닌 ‘wo’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른 표기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wo’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을 ‘weon’으로 적지 않고 ‘won’으로 적는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ㅡ’는 [ɪ]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예를 들면 ‘희소식’의 표준 발음은 [히소식]인데, ‘hisosik’으로 적지 않고, ‘huisosik’으로 적어야 한다. 모음 ‘ㅡ’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ui’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자음에 관한 규정인 제2항을 살펴보자.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ㅊ	ㅍ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예를 들면 ‘보신각’은 ‘Bosingak’으로, ‘볶음밥’은 ‘bokkeumbap’으로 표기한다. 모음 앞에 오는 ‘ㄱ’과 ‘ㅂ’은 각각 ‘g’와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오는 ‘ㄱ’과 ‘ㅂ’은 각각 ‘k’와 ‘p’로 적은 것이다. 이는 우리말의 특성과 언중의 습관을 반영한 규정이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ㅂ’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낫, 낫, 낫, 낫’은 모두 [낫]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nat’이 된다. 만일 ‘벚꽃’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벚꽃’의 표준 발음은 [번꼇]이므로 ‘beotkkot’이 된다. ‘벚’과 ‘꽃’의 받침은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두 음절의 끝소리 같으므로 둘 다 ‘t’로 표기해야 한다.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l’로 적는다. 예를 들어 ‘판소리’는 ‘pansori’로, ‘한글’은 Hangeul로, ‘설렁탕’은 ‘seolleongtang’으로 표기한다.

문제

2. 다음을 로마자로 표기하세요.

- ① 조선
- ② 고구려
- ③ 남대문
- ④ 무궁화
- ⑤ 아리랑
- ⑥ 김치
- ⑦ 불고기
- ⑧ 된장찌개
- ⑨ 막걸리
- ⑩ 추석
- ⑪ 씨름
- ⑫ 한복

3. 표기상의 유의점

로마자 표기법 제3장은 표기상의 유의점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음운 변화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랏]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위의 규정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제1장,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선릉, 정릉, 태릉’을 표기한다면, ‘선릉’은 [설릉]으로 발음되므로 ‘Seolleung’으로 써야 하고, ‘정릉’은 [정능]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Jeonneung’으로, ‘태릉’은 표기와 발음이 같으므로 ‘Taereung’으로 적어야 한다. ‘릉’의 로마자 표기가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선릉’을 [선능]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릉’을 ‘Seonneung’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표준 발음을 잘 알아야 한다.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체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이는 언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집현전’이 [지편전]으로 발음된다고 해서 ‘Jipyeonj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ㅎ’을 밝혀 ‘Jiphyeonj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까]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애국가’는 ‘Aegukkka’라고 적지 않고 ‘Aegukga’라고 적어야 한다.

문 제 3. 다음을 로마자로 표기하세요.

- ① 거북선
- ② 태권도
- ③ 삼국유사
- ④ 오죽헌
- ⑤ 떡국
- ⑥ 비빔밥
- ⑦ 식혜
- ⑧ 광한루
- ⑨ 강릉
- ⑩ 낙화암
- ⑪ 철원
- ⑫ 대관령
- ⑬ 설악
- ⑭ 답십리
- ⑮ 충정로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로마자 표기는 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읽히지 않을 수 있다. 위의 〈보기〉에서 ‘중앙’을 ‘Jungang’으로 표기하면 [준강]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표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Jung-ang’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며, 오히려 가능한 한 붙임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음이나 자음이 연달아 나오면 으레 잘못 읽힐 수가 있는데, 모든 단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은 간결성을 해칠 수 있다. ‘해운대’를 ‘Haeundae’로 표기하였을 때, [하운대]로 읽힐 수 있지만, 이는 [해운대]로 바로잡아 주면 된다. 잘못 읽히는 경우가 전혀 없도록 규정을 만들다 보면 규정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표기법을 바르게 사용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고유 명사에 관한 규정이다.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3항은 고유 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언중의 직관과 일치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유 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있다. 오히려 대문자



로 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잘못을 범한다. 예를 들어 음식의 하나인 ‘김치찌개’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도 ‘Gimchijjigae’라고 쓰는데, ‘김치찌개’의 바른 로마자 표기는 ‘gimchijjigae’이다. 대문자로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고유 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의의가 퇴색된다. 그러므로 이 규정 제3장, 제3항은 단순하지만 중요하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4항은 인명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인명의 로마자 표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마자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하였는데, 인명의 표기는 예외가 된다. ‘복남’이라는 이름은 [봉남]이라고 발음되는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Bongnam’이라고 적지 않고 ‘Boknam’이라고 적는다. ‘복남’을 소리 나는 대로 ‘Bongnam’으로 적으면, ‘봉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명의 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띄어서 적는 것이다. 즉, ‘민용하’라는 이름을 표기할 때 ‘Min Yong Ha’라고 잘못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붙임표를 써서 ‘Min Yong-Ha’라고 적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과 이름은 분리될 수 있지만, 이름은 몇 글자로 되어 있든 띄어서 쓸 수 없다.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사람들은 ‘성’의 표기를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가 ‘i’인데도 이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I’로 적지 않고 ‘Lee’로 표기한다. ‘Yi’로 적는 경우도 있다. 많은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Yi Sunsin’으로 쓰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I’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Lee’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언중이 관습대로 써 온 표기를 인정하여 혼란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새로 정할 때에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은 행정 구역 단위에 관한 규정이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 (-)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ro 3(sam)-ga

행정 구역 단위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위의 〈보기〉에서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된다. 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 라고 적지 않고 ‘Inwang-ri’ 라고 표기한다.

또한, 행정 구역 단위의 로마자 표기에서 붙임표는 필수적이다. ‘충청북도’를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붙임표를 쓰지 않고 ‘Chungcheongbukdo’라고 적어서는 안 된다. 붙임표를 잘못된 위치에 써서 ‘Chungcheong-bukdo’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Chungcheongbuk



Province'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충청북'만 고유 명사인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행정 구역 단위인 '도'와 섬을 의미하는 '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울릉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섬'을 뜻하므로, '울릉도'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아야 한다. 즉, 'Ulleung-do'로 표기하지 않고 'Ulleungdo'로 표기해야 한다.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8. 2. 29.) 및 시행령(2007. 4. 5.)에 따른 새 주소 체계에서 기존 행정 구역 단위를 대체하는 '대로(大路)', '로(路)', '길'은 각각 'daero', 'ro', 'gi'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예를 들면, '강남대로'는 'Gangnam-daero'라고 적고, '과학로'는 'Gwahak-ro'로, '개나리길'은 'Gaenari-gil'로 적는다. 이때 기존의 지명인 '종로', '을지로', '충정로' 등을 새 주소 체계와 동일하게 적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변함 없이 'Jongno', 'Euljiro', 'Chungjeongno'로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명과 행정 구역 단위를 로마자로 쓰면 다음과 같다. '시흥본동'은 'Siheungbon-dong'으로, '영등포동 1가'는 'Yeongdeungpo-dong 1(il)-ga'로, '미아삼거리'는 'Miasamgeori'로 적는다.



4. 다음을 로마자로 표기하세요.

- ① 전라남도
- ② 대전시
- ③ 서귀포시
- ④ 강서구
- ⑤ 중랑구
- ⑥ 횡성군
- ⑦ 방화동
- ⑧ 문래동



- ⑨ 신림동
- ⑩ 하동면
- ⑪ 강화읍
- ⑫ 양수리
- ⑬ 원효로 3가
- ⑭ 집 주소를 로마자로 써 보세요.
- ⑮ 직장 주소를 로마자로 써 보세요.

다음은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이다.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다만, 지도 등 안내서에서 ‘(Mt.) Namsan’, ‘Geumgang (River)’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독립문, 다보탑’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경복, 안압, 불국, 독립, 다보’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 전체가 고유 명사이므로,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 등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상황에 따라서 ‘Gyeongbokgung Palace’ 등으로 표기할 수는 있지만, ‘Gyeongbok Palace’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잠수교’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Jamsugyo’가 되지만, ‘한강 대교’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Hangang bridge’가 된다. ‘잠수교’는 하나의 단어로서 그 자체가 고유 명사이지만, ‘한강 대교’는 ‘한강’만이 다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남산 공원, 동래 온천, 광안리 해수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각각 ‘Namsan park, Dongnae spa, Gwangalli beach’가 된다.



5. 다음을 로마자로 표기하세요.

- ① 한라산
- ② 낙동강
- ③ 부석사
- ④ 석굴암
- ⑤ 낙성대
- ⑥ 동대문



- ⑦ 현충탑
- ⑧ 행주산성
- ⑨ 첨성대
- ⑩ 서강 대교

다음은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7항의 내용이다.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이 조항은 언중의 혼란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이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Samseong, Hyeondae’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면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과 교류가 활발한 대학들은 학교명의 로마자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수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고려대, 연세대’ 등은 학교 이름을 각각 ‘Korea, Yonsei’로 표기하는데, 이는 규정에 맞지 않다. 하지만 학교 이름을 ‘Goryeo, Yeonse’로 바꾼다면 회사 이름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표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단체등에서 회사명과 단체명의 로마자 표기를 새로 만들 때에는 규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8항이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불임표



(-)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박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이 규정은 로마자 표기법의 마지막 조항으로,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 표기대로 로마자를 적는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우리말을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분야의 학술 연구에서는 한글 표기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은 일부 학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로마자를 표기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집’과 ‘짚’의 로마자 표기가 달라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집’과 ‘짚’의 발음이 똑같이 [집]으로 나기 때문에 둘 다 ‘jip’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학술 연구에서는 한글 표기대로 적고 ‘ㅂ’은 ‘b’로만 적기 때문에 ‘집’은 ‘jib’으로 ‘짚’은 ‘jip’으로 적는다. ‘박’과 ‘값’ 역시 발음은 [박]과 [갑]으로 나지만, 한글 표기에 따라 겹자음을 모두



로마자자로 표기하여 각각 ‘bakk’, ‘gabs’로 적는다. ‘붓꽃’, ‘먹는’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은 발음이 아닌 표기대로 적을 뿐만 아니라, ‘ㄹ’은 ‘l’로만 적기로 하였으므로, ‘dongnip’이나 ‘dogrib’이 아닌 ‘doglib’으로 표기해야 한다. ‘문리’ 역시 ‘mulli’나 ‘munri’가 아닌 ‘munli’로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물엿’을 ‘mulyeos’으로 쓰면 이것을 한글 표기로 복원할 때 ‘무렛’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굳이’도 ‘gud-i’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없었습니다’의 ‘없’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음가 없는 ‘ㅇ’이 올 때에는 한글 복원 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지 않고, ‘eobs-eoss-seubnida’로 표기한다. 두 번째 붙임표는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라는 규정 때문에 사용된 것인데, ‘eobs-eossseubnida’로 표기하면 ‘없었습시다’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로마자 표기법의 시행

로마자 표기법의 부칙은 다음의 세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이미 2000년에 개정되었고, 출판물은 2002년 2월까지, 표지판은 2005년까지 표기를 규정대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잘못된 로마자 표기를 접하게 된다. 언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결하게 정비된 규범을 이제 언중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때이다.



■ 문제 2 ■

① 조선	Joseon
② 고구려	Goguryeo
③ 남대문	Namdaemun
④ 무궁화	mugunghwa
⑤ 아리랑	arirang
⑥ 김치	gimchi
⑦ 불고기	bulgogi
⑧ 된장찌개	deonjangjjigae
⑨ 막걸리	makgeolli
⑩ 추석	chuseok
⑪ 씨름	ssireum
⑫ 한복	hanbok

■ 문제 3 ■

① 거북선	geobukseon
② 태권도	taegwondo
③ 삼국유사	Samgungnyusa
④ 오죽헌	Ojukheon
⑤ 떡국	tteokguk
⑥ 비빔밥	bibimbap
⑦ 식혜	sikhye
⑧ 광한루	Gwanghallu
⑨ 강릉	Gangneung
⑩ 낙화암	Nakhwaam
⑪ 철원	Cheorwon
⑫ 대관령	Daegwallyeong
⑬ 설악	Seorak
⑭ 답십리	Dapsimni
⑮ 충정로	Chungjeongno



■ 문제 4 ■

- | | |
|----------|---------------------|
| ① 전라남도 | Jeollanam-do |
| ② 대전시 | Daejeon-si, Daejeon |
| ③ 서귀포시 | Seogwipo-si |
| ④ 강서구 | Gangseo-gu |
| ⑤ 중랑구 | Jungnang-gu |
| ⑥ 황성군 | Hoengseong-gun |
| ⑦ 방화동 | Banghwa-dong |
| ⑧ 문래동 | Mullae-dong |
| ⑨ 신림동 | Sillim-dong |
| ⑩ 하동면 | Hadong-myeon |
| ⑪ 강화읍 | Ganghwa-eup |
| ⑫ 양수리 | Yangsu-ri |
| ⑬ 원효로 3가 | Wonhyoro 3(sam)-ga |

■ 문제 5 ■

- | | |
|---------|-----------------|
| ① 한라산 | Hallasan |
| ② 낙동강 | Nakdonggang |
| ③ 부석사 | Buseoksa |
| ④ 석굴암 | Seokguram |
| ⑤ 낙성대 | Nakseongdae |
| ⑥ 동대문 | Dongdaemun |
| ⑦ 현충탑 | Hyeonchungtap |
| ⑧ 행주산성 | Haengjusanseong |
| ⑨ 첨성대 | Cheomseongdae |
| ⑩ 서강 대교 | Seogang bridge |



국어문화학교

✿ 유 하 라(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문학박사)

1. 머리말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글은 일반적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을 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른 문장이란 어떠한 문장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 (1) 스프링은 재료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 (2)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 (3) 밀가루 값이 올랐는데도 자장면 값이 내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문장들은 바른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에서 ‘용도(用途)’는 ‘쓰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앞에 ‘쓰이다’가 덧붙여 있어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2)는 도시에 사람이 많은 것인지, 사람이 여러 도시를 다닌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3)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된다. ‘내리다’는 ‘누가 무엇을 내리다’와 같은 문장으로 쓰이는데 (3)에서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자장면 값’에 조사 ‘이’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모두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바른 문장이란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문장의 요건으로 ‘간결성’, ‘명료성’, ‘정확성’ 등이 논의되는데, 이러한 요건에 맞게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좋은 문장의 요건

2.1. 간결성

간결한 문장이란 군더더기가 없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을 말한다. 같은 의미의 말이 거듭 나오거나 군더더기 표현 있으면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도 그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2.1.1.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말을 중복하지 않기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말을 중복하면 간결성을 해친다. 특히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한 자어에 이미 그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 유도과 수영에서 금메달이란 값진 수확을 거두었다.
→ 수확(收穫):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또는 거두어들인 농작물.
- 2) 글 쓰다가 날아간 정보를 다시 재생하는 방법
→ 재생(再生): 못 쓰게 된 물건을 다시 쓰게 함.
- 3)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근처에 새로 학원이 생긴답니다.
→ 소문(所聞):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 4) 2008년 한 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행(同行): 같이 길을 감.
- 5) 전래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 전래(傳來):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옴.
- 6) 의병들은 왜병들이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진지를 불시에 급습했다.
→ 급습(急襲): 갑자기 공격함.
- 7) 다음은 고객님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 문의(問議): 물어서 의논함.



8) 내면 속에 숨어있는 자아를 찾는 방법

→ 내면(內面): 물건의 안쪽.

9) 자유 게시판에서는 회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교환(交換): 서로 주고받고 함.

10) 미리 예습을 해 두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 예습(豫習):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익힘.

11)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재발(再發): 다시 발생함.

12)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소급(遡及):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13)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유(事由): 일의 까닭.

14)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범위(範圍): 테두리가 정해진 구역.

15)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

→ 기간(期間):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



좀 더 알아보기

- | | |
|-----------|----------------|
| • 진위 여부 | • 모금된 성금 |
| • 매순간마다 | • 각 지역별 |
| • 널리 선양하다 | • 애환과 기쁨 |
| • 사전 예방 | • 미리 예측하다/예상하다 |
| • 종을 타종하다 | • 현안 문제 |



2.1.2. 불필요하게 긴 표현 간단하게 바꾸기

공문서나 법률문에는 ‘-는 경우에는’, ‘-(으)ㄴ데 있어서’, ‘-(으)ㄴ 때에 한하여’ 등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몇몇은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면 문장이 간결해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 2) 감독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자.

→

- 3) 주식을 함에 있어서 투자 정보를 얻는 곳.

→

-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체 회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5) 법정 상속인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

- 6)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 7) 뇌사자의 장기 제공에 관하여 유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우선권을 갖습니까?

→

- 8)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 9)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



10) 이것은 발목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

2.1.3. 불필요한 말 쓰지 않기

문장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1) 경기장에 있던 응원단은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들에게 승리의 박수를 보냅니다.

→

2) 이 중 몇 가지 대목에서 미심쩍은 돈 흐름을 찾아냈다.

→

3) 그는 미국 측에 언론에의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4) 일부러 감량을 시도했다. 처음엔 음식을 안 먹는 방법이었다.

→

5) 정부 주도의 큰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

6) 동교동계는 과거에 고생하신 분들이고 옛날에 쓰던 말들이다.

→

7) 이들 지도자들은 ‘카지노 파문’과 3연패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

8) 그동안 소수 음악 팬들의 취미 생활에 국한돼 왔던 오페라.

→



9)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

10) 식품 · 의학 · 의공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2.1.4.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쓰지 않기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문장이 연결되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절한 어미[(-고, -(으)나, -아/어서, -(으)며 등)]와 접속 부사(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를 이용해서 문장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1) 언제나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시골에는 거의 반나절을 차 속에서 보낸 다음에야 도착하게 될 때가 많아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들떠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터트리며 밤을 지새우지만 어느새 모르게 잠든 사이에 차는 시골 마을 어귀에 이른다.

2) 토요일은 휴일을 하루 앞둔 여유를 가져다주고, 무엇보다도 한가한 토요일 오후에 추억에 담긴 음악을 듣노라면 그 음악을 애청하던 시절의, 꿈속에 빠져들 듯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되살아나는 분위기에 취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2.2. 명료성

한 문장은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어야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 글쓴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적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도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2.2.1.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조 피하기

하나의 단어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중의적’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중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도록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다.

- 1) ○○당 대표가 이 총재와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

- 2) 아래의 사진은 이들이 배서한 수표 사본이다.

→

- 3) 북한의 남침 억제를 위한 노력

→

- 4) 정부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살리기에 직접 나서

→

- 5)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끊임없는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

- 6) 그리운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

- 7) 이 미술관은 ○○○ 선생의 그림을 모아둔 곳입니다.

→

2.2.2. 동음어나 다의어 피하기

동음어(음이 같고 의미가 다른 말)나 다의어(의미가 여럿인 말)는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음이 같으면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한자어가 있으면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할 수 있다.



1) 이 동네 사람들은 말이 많다.

→

2) 농토에서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

- 유망(流亡):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 유망(有望): 앞으로 잘될 듯한 희망이나 전망이 있음.

3) 이웃 거주자는 전 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 인용(認容): 인정하고 용납함.
- 인용(引用):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넣어 씀.

4)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

- 자력(資力): 물자나 자산 따위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 자력(自力): 자기 혼자의 힘.

5)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 과실(果實): ① 과일. ②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
- 과실(過失):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2.3. 문맥에 맞는 단어 사용하기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당연히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 1)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 2)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도 실외보다 실내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 3) 자살 방지 사이트 3명 자살 기도
→
- 4)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
- 5) 연 25%의 연체 이자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
- 6)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 전기세를 30일까지 은행에 수납하여야 합니다.
→
- 8) 구단은 현지 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 9) 그 단체는 고발장을 구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
- 10)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11) 맑은 날 햇볕에 차를 비춰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페인트 색이 달라진다.
→



12) 같은 시간, 캐나다 유학 박람회장도 유학 희망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

13) 200년 전 배를 그대로 재연

→

14)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

15)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2.2.4.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기

간결성을 위해서 의미가 중복되는 성분은 생략한다. 그러나 의미상 꼭 필요한 성분을 생략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예들이 있다.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된다.

1) 응시 자격: 만 30세 이하자

→

2)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3)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

→

4)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

→



5)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 공헌과 희생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

7) 해당 지방 병무청이나 공·항만 병무 신고 사무소에 제출할 것

→

8) 공원 점·사용에 관한 사항

→

9) 농림부 지난달 조사 착수 불구 원인 못 찾아

→

10)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0년래 최고치인 4.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2.3. 정확성

문장을 쓸 때 문법에 맞게 문장을 써야 한다.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맞지 않을 경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이상한 문장이 되어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2.3.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맞추기

서술어는 일정한 주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서술어와 주어, 서술어와 목적어, 서술어와 부사어 등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맞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1) 작년보다 11.8%가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12.1%를 차지했다.

→



2) 기아자동차도 지난달 1만 6454대를 팔아 작년 8월보다 25.2% 증가했다.

→

3)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7년간의 전쟁으로 북위 17° 선을 경계로 하여 분단되었다.

→

4)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가 커지고 있다.

→

5) 독일인의 근면한 정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럽의 최강자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

나.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6) 내 임기 말까지는 OECD 국가 중 상위권까지 올릴 계획이다.

→

7)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

→

8) 환경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면 지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

9) 산업과 인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

→

10) 정치 쟁점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11) 불안한 금융시장도 동결 ‘한몫’

→

12)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공적자금 조성용 발행 채권 중 약 60%가 2003년에 집중 만기된다.

→

14) 남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

15) 그의 말은 사랑으로 비롯하지 않을 때가 없다.

→

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16)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

17) 김미현은 올 들어 24차례 도전한 끝에 우승했다.

→

18) 공식 회담에서 첫 대면할 경우 주의할 점

→

19) 한국은 84년 은메달을 딴 이후 16년 만의 메달을 노리게 됐다.

→



20) 제2금융권에 부실이 훗날 은행에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2.3.2. 조사나 어미 바르게 사용하기

1) 영식이 어머니는 “오늘 고향에 간다.”고 말씀하셨다.

→

2)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도

→

3) 역사를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자.

→

4) 의약 분업 문제를 빨리 해결한 방책이 없을까요.

→

5)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경무대”로 명명하여 집무실 겸 관사로 사용하였다.

→

6) 서울의 남서부에는 각종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

7) 남서 계절풍은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농업에 영향을 준다.

→

8) 머리와 상체를 가슴까지 끌어당겨 5초간 유지하고 편다.

→



9) 상대도 지지 않으려고 준비할 만큼 나도 승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10) 나는 2000년 8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01년 3월에 퇴임했다.

→

2.3.3.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남용하지 않기

‘사동’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피동’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동’과 ‘주동’, ‘피동’과 ‘능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동 표현이 아닌데 ‘-시키다’를 쓰는 경우도 있고, 피동 표현이 아닌데 ‘-되다’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동 표현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

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

2)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

3)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4) 비핵화 선언은 한반도 핵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 1백만 원을 입금시키고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

6) 조업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7)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치 공세

→

8) 냉동육으로 속여 병원 등의 구내식당에 납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9)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단순히 ‘고발 사건 처리’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

10) 철거한 뒤 그 자리를 옛 모습대로 복구시켰다.

→

11) 심사단이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되고 있다.

→

12) 이 난의 회신은 질의 당시의 법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13) 본 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고, 욕설, 비방 등 관련 없는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4) 당뇨병은 식이요법으로 고쳐질 수 있는 병입니다.

→

15)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내용물을 꺼낸다.

→

16) 자금이 어디 쓰여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



17) 인습은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버려져야 할 찌꺼기이다.

→

18) 북한에서 기능공은 기술노동자로 불리운다.

→

19)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

20) 흔들리면 내용물이 섞여지게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2.3.4.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맞게 쓴다. 특히 사이시옷,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자주 틀리는 몇 예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십가 천억 원 상당의 건물 →

시가(○) / 십가(×)

개수(○) / 갯수(×)

대가(○) / 댕가(×)

셋째(○) / 세째(×)

소수점(○) / 소숫점(×)

꼭짓점(○) / 꼭지점(×)

머리말(○) / 머릿말(×)

인사말(○) / 인삿말(×)

2) 회계년도 →

회계 연도, 회계연도(○) / 회계년도(×) 2009년도(○) / 2008연도(×)

졸업 연도(○) / 졸업년도(×)

연간 계획(○) / 년간 계획(×)



3) 투입양 →

투입량(○) / 투입양(×)

독자란(○) / 독자난(×)

구름양(○) / 구름량(×)

어린이난(○) / 어린이란(×)

4) 투자를 →

투자율(○) / 투자률(×)

합격률(○) / 합격률(×)

할인율(○) / 할인률(×)

숫률(○) / 숫율(×)

5) 미달되 →

미달돼(○) / 미달되(×)

미달돼요(○) / 미달되요(×)

미달됐다(○) / 미달됐다(×)

미달되고(○) / 미달돼고(×)

미달되니(○) / 미달돼니(×)

미달되면(○) / 미달돼면(×)

6) 데이터 →

가스(○) / 까스(×)

로봇(○) / 로보트(×)

메시지(○) / 메세지(×)

배터리(○) / 밧데리(×)

비즈니스(○) / 비지니스(×)

슈퍼마켓(○) / 수퍼마켓(×)

액세서리(○) / 악세사리(×)

윈도(○) / 윈도우(×)

케이크(○) / 케익(×)

텔레비전(○) / 텔레비전(×)

레이더(○) / 레이다(×)

리더십(○) / 리더쉽(×)

바비큐(○) / 바베큐(×)

뷔페(○) / 부페(×)

센터(○) / 센타(×)

심포지엄(○) / 심포지움(×)

워크숍(○) / 워크샵(×)

카펫(○) / 카페트(×)

테이프(○) / 테잎(×)

파일(○) / 화일(×)

7) 제출한바 없으므로 →

갈수 없다.(×) → 갈 수 없다.

박사 과정을 마친자(×) → 박사 과정을 마친 자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



8) 구청장과 직원간 대화의 날 →

서울과 부산간(×) → 서울과 부산 간

* 비교: 10년간

기간내(×) → 기간 내

여섯가지 개선 방안(×) → 여섯 가지 개선 방안

진행중(×) → 진행 중

공사착공시(×) → 공사 착공 시

피해자측(×) → 피해자 측

9) 우리부서 →

다음사항(×) → 다음 사항

각1부(×) → 각 1부

매분기(×) → 매 분기, 분기마다

10) 천원 →

두가지 사항(×) → 두 가지 사항

말 한필(×) → 말 한 필

한시(×) → 한 시

2. 4. 그 밖

앞에서 언급한 좋은 문장의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으로 문장의 평이성을 들 수 있다. 문장에 쓰인 단어가 어렵거나 외국어투 문장이 섞여 있으면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2.4.1.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쓰지 않기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 문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최근에는 어려운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나 외국어도 많이 쓰는데 그 외래어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문장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가. 어려운 한자어

- 1) 이리저리 부유(浮游)하는 듯한 종잡을 수 없는 이미지들
→
- 2) 요즘 출연 제의를 대부분 고사(固辭)하고 있다.
→
- 3)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 금명간(今明間) 사법 처리기로 했다.
→
- 4) 경쟁력 제고(提高)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함.
→
- 5) 해당 시설은 청구인이 보아 쉽게 식별(識別)할 수 있도록 팻말 등을 설치함.
→
- 6) 명패를 비치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佩用)하겠습니다.
→
- 7)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當該) 영문 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8) 사위(詐僞)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
- 9) 도시 지역의 오존 오염 저감(低減) 대책
→
- 10) 감독 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좀 더 알아보기

- 금번(今番) → 이번
- 나대지(裸地) → 빈 집터
- 멸실(滅失) → 없어짐
- 삭도(索道) → 밧줄
- 적요란(摘要欄) → 참고란
- 금회(今回) → 이번
- 매물(賣物) → 팔 것, 팔 물건
- 부의안건(附議案件) → 토의 안건
- 시건장치(施鍵裝置) → 자물쇠 장치, 잠금장치
- 촉수엄금(觸手嚴禁) → 손대지 마시오.

나. 외래어

- 11) 즐겨 듣기는 하지만 일부러 카피한 건 아니다.
→
- 12) 운행 중에 라이트가 꺼지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
- 13) 터치하지 마십시오.
→
- 14) 한화는 해외 구단의 반응을 체크하는 한편
→
- 15) 올림픽 대표 위주의 젊은 선수들로 스타팅멤버를 구성하였다.
→
- 16) 20년 된 베테랑도 이것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린다.
→
- 17)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할 만한 상품 아이템이 있다.
→
- 18)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



19) 바이어나 판매자의 전시회 참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20) 그린색의 산뜻한 화장실

→



좀 더 알아보기

- 기브앤드테이크(give-and-take) → 주고받기
- 내레이션(narration) → 해설
- 넘버원(number one) → 으뜸
- 노하우(know-how) → 기술, 비결
- 다이어리(diary) → 일기, 일기장
- 라이벌(rival) → 맞수, 경쟁자
- 매스미디어(mass media) → 대중 매체
- 믹스하다(mix) → 섞다
- 백넘버(back number) → 등번호
- 밸런스(balance) → 균형
- 부킹(booking) → 예약
- 서비스차지(service charge) → 봉사료
- 쇼윈도우(show window) → 진열장
- 스탠더드(standard) → 표준, 기준
- 스프레이(spray) → 분무기
- 액세스(access) → 접근
- 에러(error) → 실수, 실책, 잘못
- 에피소드(episode) → 일화
- 인테리어(interior) → 실내 장식
- 제스처(gesture) → 몸짓
- 체크리스트(checklist) → 대조표, 점검표
- 카운슬링(counseling) → 상담



2.4.2. 외국어투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꾸기

1)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3) 국어에서는 조사 ‘가’에 의해 주어를, ‘를’에 의해 목적어를 나타낸다.

→

4) 가까이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진 않지만 조용하고 경치가 좋습니다.

→

5) 정혜 공주 묘는 남쪽에 입구를 가진 굴식돌방무덤이다.

→

6) 기회가 주어진면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7) 새로운 변화에 항상 앞장서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8) 선생님은 이 학생들에 대하여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

9) 한 대의 자동차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

→

10)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호르몬 분비 이상 증세를 보인다.

→



2.1.1.

- 1) 유도와 수영에서 금메달이란 값진 수확을 얻었다.
- 2) 글 쓰다가 날아간 정보를 재생하는 방법
- 3) 소문에 의하면 이 근처에 새로 학원이 생긴답니다.
- 4) 2008년 한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전래되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 6) 의병들은 왜병들이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진지를 급습했다.
- 7) 다음은 고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 8) 내면에 숨어있는 자아를 찾는 방법
- 9) 자유 게시판에서는 회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10) 연습을 해 두면 안 하는 것보다 수업을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 11)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12)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13) 사유가 있을 때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14)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5) 추석 연휴 동안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

2.1.2.

-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2) 감독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자.
- 3) 주식을 할 때 투자 정보를 얻는 곳.
-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체 회원이 찬성할 때에만 연임할 수 있다.
- 5) 법정 상속인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 6)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7) 뇌사자의 장기 제공에 관하여 유족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누가 우선권을 갖습니까?
- 8)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9)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 10) 이것은 발목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1.3.

- 1) 경기장에 있던 응원단은 모든 선수들에게 승리의 박수를 보냅니다.
- 2) 이 중 몇 대목에서 미심쩍은 돈 흐름을 찾아냈다.
- 3) 그는 미국 측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4) 일부러 감량을 시도했다. 처음엔 음식을 안 먹었다.
- 5) 정부 주도의 큰 행사보다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 6) 동교동계는 과거에 고생하신 분들이고 옛날에 쓰던 말이다.
- 7) 이 지도자들은 '카지노 파문'과 3연패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 8) 그동안 소수 음악 팬들의 취미 생활에 국한됐던 오페라.
- 9)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논의했다.
- 10) 식품·의약·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1.4.

- 1) 언제나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거의 반나절을 차 속에서 보낸 다음에야 시골에 도착하게 될 때가 많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들떠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터트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잠든 사이에 차는 시골 마을 어귀에 이른다.
- 2) 토요일은 휴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여유롭다. 무엇보다도 한가한 토요일 오후에 추억이 담긴 음악을 듣노라면 그 음악을 애청하던 시절의 분위기에 취하게 된다. 특히 꿈속에 빠져들 듯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되살아나는 옛날 분위기에 취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2.2.1.

- 1) ○○당 대표가 이 총재와의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 2) 아래의 사진은 이들이 배서한 수표의 사본이다.
- 3)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 4) 정부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살리기에 직접 나서
- 5)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끊임없이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 6) 어린 시절의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 7) 이 미술관은 ○○○ 선생이 그린/가진 그림을 모아둔 곳입니다.

2.2.2.

- 1) 이 동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다./말을 많이 키운다.
- 2) 농토에서 농민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 3) 이웃 거주자는 전 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
- 4)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 5) 약익의 점유자는 수취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2.3.

- 1)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의 오염도 실외보다 실내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 자살 방지 사이트 회원 3명 자살 기도
- 4)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배출한다.
- 5) 연 25%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전기세를 30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구단은 현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 9) 그 단체는 고발장을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 10)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1) 맑은 날 햇빛에 차를 비춰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페인트 색이 달라진다.
- 12) 같은 시각, 캐나다 유학 박람회장도 유학 희망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 13) 200년 전 배를 그대로 재현
- 14)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 15)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2.4.

- 1) 응시 자격: 만 30세 이하인 자
- 2)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
- 4)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 5) 규칙 중 아래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 7) 해당 지방 병무청이나 공만·항만 병무 신고 사무소에 제출할 것
- 8) 공원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
- 9) 농림부가 지난달에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못 찾아
- 10)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0년 이래 최고치인 4.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3.1.

- 1) 작년보다 수출량이 11.8%가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12.1%를 차지했다.
- 2) 기아자동차도 지난달 1만 6454대를 팔아 작년 8월보다 수출량이 25.2% 증가했다.
- 3)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서, 베트남은 7년간의 전쟁으로 북위 17° 선을 경계로 하여 분단되었다.



- 4) 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세기가 커지고 있다.
- 5) 독일인은 근면한 정신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럽의 최강자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 6) 내 임기 말까지는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상위권까지 올릴 계획이다.
- 7)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
- 8) 환경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하면 지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 9) 산업 시설과 인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
- 10) 정치 쟁점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1) 불안한 금융 시장도 동결에 '한뿔'
- 12)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공적자금 조성용 발행 채권 중 약 60%가 2003년에 집중적으로 만기된다.
- 14)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 15) 그의 말은 사랑에서 비롯하지 않을 때가 없다.
- 16)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17) 김미현은 올해 들어 24차례 도전한 끝에 우승했다.
- 18) 공식 회담에서 처음 대면할 경우 주의할 점
- 19) 한국은 84년 은메달을 딴 이후 16년 만에 메달을 노리게 됐다.
- 20) 제2금융권의 부실이 훗날 은행에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3.2.

- 1) 영식이 어머니는 “오늘 고향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다.
- 2)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도
- 3)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자.
- 4) 의약 분업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을가요.
- 5)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경무대”로 명명하고 집무실 겸 관사로 사용하였다.
- 6) 서울의 남서부에는 각종 공업이 발달해 있다.
- 7) 남서 계절풍은 비를 많이 내리게 하여 농업에 영향을 준다.



- 8) 머리와 상체를 가슴까지 끌어당겨 5초간 유지다가 편다.
- 9) 상대도 지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만큼 나도 승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10) 나는 2000년 8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01년 3월에 퇴임했다.

2.3.3.

- 1)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2)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다.
- 3)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유지할 수 없을 때
- 4) 비핵화 선언은 한반도 핵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5) 1백만 원을 입금하고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 6) 조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정치 공세
- 8) 냉동육으로 속여 병원 등의 구내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9)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단순히 '고발 사건 처리'에 국한하지 않았다.
- 10) 철거한 뒤 그 자리를 옛 모습대로 복구하였다.
- 11) 심사단이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 12) 이 난의 화신은 질의 당시의 법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13) 본 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고, 욕설, 비방 등 관련 없는 내용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4) 당뇨병은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 15) 질화로의 재가 식으면 내용물을 꺼낸다.
- 16) 자금이 어디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 17) 인습은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찌꺼기이다.
- 18) 북한에서 기능공은 기술노동자로 불린다.
- 19) 잊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 20) 흔들리면 내용물이 섞이게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4.1.

- 1)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듯한 종잡을 수 없는 이미지들
- 2) 요즘 출연 제의를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 3)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 곧 사법 처리기로 했다.
- 4)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함.
- 5) 해당 시설은 청구인이 보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팻말 등을 설치함.
- 6) 명패를 비치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차고 다니겠습니다.
- 7)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8) 속임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 9) 도시 지역의 오존 오염 줄이기 대책
- 10)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1) 즐겨 듣기는 하지만 일부러 복사한 건 아니다.
- 12) 운행 중에 조명등이 꺼지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 13) 손대지 마십시오.
- 14) 한화는 해외 구단의 반응을 점검하는 한편
- 15) 올림픽 대표 위주의 젊은 선수들로 선발 선수를 구성하였다.
- 16) 20년 된 숙련공도 이것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린다.
- 17)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할 만한 상품 소재가 있다.
- 18)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 19) 구매자나 판매자의 전시회 참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20) 산뜻한 녹색 화장실

2.4.2.

- 1) 지금 열차가 도착합니다.
-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3) 국어에서는 조사 '가'로 주어를, '를'로 목적어를 나타낸다.



07. 문장 바르게 쓰기 ○○○ 유하라

- 4) 가까이 바닷가가 있지만 조용하고 경치가 좋습니다.
- 5) 정혜 공주 묘는 남쪽에 입구가 있는 굴식돌방무덤이다.
- 6)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7) 새로운 변화에 항상 앞장서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8) 선생님은 이 학생들에게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 9) 자동차 한 대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
- 10)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호르몬 분비 이상 증세를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편(1999, 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2,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0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권영민(2003), 우리 문장 강의, 신구문화사.
권정숙(2008), 언론 문장의 이해,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김희진(2008), 공문서 쓰기의 실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박동규(2001), 글쓰기를 두려워 말라, 문학사상사.
이대성(2008), 우리말 다듬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이정미(2008), 공문서 쓰기의 이해,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조경숙(2008), 공문서 바로 쓰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 김 길 동(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문학박사)

1. 우리말 다듬기의 개념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국어 순화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고유어로 재정리한다는 것과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바른 말로 쓰자는 것이었다. 또한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하였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순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2.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서 시작하여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까지 이어졌다. 과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절로 서양식 외국어를 쉽게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빈번하게 쓰면 외국어 교육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순수 우리말 쓰기가 오히려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까지도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다듬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서와 정신과 얼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르므로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후손에게 물려 줄 값진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질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전승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은 자국어어를 통해 각기 특이한 민족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영국이 인도는 내어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갈고 닦아 훌륭한 영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다듬는 이유는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훌륭한 민족 문화를 창조·발전하려는 데 있다.

언어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어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兩班)’이란 말이 생겨났고, 장인(丈人)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丈家)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말이 횡행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면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국어를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씀으로써 사회적 정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우리말 다듬기는 언중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말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갖고 닦아 아름답고 풍부한 보고(寶庫)로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앞에서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은 ① 순수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② 쉬운 우리말이 아닌 난해한 한자어, ③ 바른 우리말이 아닌,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 ④ 고운 우리말이 아닌, 비속한 말이나 표현 등이 된다.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인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외국어 중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착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래어라고 모두 다듬을 수는 없고 다듬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나 지금까지 불편 없이 써왔던 외래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왔던 외래어를 다듬을 경우 다듬은 말이 오히려 생소하여 새롭게 익히는 데 불편하다면 현실적인 수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즉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구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구 외래어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빨리 대처하면 다듬은 말을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

① 순수 우리말 쓰기와 ② 쉬운 우리말 쓰기에서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등의 어휘를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다면 ③ 바른 우리말 쓰거나 ④ 고운 우리말 쓰기에서는 표기, 발음, 문장 등과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우리말 다듬기의 실제

4.1. 일본어 잔재

청산해야 할 일본어 잔재로는 순수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 등을 들 수 있다.

4.1.1. 순수 일본어

그동안 일본어는 거의 대부분 순화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인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등으로 국어는 강제적으로 말살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의 자긍심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민족정신마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76년 ‘국화 순화 세칙’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를 어원으로 하는 외래어는 아주 바꾸어서 먼저 것을 쓰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하고도 줄기차게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이제 공식 석상의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가 우리말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와 일본어 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2005년은 광복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원은 광복절을 즈음하여 8월 한 달간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일본어 잔재를 찾아 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어 잔재로 첫 번째 다듬을 말로 선정한 것은 ‘후카시’였다. 후카시는 현재 분야에 따라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엔진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일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쓴다. 반면 미용 분야에서는 머리를 부풀어 올려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일이나 그런 머리를 가리킬 때 쓴다. 그런데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이와 약간 다르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는 별 볼일 없으면서도 남에게 대단하거나 멋있어 보이도록 외모나 말, 행동을 과장하는 따위의 일을 속되게 가리킬 때 쓴다. 후카시와 같이 우리 언어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본어

기스(傷, きず) → 흠, 흠집, 생채기

무뎃뿌(無鐵砲, むてっぽう) → 막무가내



단도리(段取, だんどり) → 채비, 단속
 땡깡(癪癪, てんかん) → 생떼
 잇파이, 잇빠이(一杯, いっぱい) → 가득, 한껏
 가라(假, がら) → 가짜
 곤조(根性, こんじょう) → 본성, 심지
 쇼부(勝負, しょうぶ) → 흥정, 결판
 신뽕(新品, しんぴん) → 신출내기, 새내기
 히키, 빼끼(引, ひき) → 끌기
 유도리(ゆとり) → 융통, 여유
 나라비/나래비(ならび) → 줄 서기

● 식생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

와사비(山葵, わさび) → 고추냉이
 사라(皿, さら) → 접시
 소바(蕎麥麵, そば) → 메밀국수
 다마네기(玉葱, たまねぎ) → 양파

● 봉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

땡땡가라(點點柄, てんてんから) → 물방울무늬
 에리(襟, えり) → 깃
 나시(袖無, そでなし) → 민소매
 우와기(上衣, うわぎ) → 윗옷, 양복저고리

●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

가꾸목(角木, かくぎ) → 목재, 각재
 구루마(車, くるま) → 손수레, 달구지
 도기다시(研出し, とぎだし) → 갈아닦기, 윤내기
 시타바리(下張り) → 보조원, 밑일꾼
 노가다(土方, どかた) → (공사판) 노동자, 막일꾼, 인부



4.1.2. 일본식 한자어

단지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로 다듬기에는 이미 국어 속에 자리 잡은 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개화기에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와 이제는 완전히 국어가 된 ‘경제’, ‘사회’, ‘정당’ 따위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래 있던 우리말 대신에 자리 잡은 ‘美人(← 一色)’, ‘約束(← 言約)’, ‘化粧(← 丹粧)’ 등도 우리말 한자어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식 한자어는 선별적으로 다듬기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그 속성상 순수 일본어와 유사한 것은 다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봉(假縫, かりぬい) → 시침질
 고참(古參, こさん) → 선임자, 선참자
 노견(路肩, ろかた) → 갓길
 망년회(忘年會) → 송년 모임, 송년회
 십팔번(十八番) → 단골 노래, 단골 장기
 제전(祭典) → 잔치, 축전
 거래선(去來先, きょらいさき) → 거래처
 견출지(見出紙) → 찾아보기 표
 과물(果物, くだもの) → 과일 / 기라성(綺羅星) → 빛나는 별
 대절(貸切, かしきり) → 전세 / 사양(仕様) → 설명, 설명서, 품목
 수출고(輸出高) → 수출량 / 익일(翌日) → 다음 날, 이튿날

4.1.3.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구 외래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일본어로 잘못 알고 쓰는 영어가 참 많다. 일본을 통하여 일본어식 발음으로 들여와서 쓰다 보니 본래의 영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것이다.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는 크게 달라 원래의 영어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라다(salad) → 샐러드
 쓰레빠(slipper) → 실내화, 슬리퍼
 마후라(マフラー, muffler) → 목도리, 머플러, 소음기
 공구리(コンクリート, concrete) → 양회반죽, 콘크리트



바케쓰/바께스(バケツ, bucket) → 양동이

후로쿠(ふろく, fluke) → 엉터리, 어중치기

밤바(バンパー, bumper) → 완충기, 범퍼

이런 일본어식 발음의 영어는 대개 일제 강점기 때에 유입된 말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속어로 둔갑하여 널리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로쿠’이다. 이 말은 본래 영어 ‘플루크(fluk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일본어식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후로쿠’, ‘후룻쿠’, ‘후루꾸’, ‘후로꾸’, ‘뽀로꾸’, ‘뽀록’ 등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서구 외래어로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예들은 다음과 같다.

고로케/고룻케(コロッケ, 프. croquette) → 크로켓

쓰봉(프. jupon) → 양복바지

엑키스/에키스(네. extract) → 진액

4.1.4. 일본에서 만든 영어

‘올드미스(old miss) → 노처녀’, ‘리어카(rear car) → 손수레’, ‘백미러(back mirror) → 뒷거울’ 등은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로 영어에는 없는 것들이다. 이 밖에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난닝구(ランニソグ, running shirt) → 러닝셔츠

도란스(ドランス, transformer) → 변압기

빵꾸(パンク, puncture) → 구멍 내기, 구멍 나기, 펑크

스텝(ステン(レス), stainless) → 스테인리스

오바(overcoat) → 외투, 겹옷, 오버코트

미손(トランスミッション, transmission) → 변속기, 트랜스미션

빼빼(sandpaper) → 사포

쇼바(shock absorber) → 완충기

레미콘(レミコン, ready-mixed concrete) → 양회 반죽, 양회 반죽 차



4.1.5. 일본어가 섞인 말

일본어가 섞인 말에는 일본어와 서구 외래어가 뒤섞인 말과 우리말과 일본어가 뒤섞인 말이 있다.

● 일본어와 서구 외래어가 뒤섞인 말

가라오케(空(から) orchestra) → 노래방, 녹음 반주
만땅(滿(まん) tank) → 가득, 가득 참
한쓰봉(半(はん) 프. jupon) → 반바지

● 우리말과 일본어가 뒤섞인 말

닭도리탕(-鳥(とり)湯) → 닭볶음탕
비까번쩍하다(ぴか----) → 반짝반짝하다
뽀록(檻褻(ぼろ)나다) → 들통나다, 드러나다
곤색(紺(こん)色) → 감색, 검남색
왔다리 갔다리(-たり-たり) → 왔다 갔다

4.2. 어렵거나 낯선 한자어

사회 각 분야, 특히 공직 분야에서는 여전히 어렵거나 낯선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다음은 사회 각 분야에서 쓰이는 한자어들이다.

● 행정 용어

해태(懈怠) → 게으름, 태만
촉수엄금(觸手嚴禁) → 손대지 마시오
향수하다(享受-) → 받다, 누리다

● 경제 용어

연불 수출(延拂輸出) → 외상 수출
인허율(認許率) → 인정 비율



● 지하철 운전 용어

기적 취명(汽笛吹鳴) → 기적 울림

궤조(軌條) → 철로, 레일

● 건설 용어

삭도(索道) → 밧줄, 하늘 찾길.

● 전기 전자 용어

시건(施鍵) → 잠금, 잠금 장치

혼촉(混觸) → 잘못 이음

4.3. 서구의 외래어 · 외국어

우리 언어생활 속에 이미 많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의 중계방송을 듣고 있으면 그 속에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넘쳐나고 있다.

포백 시스템(four-back system) / 롱 킥(long kick)

스루 패스(through pass) / 원 톱(one top)

프리킥(free kick) / 미드필더(mid-fielder)

오프사이드(off side) / 코너킥(coner kick)

축구 용어의 경우 남한에서는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는 ‘헤딩 → 머리받기’, ‘프리킥 → 벌차기’, ‘슛 → 차넣기’, ‘패스 → 연락’처럼 다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밖에 남한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들 중 북한에서 다듬은 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크 → 손기척 / 드라이크리닝 → 마른빨래

카스테라 → 설기과자 / 원피스 → 달린옷

주스 → (찬)단물



어찌 보면 북한의 말 다듬기, 특히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 다듬기는 남한의 우리말 다듬기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하여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국어는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모기지 론(mortgage loan)’ 따위처럼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유행어로 떠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이런 말이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 동사와 더불어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 부류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형용사를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컬러풀하다’, ‘스마트하다’, ‘와일드하다’, ‘로맨틱하다’, ‘타이트하다’ 따위의 영어 형용사를 빌려다 썼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 형용사를 다량으로 빌려다 쓰고 있고 우리말의 여느 형용사처럼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영어 형용사가 빈번하게 쓰이기도 한다.

● 영어 형용사에 ‘-하다’가 붙은 말

글래머러스하다, 글로벌하다, 보이시하다, 센세이셔널하다, 원더풀하다, 프로페셔널하다, 드라마틱하다, 트렌디하다, 쿨하다, 터프하다, 빈티지하다, 앤티크하다, 미니멀하다

● 영어 형용사가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경우

스마트 폭탄, 슬림형, 글로벌 예산, 클린 산업

특히 최근에는 국가 기관의 이름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영어 약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가 기관의 영어 약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언론 기관의 영어 약자: DJ, MB, EBS

경제계의 영어 약자: KT&G, LG

연예계의 영어 약자: SS501, SG워너비

일상생활의 영어 약자: 셀카, 디카, UCC(User Created Contents)

최근 새로 생기는 직업의 이름, 기업이나 지역의 홍보 문구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는 국어를 홀대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언어 사대주의나 국어는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권위주의 때문이다. 언어 사대주의나 언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말을 경시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

4.4. 인터넷 언어

우리말 다듬기 속에는 변형된 우리말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최근 많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통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대어 변형된 우리말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

안냐세요(안녕하세요) / 방가(반가워요) / 어쵸요(어서 오세요)

조아(좋아) / 부니기(분위기) / 마니(많이) / 쌤(선생님)

인터넷 언어 초기에는 ‘머시따(멋있다)’, ‘절머(젊어)’, ‘마니(많이)’처럼 우리말의 복잡한 받침을 없애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쌤(선생님)’, ‘방가(반가워요)’, ‘어쵸요(어서 오세요)’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분을 줄인 말이 자주 쓰였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자판을 칠 수 있어서 사용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 언어에는 이와 달리 이상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빈번히 있다. ‘친구’나 ‘아니지’로 쓰지 않고, ‘튀구’, ‘아니쥬’로 쓰는 것이다. 아마도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신세대는 이런 형태의 말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헿헿’, ‘뽕’과 같은 이상한 신조어와 ‘KIN(즐)’과 같은 이하하기 어려운 표기도 모두 이러한 경향 때문인 듯하다. 게다가 요즘은 ‘너無’, ‘빠2’, ‘밥5’처럼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ㄱㅅ(감사)’, ‘츄ㅋ(추카 ← 축하)’, ‘ㄱㄷㄱㄷ(키득키득)’처럼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은 것들이 있다.



이렇듯 인터넷 언어가 점차 우리말 파괴적인 성격을 띠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언어 변화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인데 인터넷 언어가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언어는 극히 제한된 은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한정해서 신세대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라서 일상 언어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의 인터넷 언어는 대부분 말장난의 하나로서 언어유희에 가깝다. 우리 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 말을 적는 일은 다분히 우리말 파괴적이다.

게다가 요즘의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의 일상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글에서도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신세대는 그러한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언어는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덧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언중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인터넷 언어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4.5. 비속어와 은어

최근 들어 욕설, 비속어가 신세대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엇나간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나 쓸 수 있던 말이 욕설과 비속어였다. 그런데 이젠 버스나 지하철에서 거리낌 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여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신세대들 사이에서 ‘존나 쪽팔린다’는 더 이상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일상어의 대접을 받고 있다.

2005년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도 고등학생들 대부분(76.4%)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신세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어 언어학자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는 ‘언어 상대 가설’을 세워 언어가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욕설이나 비속어 또한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욕설이나 비속어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있는 신세대의 인격·정서 형성에 주는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크다.

우리나라 신세대, 즉 청소년은 인터넷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통신 공간의 익명성은 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요즘 신세대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욕설, 비속어, 은어들의 예이다.

● 욕설

붕신(←병신) / 덜아이(←포라이) / 존나(매우)

● 비속어

쉐이(새끼) / 뽕세다(고되다) / 뽕까다(거짓말하다)
썰까다(모른 척하다) / 똤지다(죽다) / 씹다(대꾸하지 않다)

● 은어

깔(여자 친구) / 깔따구(남자 친구) / 까대기(이성 친구를 유혹하는 일)
담탱이(담임선생) / 썰끈하다(멋지다) / 뽕(기념식)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또한 언어폭력의 하나이다. 언어폭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크게 어긋난다. 게다가 언어폭력은 그 피해가 궁극에 가서는 가해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



4.6. 신조어

신조어를 살피다 보면 때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신조어와 관련된 우리의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무녀독남(無女獨男)’은 ‘무남독녀(無男獨女)’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 자식을 하나만 낳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새로 생겨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제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 왔던 말이었으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한편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무매독자(無媒獨子)’라는 말은 이미 사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엄연히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 단어들은 신조어에 밀려 사전 속에서 사장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귀차니스트/귀차니즘’, ‘얼짱/얼짱’, ‘당근이다’, ‘꽃미남’ 등과 같은 신조어는 일반인도 이를 널리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말이 적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신조어의 남발이 우리말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들의 ‘귀차니즘’이 생활가전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정환보다 더 멋진 ‘얼짱’ 축구선수가 됐을 것이다. -세계일보

‘귀차니스트’, ‘귀차니즘’은 ‘귀찮다’라는 우리말에 영어 접사인 ‘-ist’, ‘-ism’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말이다. ‘얼짱/얼짱’은 ‘얼굴 짱/얼굴 짱’이라는 어구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준말인데 이 또한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들은 신세대가 단지 남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우리말 어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그런데 방송과 언론에서 이렇듯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신세대의 신조어를 예사롭게 쓰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방송과 언론에서 이런 신세대의 신조어를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어긋나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신조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몰래 카메라’, ‘홀로노인’, ‘깜짝쇼’, ‘깜짝세일’ 등이 있다. 이렇게 부사에 명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 방식과 어긋나서 부자연스럽다.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오래전부터 써 오던 우리말에 ‘따로국밥’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먹자골목’, ‘막가파’, ‘묻지마투매’ 등은 동사의 활용형 뒤에 명사나 접미사를 결



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크게 어긋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장항동 ‘먹자골목’ 주변 바(Bar)형태의 일
반음식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등 잘못된 영업행위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자유로포럼

1996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사건의 주범 최정수도 사형수 신분으로 13
년째 복역 중이다.

-일요신문

지금 금융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다 못해 ‘묻지마투매’에 나서고 있
으며.....

-한국경제신문

신조어의 생성은 사실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신조어 가운데 몇몇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말
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내기’, ‘도우미’, ‘빨래방’ 등은 생성된 지
십여 년을 넘겼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완전한 우리말로 정착하였다.

이렇듯 신조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고 우리말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
라도 마구잡이로 신조어를 양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방송과 언
론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더 신조어의 사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4.7.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 표현

우리말 다듬기의 핵심은 잘못된 어휘를 고쳐 쓰는 것이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
니다. 문장 차원에서 번역 투 표현이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됨은 앞에서도 말하였다.
외국어 투 문장은 소리 없이 우리말을 갉아먹고 있다.

● 영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글 쓰는 이의 평소 생활 자세의 진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
다(‘It is not too much to……’의 영향).

→ 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②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about'의 영향).
→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be located in'의 영향).
→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 ④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
→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 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have'의 영향 We have much rain).
→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 ⑥ 공격 찬스가 주어지면 기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be given'의 영향).
→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⑦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be required of'의 영향).
→ 새로운 경제부처들은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 ⑧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from'의 영향).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⑨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be ~ing'의 영향).
→ 지금 열차가 도착합니다.
- ⑩ 좋은 아침('Good morning'의 직역)!
→ 안녕(하세요)!

● 일본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 ②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
- ③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주어적 속격 '-의'와 '-의'의 남용).
→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 ④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풍토)이다.
- 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임에 틀림없다.
→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틀림없다.



● 그 밖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의하여’는 낡은 한문투이고 ‘-을 가지다’는 영어 ‘have’의 번역 투이다).

5. 우리말 다듬기의 방향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순수성’,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꾼 일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2003년부터 일본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순수 우리말 쓰기’와는 다르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하여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는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치기보다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신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처럼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언어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



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좀 더 명확한 표현, 아름다운 표현 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듬은 말이 본래의 뜻을 정확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단어 구성이 복잡하고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낭비가 된다. 그리고 다듬은 말이 외래어를 단순 번역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단어를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것 또한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시기 적절성과 쌍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널리 쓰여 굳어져 버린 후에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효용성은 떨어지고 언중들의 혼란이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은 일상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다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의 시기 적절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상향식, 쌍방향식, 자율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결과이므로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우리말 다듬기의 예들이다.

웰빙 → 참살이 / 이모티콘 → 그림말

올인 → 다걸기 / 콘텐츠 → 꾸림정보



네티즌 → 누리꾼 / 포스트잇 → 붙임쪽지
 드레싱 → 맛갈장 / 뉴타운 → 새누리촌
 언론플레이 → 여론몰이 / 핫팬츠 → 한뼘바지
 투잡 → 겹벌이 / 헝그리정신 → 맨주먹정신
 메신저 → 쪽지창 / 타임서비스 → 반짝할인
 웹서핑 → 누리검색 / 타임캡슐 → 기억상자
 워터파크 → 물놀이공원 / 뷰파인더 → 보기창
 리플 → 댓글 /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콘텐츠 → 꾸림정보 / 방카쉬랑스 → 은행연계보험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 퀵서비스 → 늘찬배달
 로밍 → 어울통신 / 컬러링 → 멋울림
 와이브로 → 휴대누리망 / 브랜드 파워 → 상표 경쟁력
 음부즈맨 → 민원도우미 / 터프가이 → 꽤남아

이상과 같이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아무리 좋은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언중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듯이 다듬은 말에 대한 전 국민의 실제적인 사용 절차가 있어야 우리말 다듬기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말 다듬기의 결과를 정규 교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하거나 교육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용찬(2005), 우리말이 아파요, 해냄.
- 이대성(2008), ‘우리말 다듬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3), 국어순화자료집.



국어문화학교

✿ 김 형 배(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팀/문학박사)

1. 훈민정음의 창제

1.1. 창제 시기

(1) 시기: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 창제 (반포: 1446년 9월)

(2) 근거

㉠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25년(1443) 12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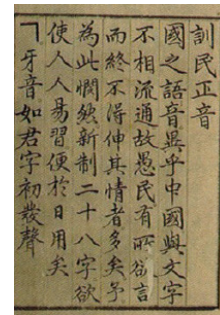
(“이달에 임금께서 직접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 “是月 訓民正音成……” (〈세종실록〉 28년(1446) 9월 조)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

㉢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 …… 正統十一年 九月 上漸 ……” (〈訓民正音 (해례본)〉 정인지 序)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만드셨는데, ……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 정통 11년 9월 상한 ……”)



1.2.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

(1) 본문 - 예의(例義)

㉠ 어제 서문(御製 序文): 창제의 동기와 목적

㉡ 예의(例義)

- 자음과 모음의 음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음가)
- 자음과 모음의 운용(→ 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에 관한 규정)
- 성음법과 사성점(→ 음절을 이루는 법과 음의 고저 표시법을 밝힘)



(2) 해례(解例)

- ㉠ 제자해(制字解):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자모음 체계, 음상 등에 대한 설명
- ㉡ 초성해(初聲解): 동국정운 23초성 체계에 따른 자음 설명
- ㉢ 중성해(中聲解): 중성의 규정과 이중 모음에 대한 설명
- ㉣ 종성해(終聲解): 종성의 본질과 ‘8종성가족용’, 사성(四聲) 등에 대한 설명
- ㉤ 합자해(合字解):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가 됨을 설명, 성조에 대한 설명
- ㉥ 용자례(用字例): 실제 사용의 예를 낱말 95개를 들어 설명

(3) 정인지 서(序): 훈민정음 창제 취지와 경위, 의의, 가치 등을 밝히고, 편찬자, 창제 시기와 완성 시기가 밝혀져 있음.

1.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글자 체계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1) 초성의 제자 원리

- ㉠ 기본자: 상형(象型)의 원리 (발음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뜨고,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을 본뜨고,
 입술소리 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 ㄷ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 ㄹ은 목의 모양을 본떴다.”

- ㉡ 그 밖의 글자: 가획(加劃)의 원리

ㄱ → ㅋ

ㄴ → ㄷ → ㅌ (ㄷ → ㄹ)

ㅁ → ㅂ → ㅍ

ㄷ → ㅈ → ㅊ (ㄷ → ㅊ)

ㅇ → ㆁ → ㆏ (ㅇ → ㆏)

- ㉢ 예외: 이체자(異體字) / ㆏, ㆏, ㆏ (획을 더하는 뜻은 없음.)

초성					중성		
이름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ㄷ, ㅌ	ㄹ	一	平	象乎地
脣音	ㅁ	象口形	ㅂ, ㅍ				
齒音	ㄷ	象齒形	ㅈ, ㅊ	㆏	丨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ㆁ, ㆏				



(2) 초성 17자의 체계

조음방법 조음위치 조음세기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 (不淸不濁)	전탁(全濁)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
엄소리[牙音]	ㄱ	ㅋ	ㅇ	ㆁ
혀소리[舌音]	ㄷ	ㅌ	ㄴ	ㄸ
입시울소리[脣音]	ㅂ	ㅍ	ㅁ	ㅃ
니소리[齒音]	ㅅ, ㅆ	ㅈ		ㅊ, ㅍ
목소리[喉音]	ㅇ	ㅎ	ㅇ	ㆁ
반혀소리[半舌音]			ㄴ	
반니소리[半齒音]			ㄷ	

(3) 천지의 이치

오음 (五音)	자음 (子音)	오행 (五行)	오季 (계절)	오음 (음악)	오方 (방위)	오색 (五色)	사단 (四端)	오감 (五感)	오장 (五臟)	오부 (五部)
牙音	ㄱ, ㅋ, ㅇ	木	봄	角	東	靑	仁	따뜻함	간장	쓸개
舌音	ㄷ, ㅌ, ㄴ, ㄸ	火	여름	徵	南	赤	禮	더움	심장	소장
脣音	ㅂ, ㅍ, ㅁ	土	늦여름 (季夏)	宮	中央	黃	信	미지근함	비장	밥통
齒音	ㅅ, ㅆ, ㅈ, ㅊ	金	가을	商	西	白	義	서늘함	폐장	대장
喉音	ㅇ, ㅎ, ㆁ	水	겨울	羽	北	黑	智	차가움	신장	방광

(4) 중성의 제자 원리

㉠ 기본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 一, 丨)

기본자	상형	혀의 모양	소릿값
·	天	舌縮	聲深
一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丨	人	舌不縮	聲淺

㉡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 초출자(初出字): ㄱ, ㄷ, ㅂ, ㅅ
- 재출자(再出字): ㅋ, ㅌ, ㅍ, ㅈ



(5) 종성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1.4. 문자의 운용

(1) 연서법(連書法, 니서쓰기)

순경음을 표기하는 방법: 순음(口, ㅂ, ㅃ, ㅍ) 아래에 ㅇ을 붙인다. → 순경음(ㅁ, ㅂ, ㅃ, ㅍ)

ㅁ은 순수 국어에만 사용, 그 밖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사용.

세종, 세조 때만 사용되고 소멸

(2) 병서법(竝書法, 곁바쓰기)

둘 이상의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철자법

㉠ 각자병서(各自竝書): 같은 자음을 반복해서 쓰는 법: ㄱ, ㄷ, ㅃ, ㅈ, ㅉ, ㅊ, ㅌ, ㄴ

㉡ 합용병서(合用竝書):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법: ㅃ, ㅈ, ㅉ, ㅊ, ㅌ, ㅊ, ㅌ, ㅊ, ㅌ ; ㅈ, ㅉ, ㅊ, ㅌ ; ㅈ, ㅉ, ㅊ, ㅌ

(3) 부서법(附書法, 브터쓰기)

“·와 一와 ㄱ과 ㄷ과 ㅂ와 ㅈ와 ㅉ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쓰고 ㅌ와 ㅊ와 ㅋ와 ㆁ와란 올흔녀기 브터쓰라.”

자음에 모음을 합하여 한 글자(음절)가 되도록 붙여 쓰는 법

㉠ 하서(下書): 초성 + ·, 一, ㄱ, ㄷ, ㅂ, ㅈ, ㅉ

㉡ 우서(右書): 초성 + ㅌ, ㅊ, ㅋ, ㆁ

(4) 성음법(成音法)

“물읏 字 쯡 ㅌ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凡字必合而成音)

(5) 사성점(四聲點)

“원녀기 ㅎ 點덤을 더으면 ㅈ노픈 소리오 點덤이 둘히면 ㅈ쌍聲성이오 點덤이 업스면 ㅈ평聲성이오 ㅈ입聲성은 點덤 더우면 ㅎ가지로되 ㅈ씩니라.”



우리 글자 이름의 변천

- ㉠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
- ㉡ 정음(正音): 정인지의 서문. ‘훈민정음’을 줄인 말.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 언문(諺文): ‘언(諺)’은 ‘우리말·우리글’의 뜻으로 훈민정음 이전부터 쓰이다가 훈민정음 이후 ‘정음’의 뜻으로 쓰임 <훈민정음 해례>에 나옴. 「세종실록」에 ‘언문칭’이란 말이 나옴.
- ㉣ 언서(諺書):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한 데 대한 대립어
- ㉤ 반절(半切): 최세진의 ‘훈몽자회’. 중국 운학의 반절법에서 유래(東 = 德洪切)
- ㉥ 암글: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 선비가 쓸 만한 글은 되지 못한다.
- ㉦ 상말글: 한문은 양반이 쓰는 글이고 한글은 상놈들이나 쓰는 글이라는 뜻에서 붙임.
- ㉧ 한글: 1910년 주시경에서 비롯함. 1927년 <한글>지에서부터 널리 쓰임. ‘한’은 ‘하나’ 또는 ‘큰’의 뜻. 우리글을 언문이라 낮추어 부른 데 대해 정당한 우리말 표기 글자란 뜻으로 권위를 세워 준 이름.

2. 한글의 우수성

2.1. 창제 원리의 측면

(1) 독창성

- ㉠ 상형의 원리: 기본자를 발음기관과 관련시킴.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과 같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과 땅, 사람(천·지·인 삼재)의 생김새를 본떠 독창적으로 창제함.
- ㉡ 신제(新制) 문자: 1443년 음력 12월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 탄생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

(2) 조직성

- ㉠ 이원적 구성과 가획의 원리: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파생시켜 그 밖의 글자를 만들.
- ㉡ 계열적 구성: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의 모양에서도 비슷하



게 묶음. 기본자와 그 밖의 글자들 간의 음성학(음운학)적 관계 파악. 배우기 쉽고 쓰기 쉬움.

(3) 개방성과 경제성

- ㉠ 글자 추가 가능: 초성 기본자 5글자(ㄱ, ㄷ, ㄹ, ㄴ, ㅇ)와 중성 기본자 3글자(·, 一, 丨)를 바탕으로 가획, 병서, 연서 등의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 문자 활용 극대화: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많은 소리마디[음절]를 만들어 냄.
 - 옛글자 활용 399억 자 조합, 현재 24자모로 11,172자 조합 가능.
 - 문서편집기에서 완성형 50만 자 활용.
- ㉢ 발음기호로 활용 가능: 소수 민족에게 글자 보급, 문맹인 교육, 외계인과의 교신 등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음.

2.2. 활용의 편리성 측면

(1) 모아쓰기 방식

- ㉠ 훈민정음 해례의 부서법(브터쓰기)에 따름.
- ㉡ 모아쓰면 뜻을 알기 쉬워서 독서에 능률적이고, 풀어쓴 것보다 한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한자와 한글이 음절단위로 일대일 대응을 이루어 한자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때 편리함.

[참고] 문자의 발달: 그림 문자 → 상형 문자 → 표의 문자 → 음절 문자 → 음소 문자 → 자질 문자(한글)
- ㉣ 가로 쓰거나 세로 쓰기로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2) 기계화와 정보화

- ㉠ 컴퓨터의 2진수 0과 1 : 한글의 자음과 모음
- ㉡ 컴퓨터에서 입출력이 자유로워 문서편집기(워드프로세서) 발달
 - 한정된 자모 입력으로 수많은 완성된 글자 자동 출력

-



● <읽을 거리> 한글의 과학성과 미래

한글은 탄생 기록을 가진 유일한 문자로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그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글 창제의 원리 등을 밝혀 놓은 책인 ‘훈민정음’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989년 6월에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맹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인데, 이 상은 한글 창제와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문맹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 상의 이름에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의 한글이 그만큼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을 없앨 수 있는 우수한 글자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도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 덕분이다. 또한, 외국의 어린 아이가 취미 삼아 배워서 자기네 말을 한글로 적어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이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의 권위 있는 언어학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훌륭한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작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글 창제의 원리와 그 구조를 통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확인해 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①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었는데 그 창제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라는 기록이 있다. 한글은 다른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과 같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과 땅, 사람(천·지·인 삼재)의 생김새를 본떠 독창적으로 창제한 문자이다.

초성[자음]의 경우 기본 글자는 다섯 글자이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헛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을, 입술소리 ㅁ은 입 모양을,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목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만 보고서도 그 글자가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그 음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ㅁ, ㅂ, ㅍ’은 모두 입술소리인데 글자의 모양에 똑같이 ‘ㅁ’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남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세계에서 하나뿐인 소리글자



이다. 이 점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다. 중성[모음]의 기본자는 ‘·, 一, 丨’ 세 글자인데, 이것 또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를 만들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一’를 만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丨’를 만들었다.

한글 창제의 그다음 원리는 ‘가획의 원리’이다. 기본자인 초성 다섯 글자와 중성 세 글자에 획을 더해 가며 나머지 글자를 파생시켜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28글자를 제각각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자를 바탕으로 파생자를 만들어 이원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 그어가며 파생된 것이므로 기본자와 파생 글자들이 음성학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만큼 글자를 쉽고도 체계적으로 익힐 수가 있다. 알파벳은 A에서부터 Z까지 26개의 글자를 낱낱이 외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글은 그보다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문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 “슬기로운 이는 아침 먹기 전에,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거짓은 아니다. 또한,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라고 하여, 한글을 ‘아침글’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가획의 원리와 이원적 구성에 의한 글자의 창제는 한글을 매우 체계적인 글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자 학습에서도 우리 뇌의 기억 부담을 줄여 주어 배우고 활용하기에도 매우 쉽게 한다.

그런데 획을 더 그어가며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획을 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도 뜻이 담겨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본 글자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획을 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획을 더한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 뜻은 ‘소리가 세진다’는 것이다. ‘농고’라는 말을 소리 내 보면 [노코]로 소리 나는데, [코]에서 ‘ㄱ’은 ‘ㅎ’과 ‘ㄱ’이 합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ㅋ’은 ‘ㄱ’보다 ‘ㅎ’만큼 소리가 세다는 뜻이다. 또한, 모음의 경우에도 기본 글자 ‘·, 一, 丨’를 서로 어울려서 ‘ㅏ, ㅑ, ㅓ, ㅕ’를 만들고[초출자], 여기에 ‘·’를 하나씩 더하여 ‘ㅛ, ㅜ, ㅠ, ㅡ’[재출자]를 만들었다.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던 모음[단모음]이 글자의 모양에 ‘·’를 더함으로써 발음할 때는 반모음 ‘ㅣ’가 개입되어 입 모양이 변하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다. 다른 나라 글자들에서도 가획한 글자가 발견되지만 획을 더한 의미가 있는 글자는 한글뿐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기본자에서 그 밖의 글자가 파생되는 이원적 구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계열적 구성’을 이루고 있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즉,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의 모양에서도 비슷하게 묶였다. 자음에서 어금닛소리 ‘ㄱ, ㅋ, ㆁ’은 모두 뒤혀가 여린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데 그 글자의 모양들 역시 서로 비슷하다. ‘ㄴ, ㄷ, ㄸ’은 설음



다음으로, 한글은 무한한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성 다섯 자(ㄱ, ㅋ, ㆁ, ㆁ, ㅇ)와 중성 세 자(·, ㅡ, ㅣ)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에 의해 파생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서나 병서에 의해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되어 있다. 창제 당시에는 두 개의 자음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연서법에 의해 순경음(ㅁ, ㅂ, ㅍ, ㅅ)을 만들어 썼고, 둘 이상의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법에 의해 ‘ㄲ, ㄴ, ㄷ, ㄹ, ㅈ, ㅊ, ㅌ, ㅍ,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나 ‘ㅃ, ㅆ, ㅉ, ㅊ, ㅌ, ㅍ,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은 글자들을 만들어 썼다. 모음도 ‘ㅏ’와 ‘ㅓ’, ‘ㅗ’와 ‘ㅛ’를 병서하여 ‘ㅑ, ㅕ’를 만들고, 기본자와 초출자 ‘·, ㅡ, ㅣ, ㅏ, ㅓ, ㅗ, ㅛ, ㅜ, ㅠ’에 ‘ㅣ’를 병서하여, ‘ㅑ, ㅕ, ㅗ, ㅛ, ㅜ, ㅠ’를 만 들고, 재출자와 ‘ㅑ, ㅕ’에 다시 ‘ㅣ’를 더하여 ‘ㅑ, ㅕ, ㅗ, ㅛ, ㅜ, ㅠ’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 썼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로 말미암아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데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의 말을 적을 때에도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서 발음기호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의 발음을 적기 위해 발음기호로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글자는 소리를 적는 도구인데, 소리의 기본 단위는 ‘음절’이다.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소리를 귀로 들을 때는 그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우리는 ‘나’, ‘무’라고 한 덩어리의 소리마디로 듣지 ‘ㄴ, ㅏ, ㅓ, ㅛ’로 나누어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소리마디인 음절을 소리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



서 이집트 글자나 일본의 가나 글자와 같은 음절글자뿐만 아니라 한자와 같은 뜻글자들은 소리마디 단위로 글자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글자들로는 적을 수 있는 소리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만큼의 글자가 있어야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음절문자로 만들지 않고 자음을 표현하는 문자와 모음을 표현하는 문자를 따로따로 만들었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은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이를 조합해서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즉, 글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진 자음과 모음 4글자(ㄱ, △, ㅇ, ·)와 중국어를 적기 위한 6자 등을 합해 조합하면 무려 399억 자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소리가 분석되는 최소의 단위인 음소(자음과 모음) 단위로 문자를 만들고, 이것이 모여 소리를 이루는 음절을 고려하여, 모아쓰도록 규정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글자살이에서 자음과 모음 24자만으로도 11,172개의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으니 모아쓰기는 매우 효율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지는 음소문자이면서도 음절문자처럼 모아쓰기 방식으로 글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글자인데, 그렇게 한 다른 이유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리마디 단위로 모아쓰면 뜻을 알기 쉬워서 독서에 능률적이다. ‘ㅎㅏㄴㄱㅡㄹㅏㅓㅓㄹㅏㅇ’이라고 쓰는 것이 쓰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읽기에 매우 불편하고 뜻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글사랑’으로 모아써서 의미전달을 쉽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한글을 모아쓰기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글을 모아쓰면 한자와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자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때 편리하다는 점이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는 한자의 발음을 통일해서 적어야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중국의 한자는 같은 글자라도 지역마다 처음부터 발음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한자음과 조선 한자음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한글은 이들 한자음의 정확한 표기를 위한 발음기호로서의 역할도 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한글을 한자처럼 모아 씌으로써 한자와 한글이 음절단위로 대응을 이루어, 한글이 한자의 발음기호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글의 이러한 발음기호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오



늘날 한글을 국제 음성 기호로 사용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글 표기법을 쉽게 하고 한자를 폐지하자는 운동, 그리고 한글 기계화 등과 관련하여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주시경, 최현배 선생도 한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글을 풀어쓰게 되면 단어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읽기 쉽고 필기체를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기가 쉬우며, 타자기에 적합하여 기계화가 쉽고, 받침이 없어지니까 표기법이 간편해지고, 한자 폐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때를 놓쳐 실행할 수 없었고,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보편화함으로써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자판에서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아쓰기를 해 주기 때문에 한글 기계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수가 비슷하여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가며 치기 때문에 타자 속도도 알파벳보다도 훨씬 빠르다.

③ 한글의 미래

서양 사람들은 19세기 중엽에 사람의 소리를 정확히 글자로 적으려고 발음기관을 본뜬 글자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전화를 발명한 벨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멜빌 벨(Alexander Melville Bell)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발음기관의 위치와 발음기관이 움직이는 모양을 그림으로 만들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보이는 음성(Visible Speech)’이라고 이름 붙여 1867년에 세상에 소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벨의 이 음성문자가 발음기관을 본뜬 최초의 문자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400년이나 앞선 15세기에 이와 같은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63년에 미국의 언어학자 맥콜리(J. D. McCawley) 교수가 포스(Frits Vos)의 논문을 세계적인 잡지인 <언어(Language)>에서 평가하면서부터이다. 포스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한국 알파벳[한글]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며, 더욱이 고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부터 서양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5년 샘슨(Geoffrey Sampson) 교수는 ‘문자 체계(Writing System)’라는 책에서 “한글은 의심할 것 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

서양의 어느 언어학자는 한글날이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매년



한글날이 되면 세종대왕의 영정 앞에 한국 음식을 차려 놓고 기념식을 치른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고 한자와 영문자를 남발하고 외계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컴퓨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우리의 글자살이에서도 컴퓨터는 톡톡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컴퓨터는 한정된 수의 자음과 모음을 자판에서 입력하면 저절로 모아쓰기 형태의 글자를 만들어 준다. 컴퓨터와 한글은 궁합이 잘 맞아서 한글이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서양의 거친 공격에도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살아남게 된 것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률이 세계에서 으뜸인 것 또한 한글의 이러한 창제와 구조의 과학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글의 과학성은 정보화 시대에서 한글이 생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기본 글자에서 다른 글자를 파생시키고, 이 자음과 모음을 합해 수없이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고, 글자에서 낱말을 만들어 내는 한글의 구성 원리는 컴퓨터의 계산 원리와도 비슷하다. 또한, 모음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며,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 주는 기계번역이나, 우리의 말소리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음성 인식 컴퓨터를 만드는 등의 한글의 정보화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과 글이 우리말과 글을 위협하는 요즘,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발판으로 한글이 세계로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¹⁾

1) 이 글은 ‘김형배(2005), 한글, 모든 언어의 꿈(말과 글, 47~51쪽,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에 실린 글을 다듬은 것으로, 국립국어원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혀 둔다.



● 한글을 평한 세계의 시각

- 에드윈 라이샤워(E.O.Reischauer,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동아시아 역사가)
한국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
- 프리츠 보스(Frits.Vos,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를 발명했다.
-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 영국 서세스대학 교수, 문자학자, 언어학자)
한글이 한국인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자들 가운데 최고이든 아니든 간에, 한글이 세계 인류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맥콜리(J.D.McCawley,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언어학자)
저는 세계 언어학계가 한글날을 찬양하고 공휴일로 기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 존 맨(John Man, 영국 역사가, 다큐멘터리 작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 우메다 히로유키(Umeda Hiroyuki, 일본 전 동경대학 교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이면서도 로마자보다 한층 차원이 높은 자질문자이다.
- 라이너 도르멜(R.Dormels,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
한글은 한국 문화 창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제어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
한글은 그 독창성과 기호 배합의 효율성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다.
- 노마 히데키(Noma Hideki,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교수)
한글은 단지 새겨진 문자로서가 아니라 새겨져 인쇄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 게다가 놀랄 만한 서적의 형태로, 그것도 문자를 만든 이유와 문자 원리, 용법을 기술한 서적의 형태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이 점만으로도 한글은 경이적이기까지 하다.



- 베르너 사세(Werner Sasse, 독일 함부르크대학 교수)
서양이 20세기에 들어서 완성한 음운이론을 세종대왕은 그보다 5세기나 앞서 체계화했고,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 로버트 램지(R. Ramsey, 미국 메릴랜드대학 교수)
서양의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을 거쳐서 변형 개량되어 온 것인 데 반해 한글은 발명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것은 음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 최고의 알파벳이 될 수밖에 없다.
- 펄 벅(Pearl Buck, 미국 소설가)
한글이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이지만 한글 자모만을 조합하면 어떤 언어 음성이라도 표기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다.
- 다니엘 홀트(Daniel Holt, 미국 교육행정관)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음성을 표기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데이비드 맥켄(David R. Mcann,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외국인이라도 한글을 익혀 사용할 수 있으면 세종대왕의 백성이라 생각한다.



국어문화학교

✿ 이 중 권(제천 기적의 도서관/문학박사)

1. 들어가며

우리에게 바람직한 대화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대화는 모든 인간관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고 산다. 말은 독백이 아닌 한 항상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혼자 말로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상대가 되며 이 경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생각이 이루어진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말은 매우 바보 같기도 하고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다. 바보 같은 말은 혼자 구시렁거려거나 혼자 웃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철학적인 물음은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바보와 천재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른다.

말, 말은 곧 인간관계이다. 말을 잘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말을 잘 못하면 인간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하여 별로 달갑지 않은 관계가 된다. 비록, 좋은 사이였다 하더라도 말을 잘 못하면 좋지 못한 관계로 변화되기 쉽다. 또한 비록 소원하고 미덥지 않은 관계였더라도 진실한 말로 신뢰를 형성하면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말 잘못으로 좋은 사이가 나쁜 사이로 전락되기는 쉬워도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은 사이로 변하려면 그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든다.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 이외의 소통 방법, 즉 신체언어도 있다. 신체언어는 얼굴 표정, 손짓, 발짓, 몸동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동작학(kinesics)’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작학의 연구에 의하면 면 대 면의 대화에서는 말보다 오히려 얼굴의 표정이나



동작이 말하는 사람의 진의를 더 드러낸다고 한다. 말은 긍정을 표현하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동작이 부정적이면 결과는 부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대화에 있어 말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동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대화는 언어와 비언어가 다 사용되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고도 조화롭게 활용해야만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언어적 대화를 먼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비언어적 대화에 있어서도 신체 부위별 유의점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인간관계에서의 대화에서 말과 글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몸짓 언어(body language)의 문제를 함께 다룸으로써 대화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를 ‘인간관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언어적 대화

2.1. 대화의 시대 구분

인류는 대화를 통하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원시사회에서도 의사소통을 했으므로 말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기록됨으로서 언어적 대화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학문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이 글로 기록되어 역사가 성립되게 되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가장 오래 대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은 플라톤의 ‘대화록’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톤은 학문의 방법으로 대화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대화들이 책으로 묶여져 ‘대화록’이 되었다. 사실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모든 책들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시적 대화 / 동시적 대화

이렇게 언어가 발생된 후 대화가 지속되어 왔고, 언어 기록의 유무에 따라 대화의 양상은 동시적 대화와 통시적 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통시적 대화는 선인들이 남겨놓은 역사기록 및 그 기록과의 대화이며, 동시적 대화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살아가는 현재적 대화라 하겠다. 그러나 통시적인 대화, 즉 책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동시적인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져서 대화에 있어서도 상황에 알맞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대화의 언어 구분

대화는 언어의 종류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하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에 어설픈 외국어를 사용하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어 능력 자체의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방언에 의해 의사소통이 제약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한국어 대화

우리는 언어를 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국어에 국한되며, 국어는 누구나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의외로 적다. 그렇지만 자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은 성장 배경의 환경과 문화의 경험이 언어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세대차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의 문화를 통해 소통이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황이나 목적, 분위기에 따라 대화의 수위 조절은 언제나 필요하다.

외국어 대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어 몰입 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영어를 언어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몰입하여 배움으로써 영어권 나라의 사람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의 여성들이 출연하여 한국말로 ‘수다’를 떠난다. 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문화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어 몰입 교육’을 받았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3. 대화의 종류

2.3.1. 가족 대화

한 인간의 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애 최초의 대화는 탄생 신호인 ‘울음’이다. 아기가 성장 발달함에 따라 웅얼이로, 웅얼이에서 말로, 말에서 글로 발전하면서 문명에 적응한다. 가족 간의 인간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 아이가 직립보행하게 되는 3세 무렵부터는 제법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언니, 형, 동생 등 가족의 인간관계와 역할을 알아간다. 가족은 탄생과 성장의 최초 환경이기에 결손 가정 아이나 수용시설 아이들은 그 언어와 인간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언어는 ‘환경의 산물’이며 ‘관계의 산물’이므로 환경과 인간관계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근대화 60여 년 동안 산업화와 서구화가 급격히 촉진되어 가족 형태도 예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졌다. 직장, 유학 등으로 인해 주거 이전이 빈번해짐에 따라 가족단위의 분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그 결과 3대, 4대가 같이 살던 전통가정이 사라지고, 거의 모든 가정이 핵가족으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대화의 상대와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로 사는 조부모와 손자, 따로 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명절 때가 아니면 대화의 기회가 거의 없다. 같이 사는 부부와 어린아이들도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정으로 대화의 기회가 급격히 줄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가족은 있어도 대화할 상대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겉돌고 있다. 가풍과 윤리가 없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자연스러운 교육적 역할이 그 정체성과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 시대의 가족대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반성 그리고 대화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가족 상황의 가족대화에서 유념하고 힘써야 할 사항들을 생각해 보자.

(1) 부부 간의 대화

전통사회에서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말해 왔다.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말도 있어 왔다. 부부는 한마음 한몸이되 부인은 반드시 남편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 상황에서는 이 말들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심각체(異心各體)’ 내지 ‘부부 독립’의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부 간 교육수준의 평준화와 맞벌이로 인한 경제력의 향상, 양성평등의 강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대등하고 격이 없어진 것이다. 부부 관계가 ‘맞먹는’ 관계로 되어 젊은이들은 이제 부부 간이라도 ‘야, 너, 나’ 하는 반말의 관계로 되는가 하면, 남편이나 남자 친



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은 호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격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거리가 있는 기형적 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오빠’라는 명칭이 친근감은 있으나 오빠가 분명 남편은 아니다. 오빠라고 부르면서도 ‘너, 나’ 하고 반말을 한다. 이는 국어사용의 혼돈이고 우리말 예절에도 어긋난다.

언어 예절이든 인간관계 예절이든 부부 간에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사회에서의 거리는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종속적 거리였지만 민주사회에서의 거리는 양성평등 및 상호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그러자면 부부 대화의 언어적 표현에서도 평등과 존중의 의미가 들어 있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여보’나 ‘자기’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친근감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부부 간에도 존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 이것 좀 들어 주세요.”라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이것 좀 도와 줘요.” 등의 적절한 존칭은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함께 묻어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감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떤 인간관계든지 말과 행동이 너무 만만하고 지나치면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너무 어색한 존칭과 무미건조한 어법은 오히려 부부 간의 관계를 재미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대화에는 상황에 따라 유머가 필요하다. 적절한 유머는 윤리와도 통하고 재미와도 통한다. 유머는 친화력을 가진다. 부부 간의 대화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유머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2) 부모와 자녀 대화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자연스러운 생활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빠대 있는 가정’이라는 말이 있다. 빠대 있는 가정이란 가정의 가풍과 가훈이 잘 확립되어 있어 자녀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정보사회의 생활 구조로 인해 이러한 ‘빠대 있는 가정’의 전통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적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정 교육의 포기는 곧 인간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해도 가정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화를 나누며 자란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과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 특히



아빠와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엄마와의 대화는 아기 때부터 친근하게 형성되기가 쉬우나 아빠와의 대화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아이가 잘 때 출근했다가 잘 때 퇴근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시간 없음을 이유로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당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 외의 근무나 회식자리를 가급적 줄여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영·유아와의 대화

아기와의 대화는 도리도리, 까꿍 등 쉬운 의성어와 의태어로 시작된다. 방울이나 종 등의 장난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보여 주며 대화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영아에서부터 엄마와 아기가 그림책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다. 책으로 인생을 출발한다는 취지의 이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제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아원 등 부모가 없는 아기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 학생과의 대화

초등 학생 자녀와의 대화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 상대를 해 주어야 한다. 자녀가 물어 보는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고, 바로 대답을 못하는 사항은 나중에 확인하여 꼭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자연스러운 가운데 바른 생활습관과 예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너무 공부만을 강요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대화하되 교훈적이거나 교육적인 소재는 가급적 피하고 그 날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우리 집의 자랑, 아빠의 일, 엄마의 일, 자신의 일 등을 중심으로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소재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 학생과의 대화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등 학생에 이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 연령대의 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고, 천방지축 날뛰기도 하는 시기여서 정서적이고 이성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 중·고등 학생들은 대체로 간섭을 싫어



하며 대화조차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대화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 친구, 스승, 앞으로의 희망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가족회의를 자주 열어서 각자 할 말을 터놓고 말하게 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는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 다소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손찌검을 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는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유념할 일은 자녀에게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를 은근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과의 대화

대학생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다. 그러나 아직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한 성인이다. 특히, 요즘 대학 1학년의 연령은 만 19세로서 성인에 접어들기 직전이다. 따라서 아직 대인관계의 어법이나 태도가 세련되지 못하고 사춘기의 성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철’이 들지 않아서 스스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 일쑤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모든 간섭을 풀고 “이제 다 키웠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안심하기 쉽다. 그러나 대학생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대학생이 되면 보통은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나 하숙방, 자취방 등에서 생활한다. 술과 오락에 노출되어 행동이 매우 자유롭다. 부모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휴학하거나 용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어투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유연하고, 때로는 재미있게 인생의 회로애락,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술은 대화의 촉진제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술 취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술 깨고 나면 모두 헛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에 있어 과도한 술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자녀와의 맞담배질 역시 곤란한 일이다.

(3) 조부모와 손자손녀와의 대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손녀와의 대화는 소원해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조부모는 민속 전통의 전수와 가족윤리의 확립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민속이나 전통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형성된다. 조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는 현실에서 명절이나 제사 때 잠시 조부모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 효과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손과의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꾸중할 때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를 야단치고 손자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경우 가족윤리의 일관성이 무너져서 아이들은 헛갈리게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적절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2. 직장 대화

(1) 상사와의 대화

직장에서 상사는 대하기 어려운 상대이다. 상사는 제도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 등 명령권과 결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은 상사 앞에서 긴장하여 떨기도 한다. 특히 대화의 상대가 몇 단계 위의 높은 사람일 경우는 보고하러 갔다가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 조직은 계급사회다. 계급은 곧 신분이다. 현대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조직은 엄연히 신분사회인 것이다.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겸손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자면 평소의 업무에서 충실한 지식기반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현황의 파악, 계획, 대안 등 담당 업무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현재 및 미래까지 확고한 흐름과 방향을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성과도 같다.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확립하고 있으면 일단 대화의 준비가 잘 된 것이다. 상사가 질문할 때나 지시할 때 그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원칙과 합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너무 아는 척 하거나 상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언행은 삼가야 한다. 특히 상사가 새로 부임하였거나 업무를 잘 모르더라도 겸손한 태도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사는 부하가 자기를 무시하는지 부하가 잘난 척 하는지를 금방 안다. 이런 것이 상사의 눈에 각인되면 그 상사와는 일하기 어렵게 되고, 입소문을 타고 다른 상사에게로 전달되어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상사에는 강압적인 사람, 유연한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강압적인 상사에게는 원리 원칙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좋다. 강압적인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리 원칙으로 대하지 않으면 강압에 눌리게 된다. 유연한 상사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소상히 보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신조어 ‘flexicurity’라는 말이 등장했다.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경직되거나 강압적이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유연한 조직, 유연한 상사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2) 동료와의 대화

직장의 동료는 경쟁자이다. 동료에는 잘 아는 친구는 물론 얼굴도 모르는 동급의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친근한 동료 간에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다. 사적인 대화는 물론, 업무 상의 대화도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동료라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대화를 트기가 쉽지 않다. 동료 간에는 알게 모르게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한다. 따라서 업무적 대화에서도 경계심이 작용한다.

동료와의 업무적 대화에서는 부서 이기주의를 가급적 배제하고 조직 전체의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 전체의 목적은 모든 하부조직의 존재 이유이다. 하부조직의 목적이 조직 전체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에는 합리성이 없다. 인원 감축이나 구조 조정 등에서의 저항은 부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서 이기주의라는 균살을 빼는 것이 조직 건강성 확립의 첩경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동료와의 대화는 상호 존중과 협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 개인적 친분 등이 지나치게 업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의 씨앗이 된다. 조직 내에서 대화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미 동아리 등 비공식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일종의 사조직이므로 비공식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는 공식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비공식 조직의 관계로 인해 그 구성원들끼리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선점하려 하면 역시 조직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부하와의 대화

직장에서의 부하는 상사보다 대체로 연령이 어리지만 간혹 상사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도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 부하와의 대화라고 해서 지시나 명령 일변도로 하거나 반말로 일관하는 것은 직장 예절에 어긋난다.



직장에서의 대화는 어떤 관계의 대화든 공식적 대화가 주를 이룬다. 공식적인 관계는 경직되기 쉽다. 따라서 부하들을 대할 때 가끔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요즘에는 ‘유머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직장 내 대화에서 적절한 유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부하를 부를 때의 호칭은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사가 남자 직원을 부를 때 “김 아무개 씨”라고 한다면 여직원을 부를 때도 “이 아무개 씨”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게 동등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직원을 “미스 김”이나 “김 양” 등으로 부르는 것은 양성 평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 직원을 “미스터 리”로 부르는 것도 이미 어색한 호칭 방법이 되었다.

또한 윗사람이 과장을 부를 때는 “김 과장”이라고 하면 되고 “김 과장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면 직위 관계상 어색하다. 또 상위가 앞에서 하위자가 중간 상위자를 부를 때도 존칭을 사용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사장님, 김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하면 어색하고, 사장에 대한 경어법에도 어긋난다.

2.3.3.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란 직장과 가정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학교 등 온갖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든다면 진실성, 상대방의 인정, 내용의 명료성, 겸손 등을 들 수 있다.

진실성

진실성이란 대화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 시에 어떠한 복선을 깬다든가 저의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대화의 바탕은 항상 사실과 합리에 입각한 것이라야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인정

대화의 상대를 깔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중단되고 만다. 인간관계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계층이 많다. 종교 그룹에도 대학에도 계층이 없는 곳은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의 명함에는 계층의 부풀림이 많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는 하나같이 다 ‘사장’이고 부동산 중개소에는 직원이 곧 ‘실장’이다. 따라서 대화가 잘 되려면 높은 사람이라도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내용의 명료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상 분명해야 한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더라도 소통이 어렵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따라서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겸손한 태도

대화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자존심을 감추면서 대등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화난 상태에서의 대화는 싸움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2.4 . 대화의 기법

경청(listening)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기껏 들어 놓고 판소리를 하기 십상이다. 영어를 공부할 때만 ‘듣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일상대화에서도 경청은 꼭 필요하다. 잘 들어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기억

정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이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억력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특히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건망증이 있기 마련이므로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잊어버릴 경우는 허다하다. 따라서 기억의 보조 수단으로 메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를 들을 때에도 노트에 메모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복습이나 추후 활용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반응과 되물음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는 중간에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의도와 문맥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다시 물어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말할 때는 예, 예, 대답해 놓고 나중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5. 대화의 상황

면 대 면 대화

면 대 면 대화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상황으로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서 길든 짧은 대화를 나눈다. 면 대 면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전신을 보며 말하기 때문에 말 이외의 요소가 의사소통에 작용한다. 얼굴의 표정과 손, 어깨 등의 몸동작이 함께 연출되므로 서로의 이해를 쉽게 한다. 전화상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오해를 하는 사안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명쾌한 결론에 이르기 쉽다.

전화 대화

전화 대화는 전화로 의사를 소통하는 상황이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동작을 멋대로 하기 쉽다. 전화 대화에서는 목소리의 톤과 음색이 많이 작용한다.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전화에서는 목소리를 저음으로 깔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



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명령조나 반말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여보세요.”

“네, ○○부 김 아무개입니다.”

“김 과장 있나?”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김 과장 바꾸라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불쾌할 것이다.

휴대 전화 문자 대화

요즘은 휴대 전화로 문자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간단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로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또한 문자에 사용되는 어휘가 제멋대로여서 우리말의 사용이 왜곡되고 있다. 은어와 비속어도 많이 사용된다.

전자 우편

전자 우편도 일반화되었다. 전자 우편으로는 많은 분량의 서류까지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편리하나 요즘은 전자 편지를 잘 열어보지 않아 문제다. 전자 편지를 열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 편지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전자 편지를 보내고 다시 휴대 전화로 전자 편지를 보냈다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다. 전자 편지에 쓰는 어휘도 휴대 전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속어가 많다.

3. 비언어적 대화

3.1. 비언어 대화의 특성

비언어적 대화는 보디랭귀지 또는 kinesics라는 명칭으로 1952년에 Birdwhistell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Birdwhistell에 의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비언어적 단서들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얼굴 표정, 자세, 몸짓 등 언어 외적인 모든



움직임이 의사소통의 단서로 포함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 ㉠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다.
- ㉡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얼굴색이나 표정 등 표현의 강도에 따라 단호함이나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 ㉢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상황에 따라 그 의미해석이 달라진다.
- ㉣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의사전달 수단이다.

3.2. 비언어 대화의 종류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얼굴의 표정은 만족, 긍정, 기쁨, 놀람, 불쾌감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눈썹과 미간, 입의 모양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변하는 부분이 눈과 입 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눈썹과 미간은 부정적, 긍정적 감정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눈썹을 찌푸리면 대부분은 불쾌감이나 부정을 나타낸다. 몸이 아픈 경우에도 눈썹과 미간을 찌푸릴 수 있다. 눈썹을 찌푸리면서 동시에 입가에서 미소를 짓기는 어렵다.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쩡그린 ‘억지 미소’가 되므로 역시 부정이나 불쾌감을 나타낸다.

면 대 면의 대화에서 시선 처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시선을 가끔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면 성의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윽하게 또는 넋지시 바라보면서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의심을 받기 쉽다. 또한 계속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지거나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입모양을 지을 때 입술을 굳게 다문다면 각오를 단단히 한다는 뜻이거나 거부의 뜻으로 비쳐진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성의 있게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생활습관에서 미소가 적은 편이다. 아파트나 빌딩의 승강기를 타 보면 같이 탄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 과도한 침묵이 무겁게 흐르는 경험을 할 것이다. 아니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탄 경우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인사를 했다가는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 고쳐야 할 문화인 것 같다.



자세와 몸짓

자세와 몸짓은 다른 말로는 몸가짐, 태도,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몸가짐은 옷차림과 두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옷차림과 자세가 달라지겠지만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품격에 맞는 차림과 행동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몸가짐은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것이다. 남이 볼 때 혐오감을 느끼는 차림과 태도는 일단 실패작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처럼 몸가짐과 언행, 글씨, 판단력은 사람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고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면 대 면 대화의 상황에서 상사든 친구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시 내지 멸시를 나타낸다. 상대를 향하여 상체를 앞으로 당겨서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적극성, 자신감을 나타낸다.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만지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하면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다. 몸은 자신의 총체적인 표현이므로 평소의 수양을 통하여 개성 있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도 고려의 대상이다. 대화의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는 45cm, 개인적 거리는 45cm~120cm, 사회적 거리는 120cm~360cm, 공적인 거리는 360cm라는 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4. 나오며

인간의 사회생활은 대화를 통해 유지, 발전된다. 학문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대화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과과의 대화, 선생님과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선후배의 대화, 직장에서의 대화 등 대화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방법이기에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생활의 품질이 결정된다. 대화에는 성공하는 대화, 실패하는 대화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진실한 대화, 합리적인 대화, 겸손한 대화는 성공할 수 있는 대화이다. 가식적인 대화, 거드름 떠는 대화, 비방 섞인 대화는 실패하는 대화이다.

대화는 사람의 총체적 인격을 나타낸다. 조직 구성원들의 대화는 그 조직의 역할 건전성을 나타낸다. 대화와 인간관계는 언제나 밀착되어 있다. 좋은 대화가 있는 곳에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대화와 인간관계는 생활 속의 종합예술이다. 대화를 잘하면 어디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10. 대화와 인간관계 ◉◉◉ 이종권

참고문헌



- 김양호, 조동춘(2002), 성공하는 직장인의 매너와 화법, 예문당.
- 박영실(2001), 서비스를 돈으로 만드는 여자, 도서출판 하우.
- 엄문자 외(2002), 생활문화와 매너, 건국대학교출판부.
- 엘런 피즈 바바라 피즈 저, 서현정 역(2005), 보디랭귀지, 대교 베텔스만.
- 한상완(2000), 디지털시대의 정보조사제공학, 구미무역(주) 출판부.

편집: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팀 팀장 / 문학박사)
김형배(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팀 학예연구사 / 문학박사)
박종덕(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 문학박사)

국립국어원 2009-3-7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2009년 3월 3일 인쇄

2009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국립국어원 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 (02) 2669-9775

(02) 2669-9752

